

## 제61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종합적 고찰>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주최: 구결학회

## 2022년 제61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 학술대회 일정

■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 방식: 온라인

■ 주최: 구결학회

| 일 시           |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
| 안내<br>및<br>개회 | 10:00-10:20 | 온라인 대기 및 학술대회 진행 관련 안내                                       | 사회: 문현수<br>(인하대)   |
|               | 10:20-10:30 | 개회사: 장윤희(구결학회 회장)                                            |                    |
| [제1부]         | 개인 연구 발표    |                                                              | 사회: 이병기<br>(한림대)   |
|               | 10:30-11:00 | 각필 및 표점 관련 연구 자료 소개 -고려시대 불경 10종 20권<br>발표: 남경란(대구가톨릭대)      |                    |
|               | 11:00-11:30 | 한자음의 음절 특성을 통해 본 『계림유사』 고려 방언 모음 체계<br>발표: 장준익(남경대)          |                    |
|               | 11:30-13:00 | 점심 식사                                                        |                    |
| [제2부]         | 기획 주제 발표    |                                                              | 사회: 이용<br>(서울시립대)  |
|               | 13:00-13:30 | 고양 원각사 소장 보물 제2056호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版本) 연구<br>발표: 하정수(동국대) |                    |
|               | 13:30-14:00 |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어문생활사적 특징<br>발표: 홍윤표(연세대)                      |                    |
|               | 14:00-14:10 | 휴식                                                           |                    |
|               | 14:10-14:40 | 원각사 소장 『능엄경』 한글표기의 표기사적 위치<br>발표: 정우영(동국대)                   |                    |
|               | 14:40-15:10 |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특징 -어순 표시를 중심으로<br>발표: 장경준(고려대)             |                    |
|               | 15:10-15:40 | 원각사 소장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비교<br>발표: 이병기(한림대)                    |                    |
|               | 15:40-15:50 | 휴식                                                           |                    |
|               | 15:50-17:30 | [종합토론]<br>김성주(동국대), 박진호(서울대), 문현수(인하대), 허인영(고려대)             | 좌장: 정재영<br>(한국기술대) |
|               | 17:30-17:40 | 휴식                                                           |                    |
| 교육<br>및<br>폐회 | 17:40-17:50 | 연구윤리 교육                                                      | 사회: 문현수<br>(인하대)   |
|               | 17:50-18:00 | 폐회사: 장윤희(구결학회 회장)                                            |                    |

▣ 구결학회학술논문상 시상 및 총회 일정

| 일 시           |                 | 내 용          | 비 고              |
|---------------|-----------------|--------------|------------------|
| 시상<br>및<br>총회 | 18:00-<br>18:10 | 구결학회학술논문상 시상 | 사회: 문현수<br>(인하대) |
|               | 18:10-<br>18:20 | 총 회          |                  |

## ■ 목 차

### <개인 연구 발표>

|                                            |     |    |
|--------------------------------------------|-----|----|
| 각필 및 표점 관련 연구 자료 소개 -고려시대 불경 10종 20권 ..... | 남경란 | 1  |
| 한자음의 음절 특성을 통해 본 『계림유사』 고려 방언 모음 체계 .....  | 장준익 | 29 |

### <기획 주제 발표>

|                                                    |     |     |
|----------------------------------------------------|-----|-----|
| 고양 원각사 소장 보물 제2056호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版本) 연구 ..... | 하정수 | 52  |
|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어문생활사적 특징 .....                      | 홍윤표 | 72  |
| 원각사 소장 『능엄경』 한글 표기의 표기사적 위치.....                   | 정우영 | 98  |
|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특징 -어순 표시를 중심으로 .....             | 장경준 | 109 |
| 원각사 소장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비교 .....                    | 이병기 | 128 |

<개 인 연 구 발 표>



## 각필 및 표점 관련 연구 자료 소개

### - 고려시대 불경 10종 22권 -

남경란(대구가톨릭대학교)

#### 1. 서론

이 글은 각필 및 표점이 기입되어 있는 간행된 고려시대 불경 10종 22권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불경들은 『대반야바라밀다경』 2권,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7권,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1권, 『대보적경』 1권, 『대승아비달마잡집론』 1권, 『불설최상근본대라크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1권, 『아비담비파사론』 2권, 『아비달마식신족론』 1권, 『유가시지론』 4권, 『현양성교론』 2권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각필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4, 『대보적경』 권59, 『아비담비파사론』 권11, 『아비담비파사론』 권17, 『아비달마식신족론』 권12, 『유가시지론』 권32, 『유가시지론』 권53, 『현양성교론』 권1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등의 7종 13권이고, 표점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는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불설최상근본대라크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 『현양성교론』 권12,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등의 3종 4권이다. 그리고 각필과 표점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자료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4,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유가시지론』 권15, 『유가시지론』 권17 등의 4종 5권이다.

이 불경 자료 중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를 제외한 나머지 불경들은 모두 고려초조대장경들로 학계에서는 초조본(初雕本)이라 불리는 것들이다.<sup>1)</sup>

#### 2. 자료 소개<sup>2)</sup>

##### 2.1. 각필 자료

###### (1)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

이 책은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권제162이다.<sup>3)</sup> 이 자료의 서지적 특성은 소장자가 비공개를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 다만 글자수가 25행 14자

- 1) 초조본은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겨내려 만든 대장경이다. 현재 남아 있는 초조본들은 11~12세기 사이에 인출되었다.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목판이 13세기 전반에 몽고 침입 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 2) 이하에서 소개하는 불경 10종 20권의 사진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보 동산 앱사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사진 자료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main](http://www.heritage.go.kr/main))'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다. 또한 10종 22권의 서지 정보에 대한 설명은 문화재청의 유형문화재과에서 안내한 문화재 설명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 3) 동일 소장본으로는 권제170, 권제463이 있다.

인 두루마리본이다. 권제162의 권말에 적혀있는 기록을 통해 고려 정종 12년(1046)에 허진수(許珍壽)<sup>4)</sup>가 국왕과 국가의 평화를 빌며, 어머니의 무병장수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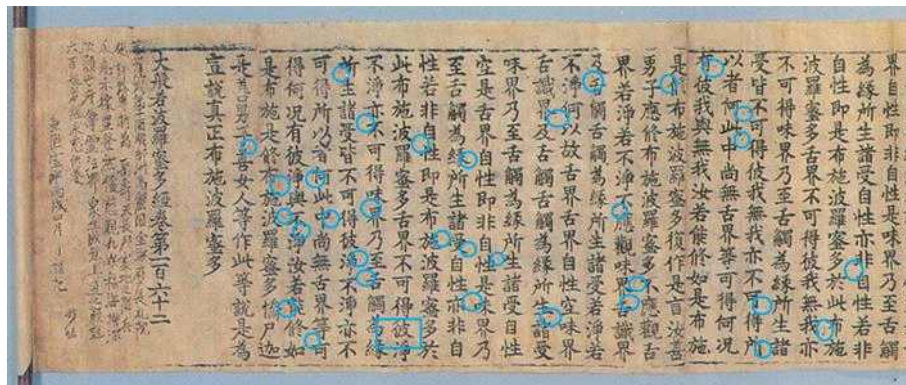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줄여서 ‘대반야경’, ‘반야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존재물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공(空)사상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반야심경’이라고 부르며 종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읽고 외우는 경전이다.



[그림 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62 사진

간기는 없으나 보존상태로 보아 같은 시기에 찍어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권162의 권말 기록은 다른 초조대장경의 인쇄시기를 추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자료에는 단점, 빠침, 지시선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62에 기입된 각필 예시

## (2)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80권 중 제29권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891.0cm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9cm, 1장(張) 28.5cm×31.0~46.8cm, 22행(行)~23행(行) 14자(字)의 두루마리본(권자본 卷子本)이다.

간기가 없으며, '경(敬)자'에 피휘(避諱)<sup>5)</sup>가 되어 있으며, 각자(刻字)는 정교하다. 글자의

4) 김해부(金海府)의 호장(戶長)과 예원사(禮院使)를 겸한 사람이다.

5) 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글자의 한 획을 생략

묵색(墨色)과 지질(紙質) 등을 참고할 때 이 책은 11세기 인출의 정각본(精刻本)이다.



[그림 4] 화엄경 주본 권제29 사진

이 자료에는 단점, 빠침, 사선, 호(〰)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5] 화엄경 주본 권제29에 기입된 각필 예시

### (3)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36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중 제36권으로,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암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의 길이는 48.0cm이며 상하간(上下間)의 높이는 23.8cm이다. 한 장은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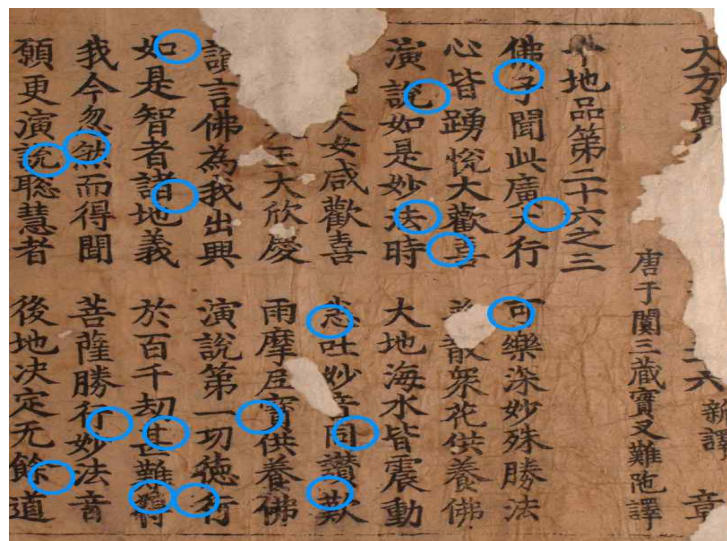
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



[그림 6] 화엄경 주본 권제36 사진

이 권자본은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 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자체 및 지질의 특징으로 볼 때 대략 11세기 후반에 개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쌍점, 사선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7] 화엄경 주본 권제36에 기입된 각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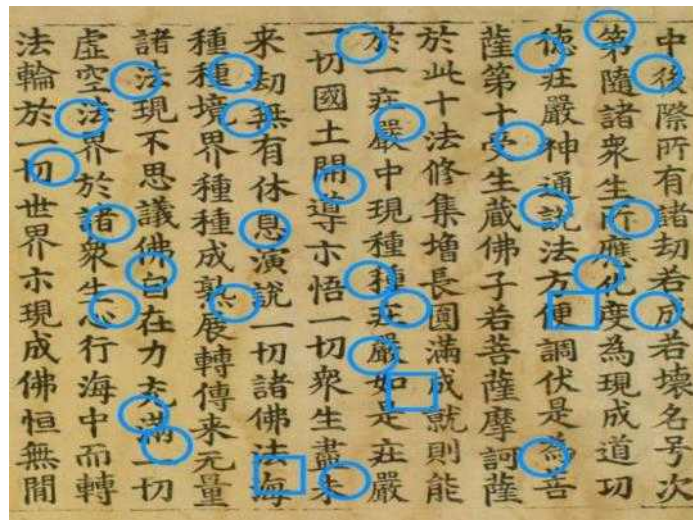
#### (4)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74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중 권제74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891.0cm이다. 한 장(張)의 크기는 세로 28.7cm, 가로 46.0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 광고(匡高)는 22.2cm, 23행 10자~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8] 화엄경 주본 권제74 사진

간기가 없으며, '경(敬)자'에 피휘(避諱)<sup>6)</sup>가 되어 있으며, 각자(刻字)는 정교하다. 이 자료에는 단점, 쌍점, 사선, 호(〰)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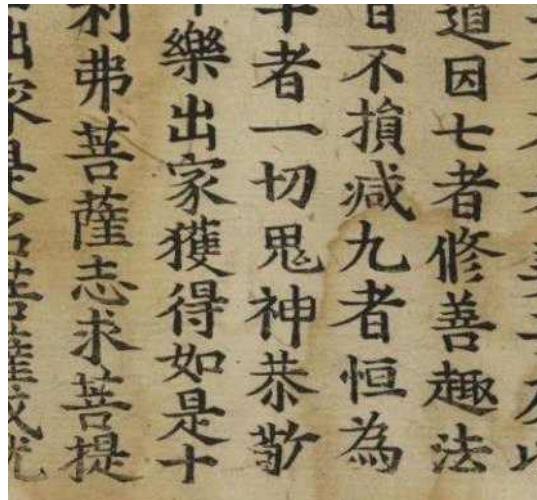


[그림 9] 화엄경 주본 권제74에 기입된 각필 예시

#### (5) 초조본 대보적경 권제59

『대보적경』은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을 한데 묶어 정리한 것으로서 보살이 여러가지 수행방법을 통해서 불법을 터득하고,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120권 중 권제59로 책의 크기는 세로 30.0cm, 가로 1081.0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30.0cm, 가로 47.0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는 23.0cm, 23행 14자(字)의 두루마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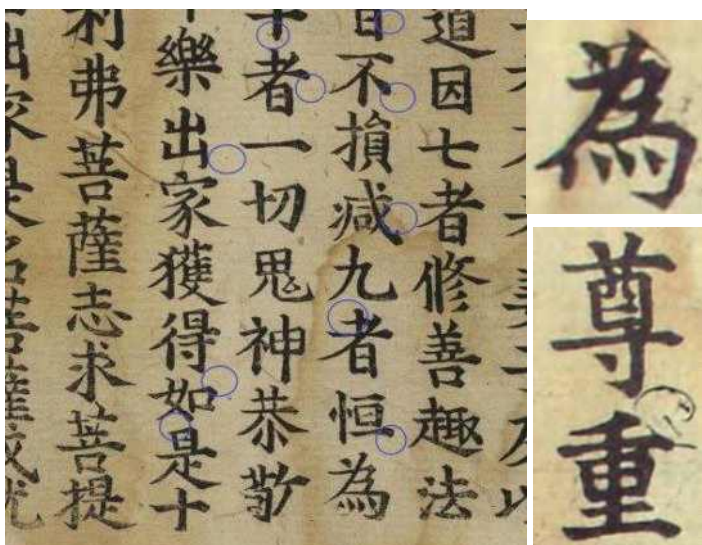
6) 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것



[그림 10] 대보적경 권제59 사진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지질과 인쇄상태로 볼 때 11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는 단점, 빠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다른 자료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원형태의 부호가 있어 그 쓰임이 자못 흥미롭다.



[그림 13] 대보적경 권제59에 기입된 각필

#### (6) 초조본 아비담비파사론 권제11, 권제17

이 책은 북량(北凉)의 부타발마(浮陀跋摩)와 도태(道泰)가 공동으로 번역한 60권 가운데 권제11과 제17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9cm, 가로 2198.8cm로 권11은 세로 28.9cm, 가로 47.8cm의 종이를 46장 이어붙였고, 권17은 세로 29.7cm, 가로 47.4cm의 종이를 37장 이어붙였다.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2cm, 한 장(張)의 크기는 세로 28.9cm, 가로 47.8cm이고, 23행 12자~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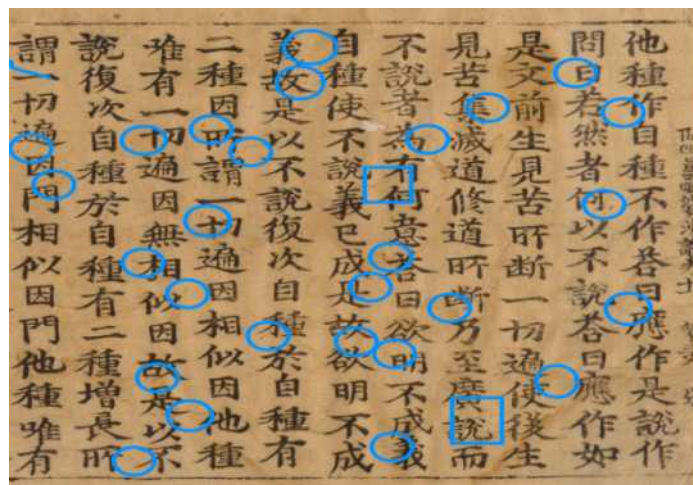
아비담은 부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論)부분을 충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아비담비파사론은 성불(成佛)하는 데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모아 중생들이 실천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장수 표시를 ‘장(丈)’으로 한 점, 책 끝에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이 없는 점, ‘경(竟)’자의 마지막 획이 생략된 점 등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아비담비파사론 권제11 사진

이 자료에는 단점, 빠침, 호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15] 아비담비파사론 권제11에 기입된 각필 예시

#### (7) 초조본 아비달마식신족론 권제12

이 책은 당(唐)나라(A.D. 649)때 현장(玄奘)이 번역한 한역본을 저본으로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 인출한 것이다. 전체 16권 가운데 이번 자료는 권12로, 책의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1209.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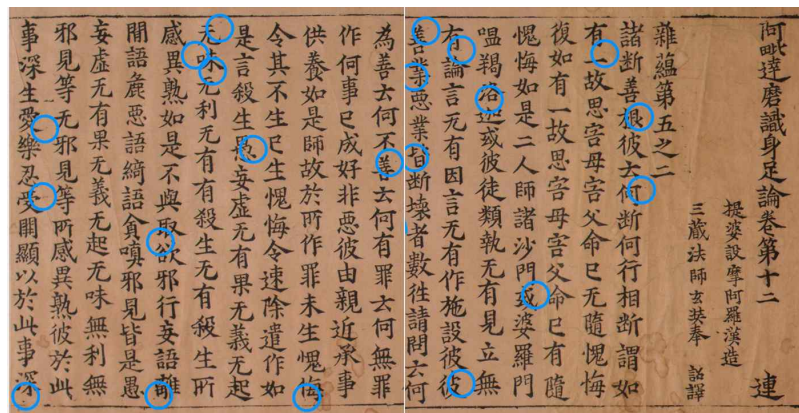
[그림 16] 아비달마식신족론 권제12 사진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4cm이고, 한 장(張)의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46.5cm이며, 23행 12자~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아비달마식신족론은 성불(成佛)하는 데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모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간기가 없는 점, 책의 장수 표시를 ‘장(丈)’으로 하고 있는 점 등과 인쇄상태 및 지질 등을 고려해 볼 때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는 단점, 빠짐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17] 아비달마식신족론 권제12에 기입된 각필 예시

#### (8)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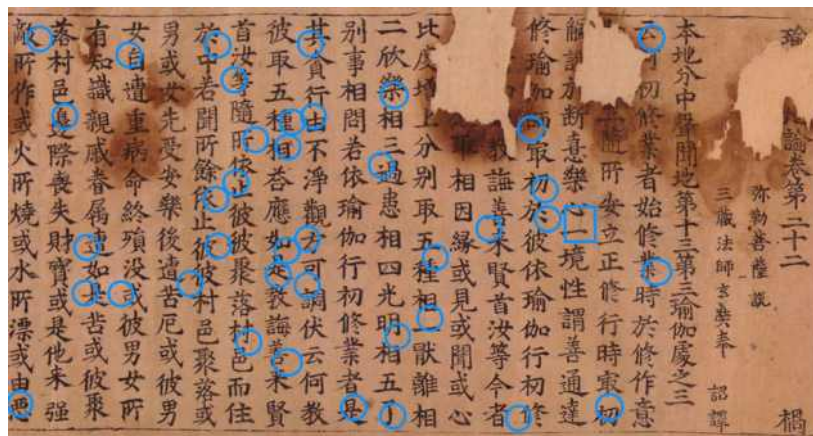
이 책은 당나라 현장역의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제32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8cm, 가로 44.8cm이며,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8cm, 22행~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18] 유가사지론 권제32 사진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어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화함(禍函)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쌍점, 직선, 사선, 빼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19] 유가사지론 권제32에 기입된 각필 예시

#### (9)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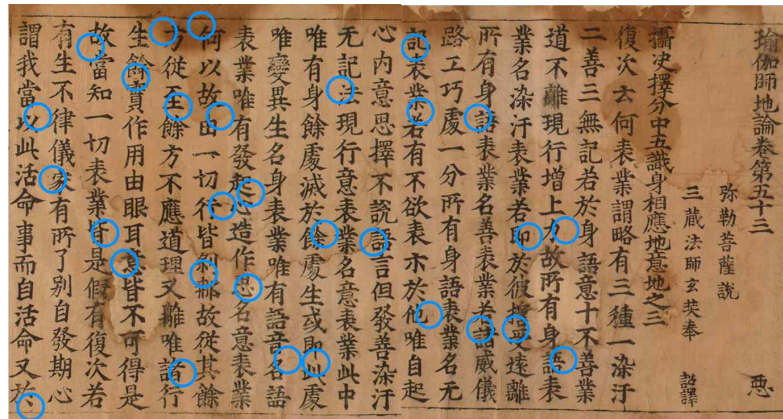
이 책은 당나라 현장역의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제53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4cm이고 가로 1118.4cm이며,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8cm이다. 한 장(張)의 크기는 세로 28.4cm, 가로 48.0cm, 22행~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20] 유가사지론 권제53 사진

이 판본은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조대장경 판본과 비교해보면 판수제와 권, 장, 함차표시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쌍점, 사선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21] 유가사지론 권제53에 기입된 각필 예시

#### (10)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제11

인도 무착보살(無著菩薩)이 지은 글을 당나라 현장(玄奘)이 20권으로 번역한 것 가운데 권제11이다. 『현양성교론』은 줄여서 『현양론』이라고 하며, 또는 『광포중의론(廣苞衆義論)』이라고도 하는데, 법상중의 논(論) 가운데 하나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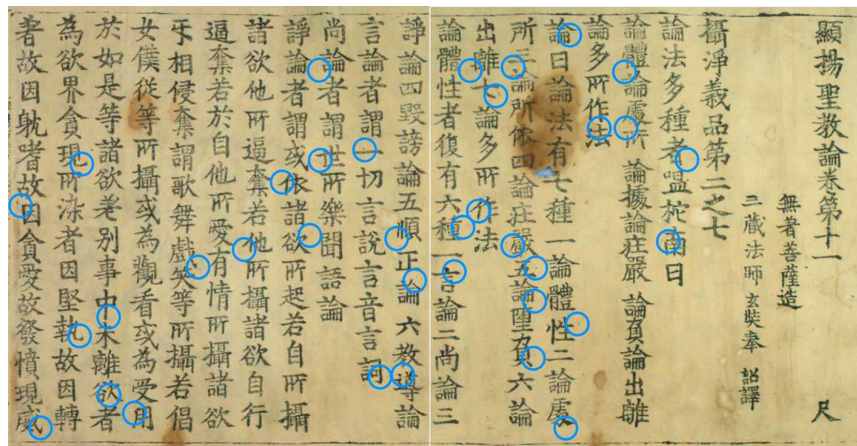
권제11은 그 가운데 척(尺)자의 함에 들어 있는 것이 전래된 것으로, 전 15장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8.6cm, 가로 1000.7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6cm, 가로 46.5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3cm, 22행~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22] 현양성교론 권제11 사진

이 초조본은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감색 표지의 끝에 표죽(裱竹)이 달려 있고, 그 중앙에 금(金)·담황(淡黃)·녹(綠) 3색의 권서(卷緒)가 매여 있으며, 겉에는 제첨(題簽)이 금으로 쓰여져 있다. 또 본문이 담긴 종이가 완전하여 표지·제첨·권서·지질·각자(刻字)·묵색(墨色) 등에서 초기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처음 새겨진 이 본은 11세기에 간행하여 인출된 것이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호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23] 현양성교론 권제11에 기입된 각필 예시

#### (1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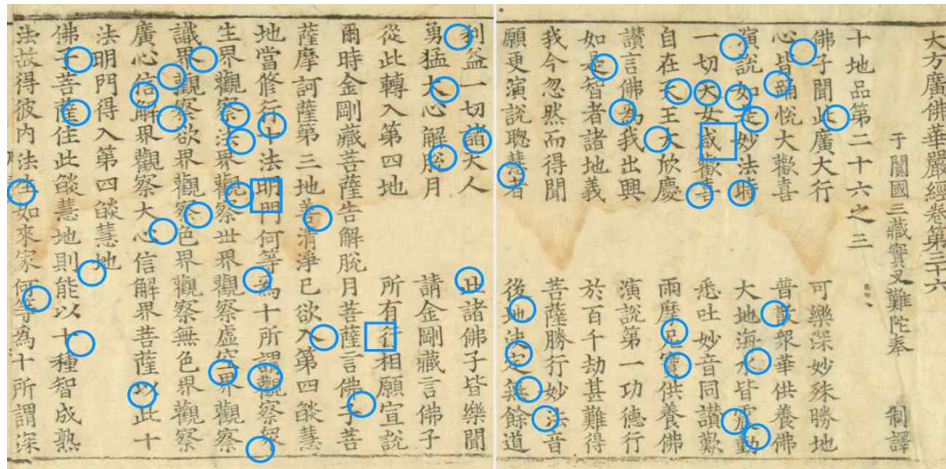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중 제 36권이다. 즉 39품(品) 가운데 십지품(十地品)의 일부에 속한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4cm, 가로 792.2cm로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6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4cm, 가로 46.6cm이며, 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24] 화엄경 주본 권제36 사진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어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장함(章函)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빼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25] 화엄경 주본 권제36에 기입된 각필 예시

## (1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제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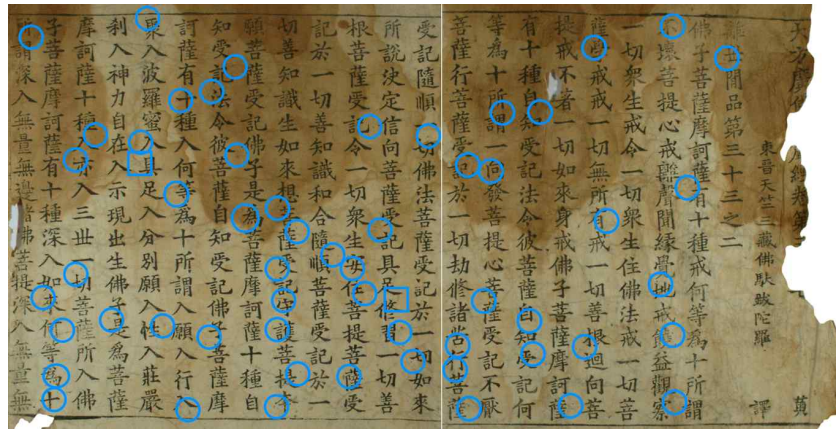
이 책은 동진의 안제(安帝, 418~420) 때에 불타발타라(佛駄跋陀羅 359~429)가 전체 34품을 60권으로 번역한 진본(晉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고려 초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권제37이다. 전체의 크기 29.5cm×768.3cm이고,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광고는 23.7cm, 24행 17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26] 화엄경 진본 권제37 사진

이 책의 판수제(板首題)는 없으며, 권말(卷末)에 발원문(發願文)이 있어 간행연대와 간기(刊行緣記)가 밝혀져 있다. 발원문은 ‘고려합천호장동정이필선(高麗陝川戶長同正李必先)상보사은하자삼유지원시제조판화엄경제삼십칠권(上報四恩下滋三有之願施財雕板花嚴經第三十七卷)시수창사년오월일기(時壽昌四年五月日記)’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해 이 책은 고려 숙종 3년(1098)에 합천(陝川) 이필선(李必先)의 시제(施財)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쌍점, 빼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27] 화엄경 진본 권제37에 기입된 각필 예시

## 2.2. 표점 자료

### (1)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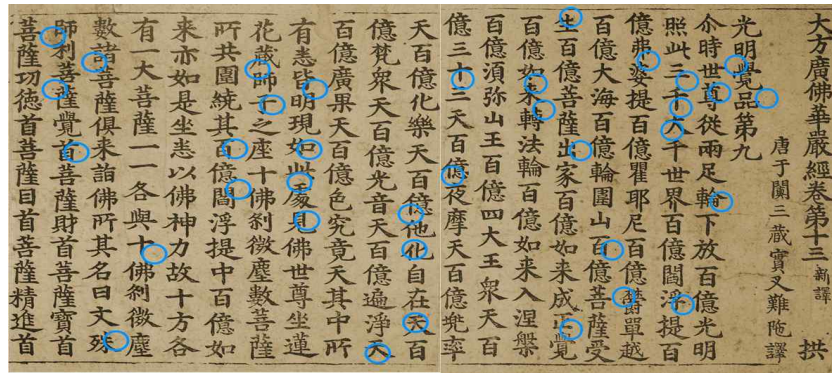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80권 가운데 제13권이 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111.2cm로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3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46.3cm이며, 23행 12자~15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28] 화엄경 주본 권제13 사진

인쇄상태나 지질 등 전체적인 품격으로 보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권29, 권74와 같이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는 단점, 빠침 등의 표점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29] 화엄경 주본 권제13에 기입된 표점 예시

## (2)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제6

이 책은 송나라의 법현(法賢)이 한역(漢譯)한 7권 중 권제6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9.8cm, 가로 1130.4cm로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3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9.8cm, 가로 47.1cm이며, 23행 13자~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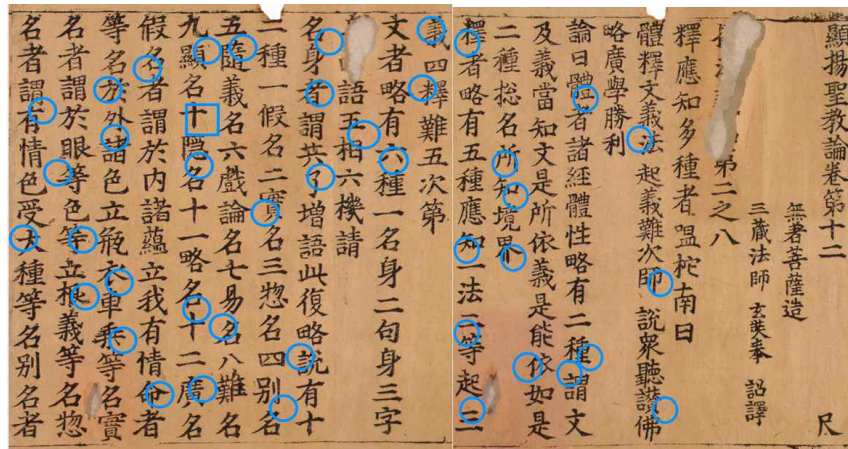
[그림 30]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제6 사진

이 경전은 권말(卷末)에 역경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려 있다. 강법화경사문(講法華經沙門) 신(臣) 도일(道一) 등 9명이 증의(證義)로 참여했고, 철문(綴文) 1명, 필수(筆授) 4명, 증범문(證梵文) 1명, 증범의(證梵義) 1명, 감역경(監譯經) 1명, 윤문자(潤文者)가 1명 씩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어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곡함(穀函)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빼침 등의 표점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33] 현양성교론 권제12에 기입된 표점 예시

## (4) (재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6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주본(周本) 『대방광불화엄경(華嚴經)』의 총 80권 중 권제6에 해당한다. 책의 크기는 세로 30.8cm, 가로 649.2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4.2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30.8cm, 가로 48.8cm이며, 24행 15자~17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34] 화엄경 주본 권제6 사진

간기가 없으나, 재조(再彫) 대장경(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교정(校正)을 맡았던 승(僧) 수기(守其)의 장서인(藏書印)이 「해동사문수기장서(海東沙門守其藏書)」라고 묵인(墨印)되어 있어 승려 수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권말(卷末)에 「담양군호장동정전순미역출모리왕원지성(潭陽郡戶長同正田洵美亦出母利往願之成)」이라고 쓴 지기(識記)가 있으므로 담양에 사는 전순미(田洵美)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찍어낸 것이다. 이 자료는 해인사 대장경본과 글씨체와 새김이 일치하는데, 해인사대장경에 포함된 주본 『화엄경』을 보고 다시 새겨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빼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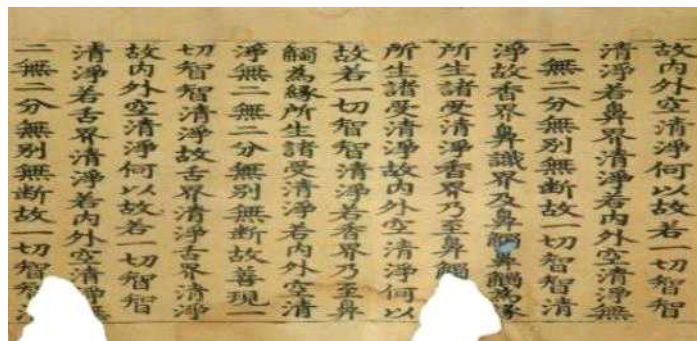


그림 35 화엄경 주본 권제6에 기입된 표점 예시

## 2.3. 혼합 자료

### (1)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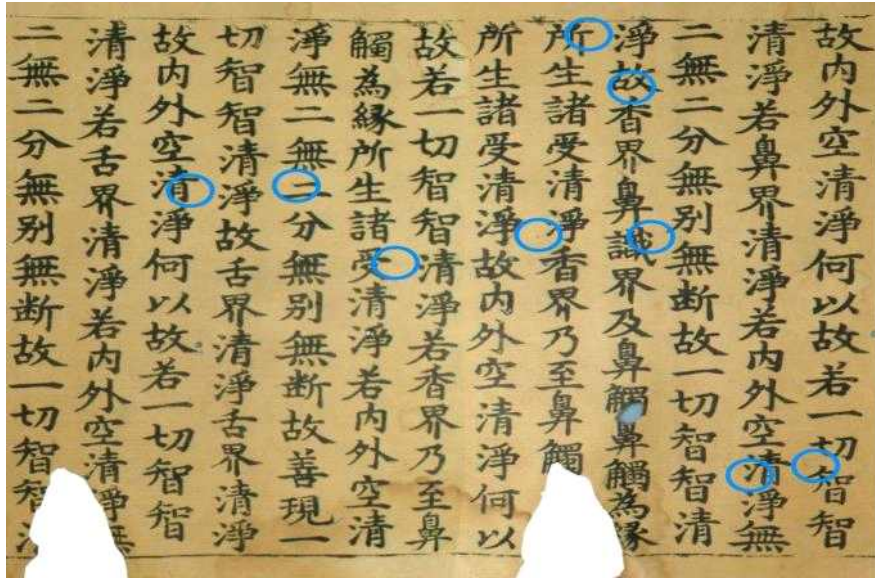
이 책은 당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제249권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9.1cm, 가로 25.24.5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6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9.1cm, 가로 49.5cm~51.0cm이며, 24행~25행 14자인데 전체 23장으로 이어진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3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249 사진

인쇄상태나 지질로 보아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 남아있는 초조본반야경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이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빼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37]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249에 기입된 각필 및 표점 예시

(2) 초조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

이 책은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총 16권 가운데 권제14이다. 전체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장(張)의 길이는 세로12.2cm, 가로 31.0cm이다. 상하단 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5cm~23.5cm이고, 23행 14자의 접장본으로 초조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다. 한 장은 모두 23행으로 1절(折)은 6행씩 접혀 있으며, 한 행은 14자씩 배자되어 있다.



[그림 38]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 사진

판식은 상하단변으로 권자본이나 접장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판수제(板首題)에는 약서명(略書名)과 권수표시(卷數) 및 장수(張數)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종이의 질, 새긴 기법, 먹색 등으로 보아 11세기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삐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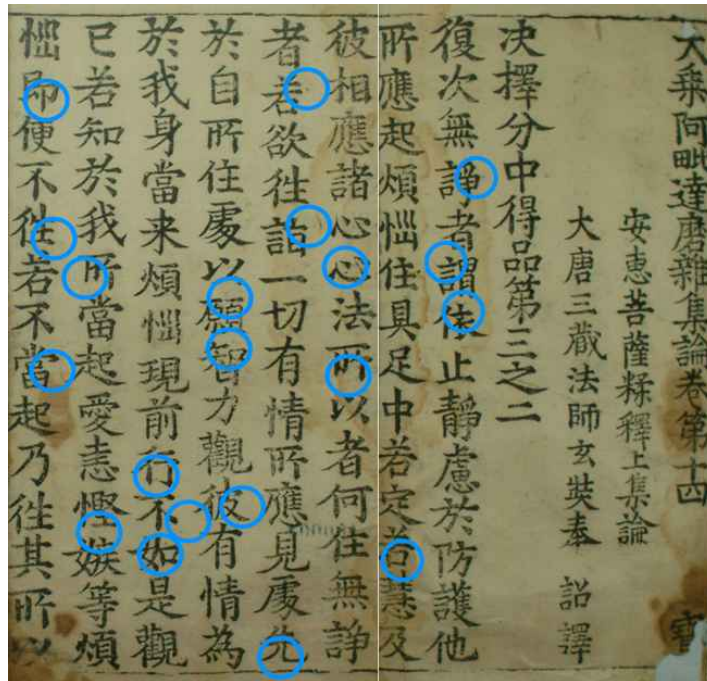


그림 39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에 기입된 표점 예시

(3)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1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80권 가운데 권제1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7cm, 가로 1223.5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7cm, 가로 23.5cm~47.5cm이며,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5cm, 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40] 화엄경 주본 권제1 사진

권두(卷頭)는 홍경(弘景) 등의 표전문(表箋文)부터 시작하여 신역팔십화엄경(新譯八十華嚴經)의 총목차(總目次)가 칠처구회순(七處九會順)으로 39품명(品名)과 80권차(卷次)가 수록되

고, 이어 천책금륜성신황제(天冊金輪聖神皇帝)의 서문(序文)에 이어서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이 시작되고 있으며, 권말(卷末)에는 「성역이년세차을해(699) 십월팔일역필」(「聖曆二年歲次乙亥(699) 十月八日譯畢」)에 이어 석범본자(釋梵本者)·역어자(譯語者)·필수자(筆受者)·증의자(證義者)의 명단(名單)이 열기(列記)되어 있다.

각자(刻字)는 정교하고, 글자의 묵색과 지질 등을 참고해 볼 때 이 책은 11세기 인출의 정각본(精刻本)이다.

이 자료에는 단점, 사선, 빼침 등의 각필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41] 화엄경 주본 권제1에 기입된 각필과 표점 예시

#### (4)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5

이 책은 당나라 현장역(玄奘譯)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00권 중 권제15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6cm, 가로 47.6cm이며,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22.0cm, 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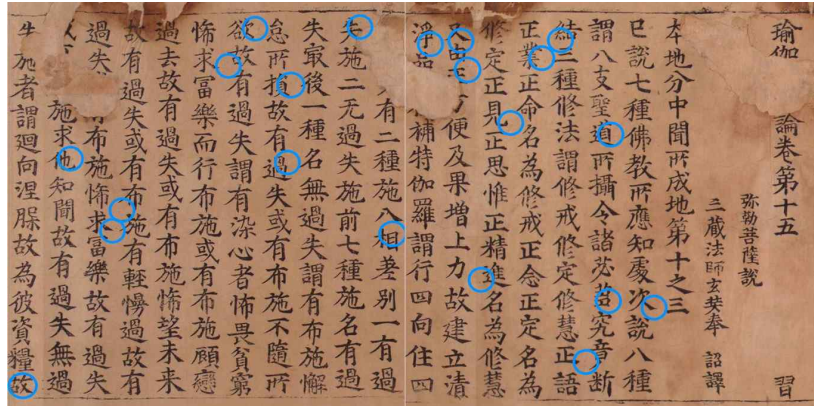
[그림 42] 유가사지론 권제15 사진

『유가사지론』은 인도의 미륵보살이 지은 글을 당나라의 현장(602~664)이 번역하여 천자문의 순서대로 100권을 수록한 것으로, 11세기에 간행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책

의 내용은 유가(瑜伽)를 행하는 자의 수행 단계를 자세히 서술하고, 유식학(唯識學)의 중요한 용어와 경전에 나오는 여러 용어를 풀이한 것이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찍어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습함(習函)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단점, 단선, 장선, 빼침, 호, 지시선 등의 각필과 표점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43] 유가사지론 권제15에 기입된 표점 예시

#### (5)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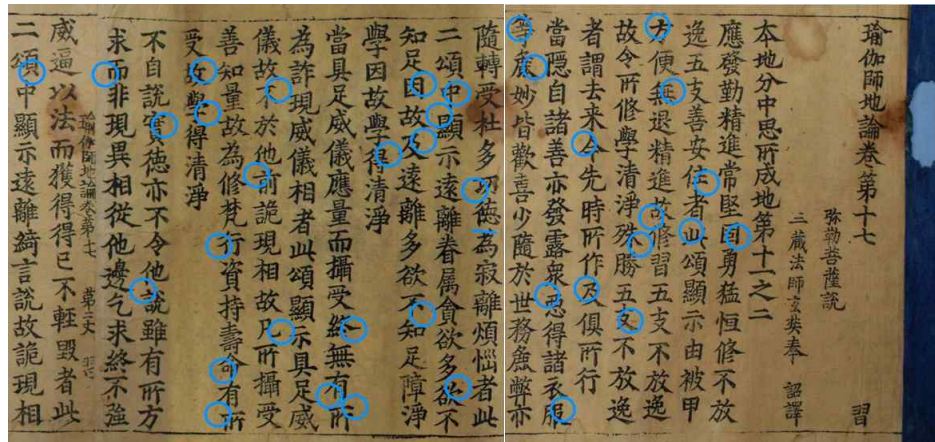
이 책은 당나라 현장역(玄奘譯)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00권 중 권제17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119.4cm이며,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 22.2cm이다. 한 장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45.0cm로 22행~23행 14자의 두루마리본이다.



[그림 44] 유가사지론 권제17 사진

감색(紺色)표지·지질(紙質)·각자(刻字)·묵색(墨色) 등에서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권 11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1세기에 각인(刻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송나라 태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인 ‘은(殷)’과 ‘경(敬)’자가 각각 결획(缺劃)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초조대장경 중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 자료에는 선, 점, 빼침, 체크, 호, 지시선 등의 각필과 표점이 기입되어 있으며, 구결(口訣)도 기입되어 있다.



[그림 45] 유가사지론 권제17에 기입된 각필 및 표점 예시

### 3. 표점 비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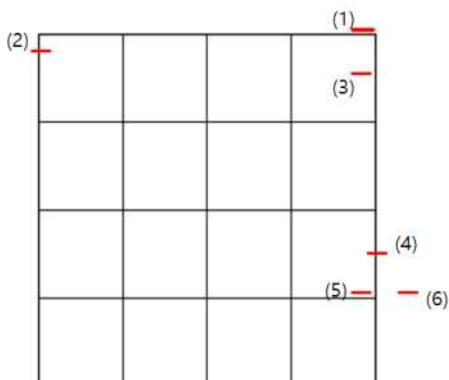
#### 3.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의 표점

이 책은 전체 27장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 선, 빼침, 호, 지시선 등의 각필과 표점이 기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은 단선과 사선, 그리고 장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선들은 다시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빼침의 경우는 시작점을 중심으로 가로와 세로, 그리고 직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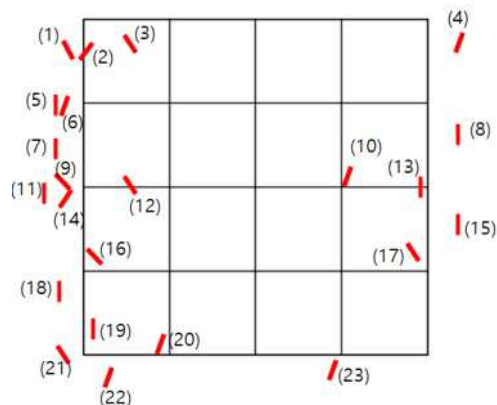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이들 각각의 표점도를 소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표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sup>7)</sup>

#### 1) 선

##### (1) 단선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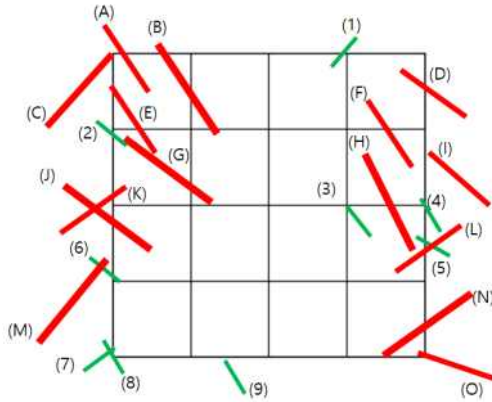


##### (2) 단선 세로 및 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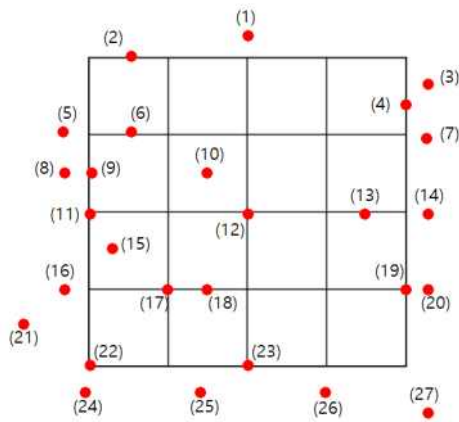


7) 유가사지론 권17의 해당 표점 자료 사진들은 구두 발표 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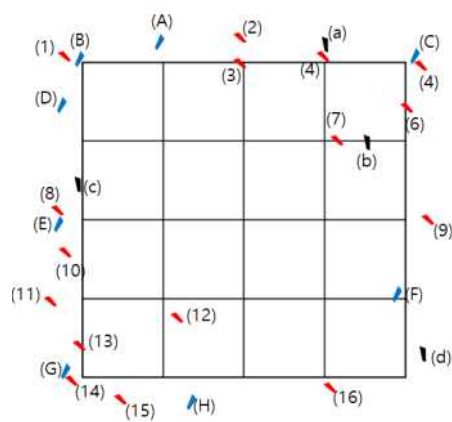
## (3) 장선 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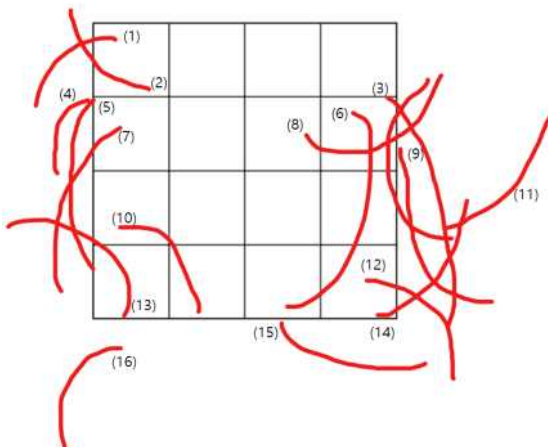
## 2) 단점



## 3) 빠침



## 4) 호



## 5) 지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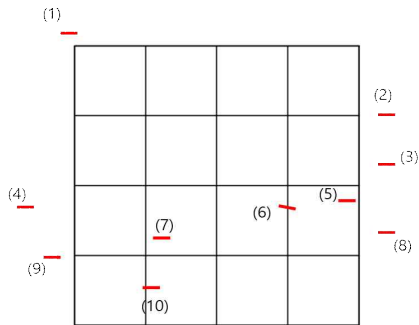
## 3.2.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의 표점

이 책은 전체 26장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 점, 빠침,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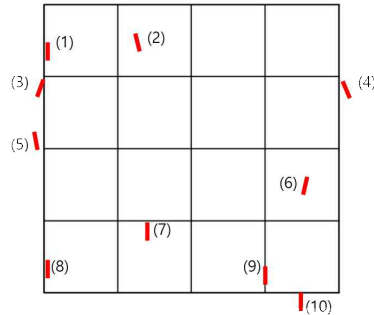
크, 호, 지시선 등의 표점과 구결( )이 기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은 단선과 사선, 그리고 장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선들은 다시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점은 단점과 쌍점으로 나눌 수 있고, 빼침의 경우는 시작점을 중심으로 가로와 세로, 그리고 직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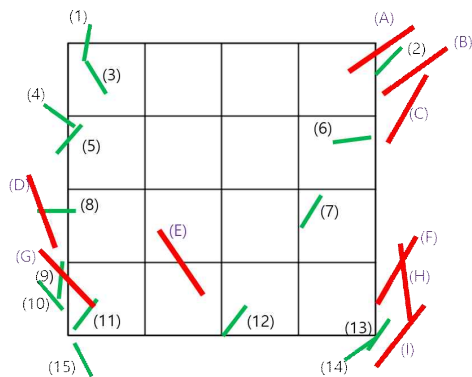
### (1) 단선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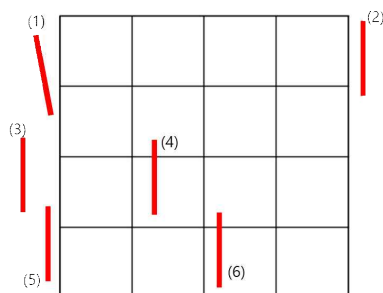
### (2) 단선 세로



### (3) 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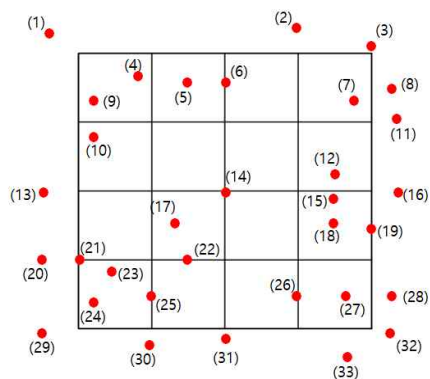


### (4) 장선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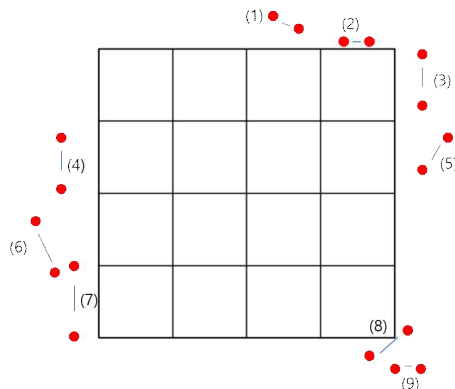


## 2)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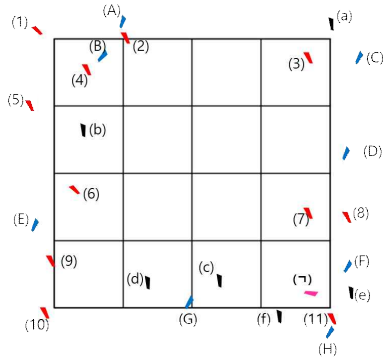
### (1)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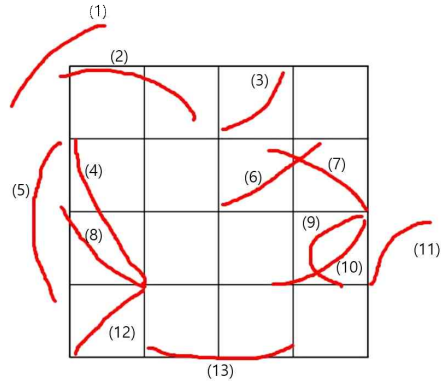
### (2) 쌍점



3) 빼침



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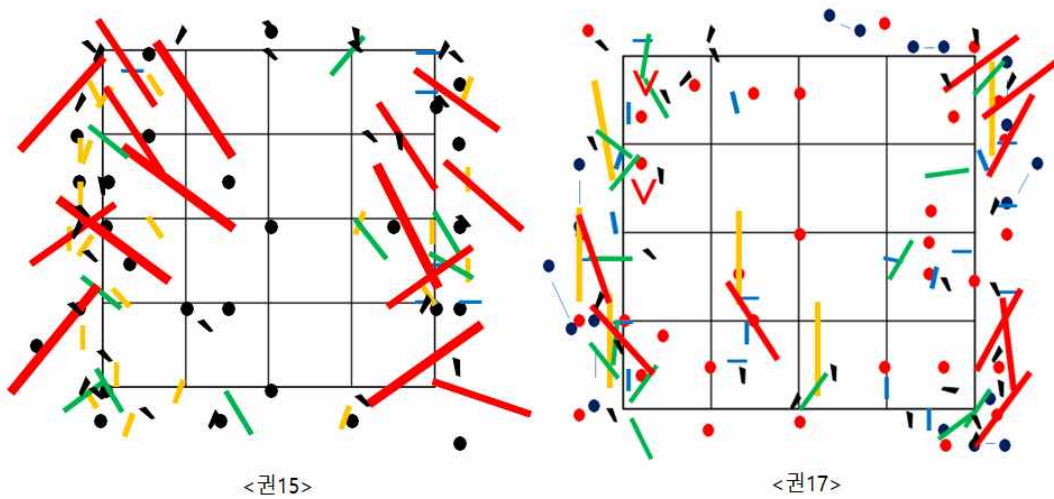
5)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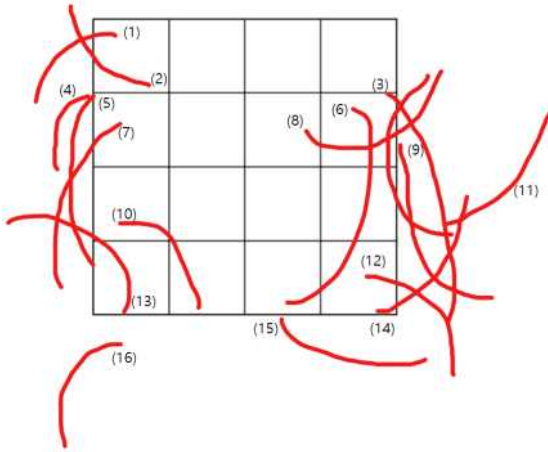


6) 지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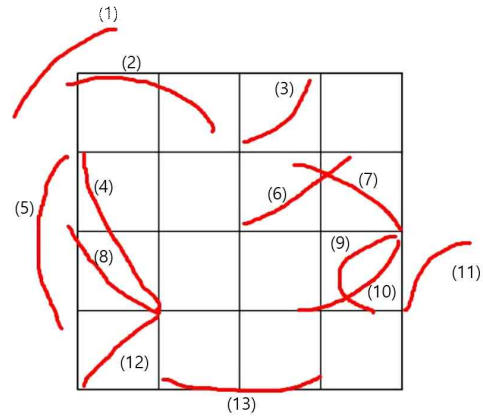


3.3. 권15와 권17의 전체(호 제외) 표점도 비교





[그림 47] 유가사지론 권15 호



[그림 48] 유가사지론 권17 호

#### 4. 결론

이 글은 각필 및 표점이 기입되어 있는 간행된 고려시대 불경 『대반야바라밀다경』 2권,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7권,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1권, 『대보적경』 1권, 『대승아비달마잡집론』 1권, 『불설최상근본대라극강불공삼매대교왕경』 1권, 『아비담비파사론』 2권, 『아비달마식신족론』 1권, 『유가사지론』 4권, 『현양성교론』 2권 등의 10종 22권을 소개한 것이다. 이들 불경 가운데 특히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와 권17을 대상으로 선, 점, 빼침, 체크, 호, 지시선 등의 표점 유형 분석하여 전체 표점도를 비교,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소개한 자료들은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문적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자료들이므로, 구결학회 차원의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main](http://www.heritage.go.kr/main))

윤희용하(2002),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신현승 역(2021), 『유가사지론 2』, 도서출판 묘광.



# 한자음의 음절 특성을 통해 본 『鷄林類事』 고려 방언 모음 체계

張俊翼\*

## 要 約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가 다르고 음절 대응이 정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鷄林類事』의 모음 표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鷄林類事』에 사용된 중국어의 음절 특징을 정리하고 고려 방언과의 음절 대응표를 작성해 중국어의 음절 제약이 모음 표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봤다.

모음 /ɪ/와 /ʌ/가 각각 중국어 모음 ‘i’와 ‘a’와 일관적으로 대응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비원순 모음 /ɔ/, /ɛ/, /ɐ/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모음 ‘ə’나 ‘ʌ’와 대응되게 되었다. 그러나 음절 제약으로 인해 ‘ə’나 ‘ʌ’와 대응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ɔ/는 ‘a’로 표기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ɛ/는 ‘i’로 표기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ɐ/는 ‘a’, ‘e’, ‘i’, ‘u’ 등으로 혼잡하게 대응됐다.

이를 통해 고려 방언 모음 /ɔ/, /ɛ/, /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ɐ/는 중앙 모음이기에 여러 모음과 대응이 가능했고, /ɔ/의 조음 위치는 /ʌ/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ɛ/의 조음 위치는 /ɪ/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던 것이다.

\*핵심어: 鷄林類事, 고려 방언, 음절 제약, 모음, 음가

## 1. 序論

주지하듯이 『鷄林類事』(1103)에는 중국인 손목이 고려어 어휘 350여 개의 음성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 담겨 있다. 외국인이 외국 문자로 한국어를 음역했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한국어의 고유 문자가 없었던 시대<sup>1)</sup>에 한국어 어휘의 음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鷄林類事』(1103)를 통해 고려 방언<sup>2)</sup> 모음 체계를 재구했으나 논의의 합의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표 1> 『鷄林類事』(1103) 고려방언 모음 체계 재구

|   | 李基文 1968, 1998 | 姜信沆 1980 | 김동소 1998 |
|---|----------------|----------|----------|
| ㅏ | a              | a        | a        |
| ㅑ | ä              | ə        | ä        |
| ㅓ | ɔ              | ʌ        | X        |
| ㅕ | ə              | i        | X        |
| ㅗ | u              | o        | u        |

\* 남경대학교(南京大學) 문학원(文學院) 박사 졸업

1)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계속 비교돼 나타나는 만큼 ‘국어’보다는 ‘한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李基文(1972)의 시대 구분법에 따르면 이 당시 한국어는 전기 중세 한국어에 속한다.

2) 시대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이 당시 한국어를 姜信沆(1980)의 용어대로 ‘고려 방언’으로 칭한다. 고려 시대에는 조선 시대와 달리 언어 중심지가 서울이 아닌 개성이었기 때문이다.

|   |   |   |   |
|---|---|---|---|
| ㅏ | ü | u | ü |
| ㅣ | i | i | i |

<표 1>에서 보듯이 /ㅏ/와 /ㅣ/의 재구음을 제외하고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각 학자들이 참조한 중국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고, ‘a’, ‘i’ 이외에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이 정연하게 대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이 서로 정연하게 대응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鷄林類事』에서 한국어를 표기한 중국어의 모음 체계가 어떠했는지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표 2> 중국어 모음 체계의 변화 (切韻에서 中原音韻까지)

| 시대 구분                         | 비원순 모음 |   |   |   |   |   |   |   |     | 원순 모음   |   |   |
|-------------------------------|--------|---|---|---|---|---|---|---|-----|---------|---|---|
| 『切韻』<br>601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ㅝ | ㅟ | ㅛ   | ㅓ<br>魚江 | ㅖ | ㅜ |
| 『慧琳音義』<br>807                 | ㅏ      | ㅑ |   | ㅕ |   | ㅛ | ㅝ | ㅛ |     | ㅓ<br>魚江 | ㅖ | ㅜ |
| 『聲音唱和圖』<br>『切韻指掌圖』<br>11세기 후반 | ㅑ      |   |   | ㅕ |   |   | ㅝ | ㅛ | ㅓ/ㅕ | ㅜ       |   |   |
| 『中原音韻』<br>1324                | ㅑ      |   |   | ㅕ |   |   | ㅝ | ㅛ | ㅓ/ㅕ | ㅓ<br>歌桓 | ㅜ |   |

원래 중국어 중고음<sup>3)</sup>의 모음 체계는 매우 복잡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어의 모음 체계는 점차 단순화한다.

<표 2>에서 『切韻』(601)의 모음 체계는 潘悟雲(2000)을 따른 것이다. 『慧琳音義』(807)<sup>4)</sup>의 모음 체계는 『慧琳音義』(807)의 합운을 고려해 潘悟雲(2000)의 모음 체계를 재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慧琳音義』(807)에서는 『切韻』(601)의 1, 2, 3등 重韻(a와 æ, a와 일부 ə<sup>5)</sup>, ɐ와 ɛ, i와 i)이 모두 합류했고 일부 3등(ɛ)은 4등(e)과도 합류하는 추세<sup>6)</sup>를 보인다.

또한 邵雄(1011-1077)의 『聲音唱和圖』의 모음 체계는 기존 중고음 기반의 운서나 운도와 매우 달라 주목을 끄는데 『聲音唱和圖』의 天聲圖를 보면 기존 운서의 1, 2등 및 후설 원순 모음의 전반적인 합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果섭과 假섭이 합류하고(a와 a), 宕섭과 江섭도 합류하고, (a와 ɔ) 通섭과(o와 u), 遇섭(ɔ와 o<sup>7)</sup>)이 합류했다.<sup>8)</sup>

3) 중국어의 시기 구분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으로 구분한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따위로 구분함으로 혼동할 염려가 없다. 앞으로 상고음, 중고음, 근대음은 곧 중고음을 가리킨다.

4) 慧琳의 『一切經音義』(807)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玄應의 『一切經音義』(649)와 구분하기 위해 『慧琳音義』(807)로 약칭한다.

5) 覃운과 哈운이 각각 談운(\*am)과 泰운(\*ai)에 합류한 것을 말한다. 覃운과 哈운의 핵모음에 대해 潘悟雲(2000)과 달리 鄭榮芬(1982)은 ‘ɐ’, 鄭張尙芳(2003)은 ‘ʌ’로 재구했다.

6) 다만 3등 重紐 A류(e)만 4등(e)과 합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黃澤伯(1993)은 일부 운에서 3, 4등이 전부 합류했다고 보지만 趙翠陽(2009)은 철저하게 3등 重紐 A류(e)만 4등(e)과 합류했다고 본다.

7) 초기 Karlgren(1926)의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는 魚운의 핵모음을 ‘o’, 虞운의 핵모음을 ‘u’로 재구했다. 張玉來(2009)도 이른 시기의 韻圖의 內, 外轉의 구분법으로 판단한다면 Karlgren(1926)의 재구음이 맞다고 본다. 다만 중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李榮(1956) 이후 魚운의 핵모음을 ‘ɔ’, 虞운의 핵모음을 ‘o’로 재구하고 있다.

8) 天聲圖 六聲을 보면 關翁을 통해 通섭과 遇섭을 나누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關에 속하는 것은 중고음

그리고 『聲音唱和圖』에서는 중고음 止점음 齒音자를 『中原音韻』(1324)에서처럼 支思운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시대 사마광(1019-1086)의 『切韻指掌圖』를 보면 止점음 齒音자가 3등이나 4등(i)이 아닌 1등에 배치되어 있다. 止점음 齒音자의 변이음 ‘ɿ/ʌ’<sup>9)</sup>가 이 시기에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

『中原音韻』(1324)의 모음 체계는 寧繼福(1985)을 따른 것이다. 주목할 점은 歌戈운과(a > ɔ 혹은 o<sup>10)</sup>) 桓歡운(\*ɔn)이 독립돼 있다는 것이다.<sup>11)</sup>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鷄林類事』(1103)의 모음 표기를 연구할 때 중요하게 참조해야할 자료는 『中原音韻』(1324)이 아니라 『聲音唱和圖』와 『切韻指掌圖』(11세기 후반)다.

(1) 李基文(1968:239-241)

一曰河屯(호든), 胡桃曰渴來(ㄴ래), 袴曰珂背(ㄴ뻬), 剪刀曰割子蓋(ㄱ개), 馬曰末(몰)

무엇보다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이들 例의 ‘河, 渴, 珂, 割, 末’ 등이 모두 中原音韻에서 歌戈韻에 속하는 漢字들인 사실이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再構된다. 河 xo, 渴割珂 ko, 末 mo.

.....

그러나 類事의 大體的 傾向으로 /ɔ/를 中國語의 o 또는 a 로 表記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十二世紀에 있어서 /ɔ/는 o 음과 가까운 位置에서 난 다소 열린 母音([ɔ]정도)이었음을 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李基文(1968)은 위와 같은 해석은 『中原音韻』(1324)을 활용해 『鷄林類事』(1103) 고려 방언 /·/의 음가를 재구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표 3> 『鷄林類事』 고려 방언 모음 /·/의 일부 사음

|   |                                                                  |
|---|------------------------------------------------------------------|
| 歌 | 가: 柯[kə]/軻[kʰə], 다: 大[tə] <sup>12)</sup> , 바: 婆[pʰə], 아: 阿[a]    |
| 麻 | 가: 家/加[kə], 마: 麻/馬[mə], 바: 把[pə], 야: 鴉/鴉[a], 자: 查[tʃə], 하: 夏[xə] |

<표 3>에서 보듯 『鷄林類事』(1103)에서 개음절 환경에서의 고려 방언 모음 /·/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중고음 歌운 및 麻2등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모두 활용한다. 만약 중고음 歌운이 이미 『中原音韻』(1324)에서처럼 歌戈운에 편입돼 핵모음이 ‘a’에서 ‘ɔ’나 ‘o’ 따위로 이미 바뀌었다면 모음 /·/를 표기하는데 부적합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고음 麻2등운 喉牙音의 경우 『中原音韻』(1324)에서는 개음 ‘i’가 덧난다. 예를 들어 <표 3>의 ‘家’는 ‘kia’가 되고, ‘鴉’는 ‘ia’, ‘夏’는 ‘xia’가 되는데 각각 『鷄林類事』(1103)에서는 고려 방언 ‘가’, ‘아’, ‘하’를 사음하는데 활용됐다. 이는 『鷄林類事』를 편찬한 중국인 손목이 쓰는 중국어의 음운 체계가 『中原音韻』(1324)의 음운 체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려 방언 /·/를 일부 『中原音韻』(1324) 歌戈운(ɔ 또는 o)자로 표기했다고 해서 고려

에서 모두 개음 ‘i’가 없고, 翕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개음 ‘i’가 있는 것을 보면 이는 周祖謨(1966)가 재구한 것처럼 關翕을 통해 합구호(u)와 찰구호(y)를 나눈 것으로 판단된다.

9) 중국 학계에서 국제 음성 기호 ‘i’나 ‘ɿ’를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 모음 /—/와 혼동될 여지가 있어서 본고에서는 ‘ɿ/ʌ’를 쓴다.

10) 寧繼福(1985)과 달리 唐作藩(2002) 등의 학자는 ‘o’로 재구한다.

11) 다만 끝까지 독립성을 유지했던 歌戈운(\*ɔ/o)과 달리 桓歡운(\*ɔn)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韻略匯通』(1642)에서 寒山운 합구호운(\*uan)과 합류하게 된다.

12) 다만 『中原音韻』(1324)에서 ‘大’는 다음자다. 운서에 ‘tɔ’(歌戈운)와 ‘ta’(家麻운)가 모두 있고, 현대 중국어 보통화에서는 도리어 ‘ta’로 읽힌다.

방언 모음 /·/의 음가가 /o/ 혹은 /ɔ/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聲音唱和圖』의 모음 체계가 고려 방언의 모음 체계를 표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데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a’, ‘ɛ’, ‘ə’, ‘i’, ‘ɿ/ʌ’, ‘u’만으로는 고려 방언의 모음 체계를 전부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원순 모음 /ɿ/, /ʌ/가 있는데 『聲音唱和圖』에서 보면 이 당시 중국어에는 한 종류의 원순 모음밖에 없었다. 따라서 /ɿ/, /ʌ/의 실질적 음가 차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려 방언 모음 /ɿ/와 /ʌ/가 각각 중국어 모음 ‘i’, ‘a’와 대응된다면 나머지 모음 /ɨ/, /ɯ/, /·/의 차이를 구분해줄 중국어 모음은 ‘ɛ’, ‘ə’, ‘ɿ/ʌ’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고려 방언 모음 /ɨ/, /ɯ/, /·/와 중국어 모음 ‘ɛ’, ‘ə’, ‘ɿ/ʌ’가 일대일 대응이 어렵다면 자연히 모음 표기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李基文(1968: 239)은 『鷄林類事』(1103)의 모음 표기가 조잡하다고 했는데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표 4> 『鷄林類事』 고려 방언 /·/의 사음

|     |                                                                                                                                                                                                                                         |
|-----|-----------------------------------------------------------------------------------------------------------------------------------------------------------------------------------------------------------------------------------------|
| a   | ㄹ: 珂[kal], ㄹ(ㄷ): 渴[kʰat], ㄹ: 割[kat] <sup>13)</sup> 子, ㄴ/ㄹ: 捺[nat], ㄷ: 帶[tai],<br>ㄷ: 姐[tat], ㄷ: 達[ʔat], ㄷ: 答[tap], ㄴ: 纜[lam], ㅁ: 馬[ma],<br>ㅁ: 末[mat], ㅂ: 敗/擺[pai], ㅅ: 菩薩[sat] ㅅ: 慘[tsʰam], ㅎ: 河[xa],<br>ㅎ: 海[xai], ㅎ: 漢[xan], ㅎ: 轄[xat]希 |
| ə   | ㄷ: 則[tsək], ㄷ: 屯[tʰu(ə)n], ㅍ: 奔[pən], ㅅ: 寸[tsʰuən], ㅎ: 勳訓[xiuan],<br>ㅂ(ㄷ): 李[puət], ㅅ: 戍[xiuaet]                                                                                                                                        |
| ɿ/ʌ | ㅅ: 子[tsɿ], ㅅ: 此[tsʰɿ], ㅅ: 事[ʂɿ] ㅅ: 兒[ɿ/ʌ]/慈[tsʰɿ]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음 표기가 조잡한 것을 넘어서 모음 표기 간 유사성조차 찾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鷄林類事』(1103)에서는 고려 방언 모음 /·/를 중국어 모음 ‘a’, ‘ə’, ‘ɿ/ʌ’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鷄林類事』(1103) 표기 모음 ‘a’, ‘ə’, ‘ɿ/ʌ’ 사이에는 유사성을 찾기 힘들어 고려 방언 /·/의 음가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는 현대 영어 ‘ə’와 완전히 일치하는 모음이 없어서 현대 한국인은 ‘ə’를 /ɨ/로 인지하기도 하고 (‘Coffee’[kɔ : fi]의 한국어 외래어는 ‘커피’다.), /ɿ/로 인지하기도 한다. (‘Audio’[ɔ : diu]의 한국어 외래어는 ‘오디오’다.) 다만 /ɨ/와 /ɿ/는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ɨ/와 /ɿ/를 활용해 동일 모음을 인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현대 영어 모음 ‘ə’를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鷄林類事』(1103) 고려 방언 /·/의 표기 모음 ‘a’, ‘ə’, ‘ɿ/ʌ’ 간에는 어떠한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아 고려 방언 /·/의 음가를 쉽사리 추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姜信沆(1980)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음 /·/를 ‘a’로 사음한 비율이 압도적인 만큼 /·/의 음가는 ‘a’보다는 開口度가 조금 작았던 모음 ‘ɿ’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김동소(1998)는 적은 수의 예외를 무시했고 때때로 고려 방언 모음 /ʌ/와 /·/가 동일한 한자로 표기됐음을 근거로 고려 방언 모음 체계에서 /ʌ/와 /·/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鷄林類事』(1103) 고려 방언에서 /·/를 ‘ə’ 및 ‘ɿ/ʌ’로 표기하는 예가 극히 드물었던 것에는 중국어 음절 제약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중국어 모음 ‘ɿ/ʌ’는 오늘날까지도 개음절 치음 뒤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환경에서의 /·/만 ‘ɿ/ʌ’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鷄林類事』에서는 고려 방언 ‘자’를 ‘査’[tsa] 혹은 ‘作’[\*tsak >tsa]으로 표음한 반면에 ‘즈’의 경우 ‘子’[tsɿ]로 표기했다. 손목은 이 두 모음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중국어 모음

13) 『鷄林類事』(1103)의 음절 표기를 보면 『聲音唱和圖』의 天聲圖와 달리 입성을 표기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손목의 중국어는 일부 『聲音唱和圖』보다도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ㄱ/ㄴ’가 개음절 처음 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면 고려 방언 /·/를 ‘ㄱ/ㄴ’로 훨씬 더 많이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개음절 처음 뒤에 나타나는 고려 방언 /·/의 경우 『鷄林類事』에서 ‘a’로 표기한 예<sup>14)</sup>보다 ‘ㄱ/ㄴ’로 표기한 예가 훨씬 많다.

주지하듯이 한자는 표의문자가기 때문에 외국어 사음에 유리한 문자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Coffee’[kɔ : fi]의 현대 중국어 보통화 외래어는 ‘咖啡’[kʰafei]다. 중국어 보통화에도 현대 영어 ‘ɔ’와 완전히 일치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a’로 ‘ɔ’를 표기했다. 그리고 중국어 보통화 음운 체계에서 ‘f’와 ‘fi’는 기본 자모음이지만 신기하게도 ‘fi’라는 음절을 표기할 한자는 전무하다. 역사적으로 ‘\*fi>fei’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보통화에는 ‘fi’라는 음절이 없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啡’[fei]로 ‘fi’를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한자는 표의문자가기 때문에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한계는 곧 표기 능력의 한계를 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鷄林類事』(1103) 시대의 손목이 쓰는 중국어의 음절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鷄林類事』(1103) 고려 방언 모음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분석하면 고려 방언 모음 체계가 어떠했는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鷄林類事』(1103) 음절 대응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鷄林類事』(1103) 시기 손목이 쓰는 중국어는 『中原音韻』(1324)보다는 『聲音唱和圖』(11세기 후반)와 가깝다. 다만 『鷄林類事』의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聲音唱和圖』의 음운 체계와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이는 운서에서 규정된 대로 한자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는 구어를 활용해 고려 방언을 표기했기 때문이다. 운서의 규범음과 개인이 실제 사용하는 구어음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聲音唱和圖』(11세기 후반)의 음절 특징을 기본으로 『鷄林類事』와의 음절 대응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먼저 손목이 사용했던 중국어의 음절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괄호로 표기된 한자는 치음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는 知조 성모자와 잘 활용되지 않는 僻字다. 중국어로 표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음절을 다 검토하기 위해 『廣韻』에 수록된 僻字의 음운 변화까지도 예측해 대응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僻字가 수록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僻字를 활용해 고려 방언을 표기했을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

수록자 왼쪽에 별표가 있는 것은 『鷄林類事』 저자가 고려 방언 표기를 위해 활용한 한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咱’의 경우 『鷄林類事』에서 ‘七加反’이라는 부가 설명을 달았다. ‘七’은 성모 ‘tsʰ’를 ‘加’는 운모 ‘a’를 말한다. 이 경우 ‘咱’의 음성보다는 ‘七加反’이라는 부가 설명에 더 집중해 고려 방언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봐야 하는 것이다.

<표 5> 『鷄林類事』(1103) 음절 대응표

| 성<br>운 | ㄱ<br>ㄷ | p<br>ㅍ | pʰ<br>ㅑ | m<br>ㅁ | f<br>ㅍ | ㅁ/v | t/t<br>ㄷ | tʰ/tʰ<br>ㅌ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ʰ/tʰ<br>ㅊ | s/s<br>ㅅ | z<br>ㅈ | k<br>ㄱ | kʰ<br>ㅋ | x<br>ㅎ  | Ø<br>ㅇ  |
|--------|--------|--------|---------|--------|--------|-----|----------|------------|--------|--------|------------|------------|----------|--------|--------|---------|---------|---------|
| a      | 把<br>바 | 婆<br>바 | 馬<br>마  |        |        |     | 大打<br>다  | 他<br>타     | 那<br>노 | 羅<br>라 | 查<br>차     | *咱<br>차    | 娑沙<br>사  |        | 家<br>가 | 軻珂<br>가 | 夏何<br>하 | 阿丫<br>아 |

14) ‘男子曰沙喃’. ‘男子’의 후기 중세 한국어는 ‘싸히’, 혹은 ‘스니히/회’다. 따라서 ‘沙喃’이 고려 방언 ‘스냥’ 따위를 표기한 것이라면 ‘스’와 ‘沙’[sa]가 대응된 것으로 개음절 처음 뒤의 모음 /·/를 ‘a’로 표기한 것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ai   | 敗<br>배  | 排      | 買      |        |   | 帶<br>대   | 泰      | 迺<br>내 | 來<br>래 | 載<br>재 | 采<br>채 | 賡<br>새 |     | 蓋<br>개 | 慨<br>개 | 海<br>해 | 哀      |
| aŋ   | 幫<br>방  | 傍      | 忙      | 方      | 亡 | 當<br>당   | 湯<br>탕 | 囊<br>낭 | 郎<br>랑 | 葬<br>장 | 倉<br>창 | 喪<br>상 |     | 江<br>강 | 康<br>강 | 航<br>항 | 昂      |
| am   | *監<br>밤 |        |        | 凡      |   | 耽<br>담   | 貪<br>탐 | 南<br>남 | 纜<br>람 | 暫<br>잠 | 慘<br>참 | 三<br>삼 |     | 甘<br>감 | 坎<br>감 | 合<br>합 | 暗<br>암 |
| an   | 板<br>반  | 盤<br>반 | 萬<br>만 | 反      | 萬 | 丹<br>단   | 彈<br>단 | 難<br>난 | 蘭<br>란 | 棧<br>잔 | 餐<br>찬 | 刪<br>산 |     | 干<br>간 | 看<br>관 | 漢<br>한 | 安<br>안 |
| ak   | 博       | (膊)    | 莫      | 縛      |   | 鐸<br>닥   | 託<br>탁 | 諾      | 落      | 作<br>자 | 錯<br>작 | 朔      |     | 角<br>각 | 恪      | 鶴<br>학 | 惡      |
| ap   |         |        |        | 法      |   | 答<br>답   | 塔<br>탑 | 納      | 拉      | 雜      | 插      | (雲)    |     | 甲      | 恰      | 合      | 鴨      |
| at   | 八       | 潑<br>발 | 抹<br>말 | 發<br>발 | 襪 | 姐<br>달   | 脫<br>달 | 捺<br>날 | 刺      | 札      | 察      | 薩<br>살 |     | 割<br>갈 | 渴<br>갈 | 轄<br>학 | 闕      |
| au   | 寶       | 袍<br>포 | 毛<br>모 |        |   | 刀        | 討      | 腦      | 勞      | 早      | 草      | 騷      |     | 高      | 考      | 好<br>호 | 傲      |
| ua   | 波       | 破      | 摩      |        |   | 惰        | 妥      | (掇)    | 螺      | 坐      | (遼)    | 蓑      |     | 果<br>과 | 科      | 火      | 臥      |
| uai  |         |        |        |        |   |          |        |        |        |        | (揣)    | 衰      |     | 乖      | 快      | 懷      | 外      |
| uaŋ  |         |        |        |        |   | (撞)      | (幢)    |        |        | 莊      | 床<br>상 | 雙      |     | 光      | 匡      | 黃<br>황 | 王      |
| uan  |         |        |        |        |   | 端        | 湍      | 暖      | 亂      | 鑽      | 纂      | 酸      |     | 官      | 寬      | 歡      | 玩      |
| uak  |         |        |        |        |   |          |        |        |        |        |        |        |     | 郭      | 廓      | 穫      | (獲)    |
| uat  |         |        |        |        |   | (掇)      | 脫      | (納)    | (捋)    | (攔)    | 撮      | 刷      |     | 括      | 闊      | 活<br>활 | 幹      |
| ia   |         |        |        |        |   |          |        |        |        | 借      | 車<br>차 | 蛇<br>사 | 惹   | 迦      | 茄      |        | 耶<br>야 |
| iaŋ  |         |        |        |        |   | (張)      | (暢)    | 娘      | 良      | 將      | 槍      | 相      | 讓   | 姜      | 強      | 香      | 羊<br>양 |
| iak  |         |        |        |        |   | (着)      | (遑)    | (道)    | 略      | 爵      | 鵲      | 削      | 弱   | 脚      | 却      | 諺      | 藥      |
| iau  | 表       | 票      | 苗      |        |   | (朝)<br>료 | 挑      | 尿      | 料      | 焦      | (瞧)    | 簫      | 饒   | 驕      | 橋      | 曉      | 腰<br>요 |
| iua  |         |        |        |        |   |          |        |        |        |        |        |        |     |        | (駝)    | 靴      | (肥)    |
| iei  | 閉       | 批      | 袂      |        |   | 底<br>더   | 涕<br>티 | 泥<br>니 | 禮      | 祭      | 妻      | 西<br>서 |     | 計      | 溪<br>계 | 兮      | 藝      |
| iem  | 眨       |        |        |        |   | 點        | 添      | 念      | 廉      | 占<br>점 | 籤      | 織      | 染   | 檢      | 謙      | 嫌      | 鹽<br>염 |
| iɛn  | 鞭<br>편  | 片      | 眠      |        |   | 典        | 田<br>던 | 年<br>년 | 蓮      | 箋      | 遷<br>천 | 先      |     | 建      | 牽      | 獻      | 言      |
| iɛp  |         |        |        |        |   | 櫟<br>립   | 帖      | (聶)    | 獵      | 接      | 妾      | 攝      | (囁) | 頰      | 怯      | 協      | 葉      |
| iɛt  | 別       | 瞥      | 蔑      |        |   | (室)      | 鐵      | 涅      | 列      | 折<br>저 | 切      | 屑      |     | 結      | (挈)    | 歇      | 噎<br>열 |
| iuɛn |         |        |        |        |   | (轉)      | (傳)    |        | 戀      | 專      | 泉<br>천 | 宣      | 軟   | 捲<br>건 | 勸      | 玄      | 元      |
| iuɛt |         |        |        |        |   | (綴)      | (敝)    | (呐)    | 劣      | 絕      |        | 雪      | 熱   | 厥      | 闕      | 血      | 月      |
| əŋ   | 崩       | 朋      | 盟      |        |   | 登        | 騰      | 能      | 冷      | 爭      | 層      | 生<br>싱 |     | 庚      | 坑      | 亨      | 鶯      |
| əm   |         |        |        |        |   |          |        |        |        | (簪)    | (識)    | (森)    |     |        |        |        |        |
| ən   | 本<br>본  | 奔<br>본 | 盆<br>문 | 分      | 文 |          |        |        |        | (臻)    | (榛)    | (莘)    |     | 根<br>근 | 懇      | 很      | 恩      |
| ək   | 北<br>북  | 魄      | 墨<br>묵 |        |   | 德        | 慝      | (態)    | 勒<br>록 | 則<br>작 | 冊      | 索      |     | 格      | 客      | 黑<br>흑 | 厄      |
| əp   |         |        |        |        |   |          |        |        |        | (戢)    | (埒)    | (澁)    |     |        |        |        |        |
| ət   | 李<br>불  | (吟)    | 沒<br>문 | 弗      | 物 |          |        |        |        | (櫛)    | (辭)    | (瑟)    |     |        |        | (黻)    |        |
| əu   |         | 剖      | 某      | 否      |   | 斗        | 頭<br>두 | (孺)    | 樓      | 走      | 愁      | 搜      |     | 構      | 口      | 侯      | 偶      |

|      |     |      |     |     |   |     |     |      |      |      |     |                |     |     |      |      |      |
|------|-----|------|-----|-----|---|-----|-----|------|------|------|-----|----------------|-----|-----|------|------|------|
| u    | 補   | 鋪보   | 母모  | 夫   | 無 | 都도  | 途土두 | 奴    | 盧魯로  | 祖주   | 醋   | 蘇酥소수           |     | 故고  | 苦    | 胡호   | 烏오우  |
| ui   | 背되  | 配    | 每미  | 廢   |   | 對   | 退   | 餒누   | 累    | 捶背췌췌 | 催   | 歲水쇠수           | 芮   | 鬼괴  | 愧귀   | 回    | 爲    |
| uŋ   | (琫) | 蓬    | 蒙   | 風   |   | 東동  | 通통  | 農    | 弄    | 總    | 聰   | 送              |     | 公   | 空    | 紅홍   | 翁    |
| uəŋ  |     |      |     |     |   |     |     |      |      |      |     |                |     | 鑛   | (廁)  | 橫    |      |
| uən  |     |      |     |     |   | 頓든  | 屯튼  | 嫩눈   | 論런   | 尊    | 寸촌  | 孫손             |     | 昆   | 坤    | 昏    | 溫온   |
| uk   | 濮   | 撲    | 木모  | 福福복 |   | 獨   | 禿   | (僂)  | 鹿록   | 族    | 簇   | 速              |     | 谷   | 哭    | 斛    | 屋    |
| uək  |     |      |     |     |   |     |     |      |      |      |     |                |     | 國   |      | 惑    |      |
| uət  |     |      |     |     |   | 突돌  | (突) | 訥    | (碑)  | 卒    | (猝) | (宰)손           |     | 骨곳글 | (窟)  | 忽    | (兀)  |
| iu   |     |      |     |     |   | (著) | (除) | 女    | 慮    | 主住주  | 處   | 序              | 如   | 具기  | 區구   | 虛    | 於어   |
| iəu  | (彪) |      | 謬   |     |   | 丟   | (抽) | 紐    | 流    | 酒    | 秋췌  | 繡슈             | 柔   | 九   | 丘    | 休    | 有    |
| iuŋ  |     |      |     |     |   | (中) | (蟲) | 濃    | 隆    | 衆    | 崇   | 松              | 戎   | 恭   | 穹    | 凶    | 雍    |
| iuk  |     |      |     |     |   | (竹) | (蓄) |      | 六    | 粥    | 蹴   | 叔              | 肉   | 菊   | 曲    | 旭    | 玉    |
| iuəŋ |     |      |     |     |   |     |     |      |      |      |     |                |     | 璟   | 傾    | 兄    | 永    |
| iuən |     |      |     |     |   |     | (椿) |      | 倫    | 俊    | 春춘  | 舜순             | 潤   | 軍군  | 群    | 勳훈   | 允    |
| iuək |     |      |     |     |   |     |     |      |      |      |     |                |     | (鵬) | (關)  | (漚)  | 域    |
| iuət |     |      |     |     |   | (窰) | (黜) |      | 律    |      | 出   | 戌긔<br>술술<br>션션 | 率서리 | 橘   | 屈굴   | (欸)  | 鬱    |
| i    | 祕비  | 批皮벼빌 | 彌미  | 緋비  | 微 | 地?  |     | 你니너니 | 里리러르 |      |     |                |     | 記그기 | 欺旗거기 | 希稀혀히 | 易移이  |
| ɶ/ʌ  |     |      |     |     |   | 雉치  | 恥디티 |      |      | 支子지  | 雌此저 | 施時死시           | 兒   |     |      |      |      |
| iəŋ  | 氷   | 瓶병   | 明   |     |   | 頂뎡  | 聽   | 寧    | 令    | 精    | 靑청  | 性              |     | 京   | 輕    | 馨    | 英    |
| iəm  | 稟   | 品    |     |     |   | (朕) | (彰) | 賃    | 林臨림  | 斟    | 寢침  | 心尋신            | 任   | 錦금  | 琴    | 欽    | 音    |
| iən  | 賓   | 頻빈   | 民   |     |   | (珍) | (陳) | (紉)  | 鄰    | 眞진   | 親   | 神신             | 人신  | 斤근  | 勤    | 欣핀   | 印인   |
| iək  | 璧   | 僻    | 覓   |     |   | 的   | (剔) | 匿닉   | 力    | 積    | 赤적  | 食식             |     | 戟   | 隙    | 覲    | 益    |
| iəp  |     |      |     |     |   | (蟄) | (滄) | (囧)  | 笠立립  | 集집   | 葺   | 十              | 入   | 急及급 | 泣    | 吸    | 邑입   |
| iət  | 弼必빋 | 匹    | 密머밀 |     |   | (秩) | (秩) | (昵)  | 栗    | 疾    | 漆칠  | 實室설실           | 日   | 吉   | 乞걸글  | (肸)  | 一逸닐여 |

<표 5>를 보면 중국어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의 절대적인 수는 많다. 그러나 이 한자들로 고려 방언의 모든 음절을 세부적으로 잘 표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鷄林類事』의 고려 방언 모음 표기의 전모를 살피기 전에 『鷄林類事』의 표기를 통해 손목이 쓰는 중국어가 『聲音唱和圖』의 음운 특징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聲音唱和圖』 天聲圖를 보면 중국어의 입성 운미 ‘p, t, k’ 중에서 ‘t, k’가 이미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입성 운미 ‘p’뿐만이 아니라 ‘t, k’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표기가 『鷄林類事』에서는 도처에서 보인다.

&lt;표 6&gt; 『鷄林類事』(1103)의 입성 표기

| 성<br>운 | p<br>ㅍ   | ph<br>ㅍ | m<br>ㅁ   | f<br>ㅍ | ㅁ/v | t/t<br>ㄷ | th/th<br>ㅌ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sʰ/tsʰ<br>ㅊ | s/s<br>ㅅ    | z<br>ㅈ  | k<br>ㄱ | kh<br>ㅋ | x<br>ㅅ | Ø<br>ㅇ |
|--------|----------|---------|----------|--------|-----|----------|------------|--------|--------|------------|--------------|-------------|---------|--------|---------|--------|--------|
| ak     | 博        | (膊)     | 莫        | 縛      |     | 鐸        | 託          | 諾      | 落      | 作<br>자자    | 錯            | 朔           |         | 角<br>각 | 恪       | 鶴<br>학 | 惡      |
| ap     |          |         |          | 法      |     | 答<br>달   | 塔          | 納      | 拉      | 雜          | 插            | (雲)         |         | 甲      | 恰       | 合      | 鴨      |
| at     | 八        | 潑<br>발  | 抹木<br>말물 | 發<br>발 | 襪   | 姐達<br>들달 | 脫<br>달     | 捺<br>날 | 刺      | 札          | 察            | 薩<br>살      |         | 割<br>갈 | 渴<br>간  | 轄<br>학 | 闕      |
| uat    |          |         |          |        |     | (掇)      | 脫          | (納)    | (掇)    | (擲)        | 撮            | 刷           |         | 括      | 闊       | 活<br>활 | 幹      |
| iep    |          |         |          |        |     | 櫟<br>답   | 帖          | (聶)    | 獵      | 接          | 妾            | 攝           | (囁)     | 頰      | 怯       | 協      | 葉      |
| iet    | 別        | 瞥       | 蔑        |        |     | (室)      | 鐵          | 涅      | 列      | 哲          | *折<br>짓      | 屑           |         | 結      | (挈)     | 歇      | 噓<br>열 |
| ək     | 北<br>북   | 魄       | 墨<br>묵   |        |     | 德        | 慝          | (舊)    | 勒<br>록 | 則<br>작     | 冊            | 索           |         | 格      | 客       | 黑<br>흑 | 厄      |
| ət     | 李不<br>닛불 | (吁)     | 沒<br>몬물  | 弗      | 物   |          |            |        |        | (櫛)        | (辭)          | (瑟)         |         |        |         | (黻)    |        |
| uk     | 濮<br>분   | 撲       | 木<br>모   | 福<br>복 |     | 獨        | 禿          | (僂)    | 鹿<br>록 | 族          | 簇            | 速           |         | 谷      | 哭       | 斛      | 屋      |
| uət    |          |         |          |        |     | 突<br>돌   | (突)        | 訥      | (磳)    | 卒          | (猝)          | (宰)<br>손    |         | 骨<br>곳 | (窟)     | 忽      | (兀)    |
| iuət   |          |         |          |        |     | (窰)      | (黜)        |        | 律      |            | 出            | 戌<br>술<br>선 | 率<br>서리 | 橘      | 屈<br>굴  | (欸)    | 鬱      |
| iək    | 璧        | 僻       | 覓        |        |     | 的        | (剔)        | 匿<br>닉 | 力      | 積          | 赤<br>적       | 食<br>식      |         | 戟      | 隙       | 覲      | 益      |
| iəp    |          |         |          |        |     | (蟄)      | (滄)        | (囟)    | 笠<br>립 | 集<br>집     | 葺            | 十           | 入       | 急<br>급 | 泣       | 吸      | 畚<br>입 |
| iət    | 弼<br>빈   | 匹       | 密<br>머밀  |        |     | (秩)      | (眖)        | (昵)    | 栗      | 疾          | 漆<br>칠       | 實<br>실      | 日       | 吉      | 乞<br>걸  | (肸)    | 一<br>닐 |

<표 6>에서 보듯 다소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作木逸蛄) 손목이 쓰던 중국어에는 입성 운미 ‘p’, ‘t’, ‘k’가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음절 대응표를 만들 때 『中原音韻』(1324)뿐만 아니라 입성 운미가 탈락되지 않은 근대음 음운 체계를 보이고 있는 『韻略易通』(1442)의 음운 체계도 함께 참고했다. 특히 張玉來(1999: 59-61)의 음절 대응표를 주로 참고했는데 『廣韻』에 수록된 입성자와 하나하나 비교해 가며 宋대의 중국어 상황에 알맞게 적절하게 수정을 가했다.

둘째, 『聲音唱和圖』 天聲圖 5聲을 보면 중고음 蟹攝 3, 4등운이 止攝운과 합류해 운모가 ‘i’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iei, iei > i) 그러나 『鷄林類事』의 모음 표기를 보면 손목이 쓰는 중국어에서는 蟹攝 3, 4등운(\*iei)이 아직 止攝운(\*i/ɿ)과 합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lt;표 7&gt; 『鷄林類事』(1103)의 蟹攝 3, 4등운(\*iei)과 止攝운(\*i/ɿ)의 표기

| 성<br>운 | p<br>ㅍ | ph<br>ㅍ | m<br>ㅁ | f<br>ㅍ | ㅁ/v | t/t<br>ㄷ | th/th<br>ㅌ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sʰ/tsʰ<br>ㅊ | s/s<br>ㅅ | z<br>ㅈ | k<br>ㄱ | kh<br>ㅋ | x<br>ㅅ | Ø<br>ㅇ |
|--------|--------|---------|--------|--------|-----|----------|------------|--------|--------|------------|--------------|----------|--------|--------|---------|--------|--------|
| ɿ/ɿ    |        |         |        |        |     | 雉<br>치   | 恥<br>디     |        |        | 支<br>지     | 雌<br>저       | 施<br>시   | 兒<br>스 |        |         |        |        |
| i      | 祕<br>비 | 批<br>버  | 彌<br>미 | 緋<br>비 | 微   | 地?       |            | 你<br>니 | 里<br>리 |            |              |          |        | 記<br>기 | 欺<br>거  | 希<br>혀 | 易<br>이 |

|     |   |   |   |  |  |          |         |         |   |   |   |         |  |   |        |   |   |
|-----|---|---|---|--|--|----------|---------|---------|---|---|---|---------|--|---|--------|---|---|
| iei | 閉 | 批 | 袂 |  |  | 底低<br>더터 | 涕替<br>드 | 泥<br>녀니 | 禮 | 祭 | 妻 | 西勢<br>셔 |  | 計 | 溪<br>계 | 兮 | 藝 |
|-----|---|---|---|--|--|----------|---------|---------|---|---|---|---------|--|---|--------|---|---|

<표 7>에서 보듯 ‘기’, ‘니’, ‘디’, ‘티’,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히’를 표기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중고음 止접운자만 사용하지 蟹접 3, 4등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드문 예외로 ‘被曰泥不(니블)’이 있는데 ‘尼’의 오기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게다가 만약 蟹접 3, 4등운이 止접운(i)과 이미 합류했다면 ‘濟’[tsi], ‘妻’[tshi], ‘西’[si] 따위의 한자로 ‘지’, ‘치’, ‘시’를 반영하는 것이 ‘支’[tsɿ], ‘翅’[tshɿ], ‘時’[ʃɿ] 같은 한자로 ‘지’, ‘치’, ‘시’를 반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泥’[niei]로 ‘니’가 아닌 ‘녀’를 표기한 예도 있는 것을 보면 (淺曰泥低(녀터)) 蟹접 3, 4등운의 운모는 아직 ‘i’가 아닌 ‘iei’나 ‘ie’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聲音唱和圖』 地音圖를 보면 12음에 知조 성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周祖謨(1966)가 지적한 대로 知조 성모가 같은 설음인 6-7음 뒤 8음에 배치되지 않고 齒音 뒤인 12음에 배치된 것을 보면 知조 성모가 이미 치음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鷄林類事』의 표기를 보면 ‘恥’[tɕi]로 ‘디’나 ‘티’를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雉’[\*d̥i>tɕɿ]로 ‘치’를 표기한 것을 보면 일부 知조 성모자는 설음을 유지한 반면 일부 知조 성모자는 이미 치음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鷄林類事』 고려 방언의 모음 표기와 관련해 손목이 사용했던 중국어 모음 ‘ɛ’, ‘ə’, ‘ɿ/ʌ’의 음절 제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모음 ‘ɛ’는 이중 모음 혹은 삼중 모음일 때만 나타난다. 즉, 단모음 ‘ɛ’만 나타나는 음절은 전무하고 ‘ie’ 혹은 ‘iue’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설령 李基文(1968)이나 김동소(1998)의 주장대로 모음 /ɿ/의 음가가 /ä/였다고 해도 음절 대응상 『鷄林類事』에서는 단모음 /ɿ/의 표기가 불가능하고 이론상 이중 모음 /ɿ/, /ɿ/만을 부분적으로 ‘ie’ 혹은 ‘iue’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운모 ‘ə’, ‘ai’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 역사적으로 상고음 之부(ə)와 微부(ai)는 개음 ‘i’의 영향을 받아 중고음에서 止접운에 편입되어 핵모음이 ‘i’가 되거나 (\*iə > i, \*iai > i) 운모 ‘i’와 함께 중고음 咍운에 편입되어 핵모음이 훗날 ‘a’가 된다. (\*ai > \*ai > ai)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당시의 중국어는 『中原音韻』(1324)에서처럼 歌戈운이 아직 독립되기 전이다. (\*a > \*o > o/ə) 운모 ‘ə’, ‘ai’가 마침 공란인 상태에서 고려 방언을 표기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모음 ‘ɿ/ʌ’는 개음절 치음이라는 음성 환경에서만 존재한다. 설령 고려 방언에 ‘ɿ/ʌ’와 비슷한 모음이 있었다하더라도 개음절 치음이라는 음성 환경 외에는 이를 반영할 방법이 전무하다.

### 3. 『鷄林類事』(1103)의 모음 표기 제약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내부적으로 원순 모음이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鷄林類事』를 통해서는 고려 방언의 /ɿ/와 /ɿ/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ɿ/, /·/, /—/를 /ɿ/, /ɿ/와 구분해 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어 모음 ‘ɛ’, ‘ə’, ‘ɿ/ʌ’가 여러 음절에서 대립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음절 제약으로 인해 중국어 모음 ‘ɛ’, ‘ə’, ‘ɿ/ʌ’가 여러 음절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鷄林類事』의 모음 표기는 李基文(1968: 239)이 언급한 대로 조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제 중국어의 음절 제약 조건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鷄林類事』의 모음 표기가 왜 조잡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鷄林類事』 고려 방언의 모음 체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 3.1. 『鷄林類事』(1103) /·/ 표기 제약

먼저 각 음절 환경별로 『鷄林類事』에서 /·/ 모음이 어떻게 표기됐고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8> 개음절의 /·/ 표기

| 성<br>운 | p<br>ㅍ | pʰ<br>ㅍ | m<br>ㅁ | f<br>ㅍ | ɱ/v<br>ㅁ | t/t<br>ㄷ | tʰ/tʰ<br>ㅌ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ʰʰ/tʰʰ<br>ㅊ | s/s<br>ㅅ | ʒ<br>ㄷ | k<br>ㄱ | kʰ<br>ㅋ | x<br>ㅎ | Ø<br>ㅇ |
|--------|--------|---------|--------|--------|----------|----------|------------|--------|--------|------------|--------------|----------|--------|--------|---------|--------|--------|
| a      | 把      | 婆       | 馬      |        |          | 大        | 他          | 那      | 羅      | 查          | *咱           | 沙        |        | 家      | 珂       | 何      | 阿      |
| ə      |        |         |        |        |          |          |            |        |        |            |              |          |        |        |         |        |        |
| ɿ/ʌ    |        |         |        |        |          | 雉        | 恥          |        |        | 子          | 此            | 死        | 兒      |        |         |        |        |
| i      | 祕      | 皮       | 彌      | 緋      | 微        | 地        |            | 尼      | 里      |            |              |          |        | 記      | 欺       | 希      | 易      |

<표 8>에서 보듯 치음자가 아닌 경우 ‘a’ 혹은 ‘i’ 중에서 선택해 표기해야 하는데, 고려 방언 모음 /·/의 음가를 표기하기 위해 ‘a’와 ‘i’ 중에서는 ‘a’를 선택하고 ‘a’와 ‘ɿ/ʌ’ 중에서는 ‘ɿ/ʌ’를 선택한 것이다. 예외는 ‘스남’(沙南)에서 ‘스’가 ‘沙’[sa]와 대응된 것뿐이다.

<표 9> 운미 ‘i’ 환경 /·/ 표기

| 성<br>운 | p<br>ㅍ | pʰ<br>ㅍ | m<br>ㅁ | f<br>ㅍ | ɱ/v<br>ㅁ | t/t<br>ㄷ | tʰ/tʰ<br>ㅌ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ʰʰ/tʰʰ<br>ㅊ | s/s<br>ㅅ | ʒ<br>ㄷ | k<br>ㄱ | kʰ<br>ㅋ | x<br>ㅎ | Ø<br>ㅇ |
|--------|--------|---------|--------|--------|----------|----------|------------|--------|--------|------------|--------------|----------|--------|--------|---------|--------|--------|
| ai     | 敗      | 排       | 買      |        |          | 帶        | 泰          | 迺      | 來      | 載          | 采            | 賚        |        | 蓋      | 慨       | 海      | 哀      |
| əi     |        |         |        |        |          |          |            |        |        |            |              |          |        |        |         |        |        |

운미 ‘i’가 있는 환경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어에서 ‘əi’ 같은 운모를 표기할 수 있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 방언 이중 모음 ‘·i’는 ‘ai’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다.

<표 10> 운미 ‘ɨ’ 환경 /·/ 표기

| 성<br>운 | p<br>ㅍ | pʰ<br>ㅍ | m<br>ㅁ | f<br>ㅍ | ɱ/v<br>ㅁ | t/t<br>ㄷ | tʰ/tʰ<br>ㅌ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ʰʰ/tʰʰ<br>ㅊ | s/s<br>ㅅ | ʒ<br>ㄷ | k<br>ㄱ | kʰ<br>ㅋ | x<br>ㅎ | Ø<br>ㅇ |
|--------|--------|---------|--------|--------|----------|----------|------------|--------|--------|------------|--------------|----------|--------|--------|---------|--------|--------|
| aɨ     | 幫      | 傍       | 忙      | 方      | 亡        | 當        | 湯          | 囊      | 郎      | 葬          | 倉            | 喪        |        | 江      | 康       | 航      | 昂      |
| əɨ     | 崩      | 朋       | 盟      |        |          | 登        | 騰          | 能      | 冷      | 爭          | 層            | 生        |        | 庚      | 坑       | 亨      | 鶯      |
| iɨ     | 氷      | 瓶       | 明      |        |          | 頂        | 聽          | 寧      | 令      | 精          | 青            | 性        |        | 京      | 輕       | 馨      | 英      |

근대음의 음운 체계에서는 이중 모음 ‘iə’와 ‘i’가 거의 대립하지 않는다. 즉, 이중 모음 ‘iə’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단모음 ‘i’가 포함된 음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위 표를 예를 들면

운모 'iəŋ'과 'iŋ'의 대립이 없는데 'iəŋ'의 운모를 인정하는 순간 중국어 음운 체계에서 'iŋ'이라는 운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중 모음 'iə'는 중국어 성운학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이고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도 'iəŋ/k', 'iəŋ/t', 'iəŋ/p'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현실적으로 단모음 'i'로 발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李新魁(1983) 같은 경우 이중 모음 'iə' 중 'ə'를 과도음으로 보고 'i'로 축약해 재구하기도 한다. ('iŋ/k', 'iŋ/t', 'iŋ/p') 潘悟雲(2000)은 아예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도 이중 모음 'iə'나 'ie'를 'i'나 'i'로 재구하고 있다. 黃笑山(1995)은 거의 'i'로 재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어 이중 모음 'iə'는 현실적으로 단모음 'i'였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표 10>에서 '성'과 '生'[səŋ]의 대응예를 확인할 수 있다. /·/를 'a', 'ə', 'i' 중에 'ə'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의 전승 한자음을 그대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중국어에는 'ai' 따위의 이중 모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표 11> 운미 'k'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ʰ  | m | f | ŋ/v | t/t | tʰ/tʰ | n   | l | ts/ts   | tʃ/tʃ | s/s | ʒ | k | kʰ | x | Ø |
|-----|---|---|-----|---|---|-----|-----|-------|-----|---|---------|-------|-----|---|---|----|---|---|
|     |   | ㄷ | ㄷʰ  | ㄹ |   |     | ㄷ   | ㄷʰ    | ㄴ   | ㄹ | ㄷㅅ      | ㄷㅅʰ   | ㅅ   | ㄷ | ㄱ | ㄱʰ | ㅅ | ㅇ |
| ak  |   | 博 | (膊) | 莫 | 縛 |     | 鐸   | 託     | 諾   | 落 | 作<br>자자 | 錯     | 朔   |   | 角 | 恪  | 鶴 | 惡 |
| ək  |   | 北 | 魄   | 墨 |   |     | 德   | 慝     | (僭) | 勒 | 則<br>죉  | 冊     | 索   |   | 格 | 客  | 黑 | 厄 |
| iək |   | 璧 | 僻   | 覓 |   |     | 的   | (剔)   | 匿   | 力 | 積       | 赤     | 食   |   | 戟 | 隙  | 覓 | 益 |

여기에서도 대응예가 '죽'과 '則'[tsək] 하나밖에 없다. 역시 /·/를 'a', 'ə', 'i' 중에 'ə'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 방언 '자'가 '作'과 대응된 것으로 볼 때 '作'의 입성 운미가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ə'와 대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손목은 'ə'와 'i' 중에서 'ə'를 선택해 /·/를 표기한 것이다.

<표 12> 운미 'm'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ʰ | m | f | ŋ/v | t/t | tʰ/tʰ | n | l      | ts/ts | tʃ/tʃ  | s/s | ʒ | k      | kʰ | x | Ø |
|-----|---|----|----|---|---|-----|-----|-------|---|--------|-------|--------|-----|---|--------|----|---|---|
|     |   | ㄷ  | ㄷʰ | ㄹ |   |     | ㄷ   | ㄷʰ    | ㄴ | ㄹ      | ㄷㅅ    | ㄷㅅʰ    | ㅅ   | ㄷ | ㄱ      | ㄱʰ | ㅅ | ㅇ |
| am  |   | *監 |    |   | 凡 |     | 耽   | 貪     | 南 | 纒<br>름 | 暫     | 慘<br>츄 | 三   |   | 甘      | 坎  | 合 | 暗 |
| əm  |   |    |    |   |   |     |     |       |   |        | (簪)   | (識)    | (森) |   |        |    |   |   |
| iəm |   | 稟  | 品  |   |   |     | (朕) | (彫)   | 賃 | 林      | 斟     | 寢      | 心   | 任 | 錦<br>금 | 琴  | 欽 | 音 |

이 당시 중국어에 운모 'əm'은 적었다. '簪', '識', '森'의 경우 본디 중고음 侵운(\*im)의 莊 조 성모자로 『中原音韻』(1324)에서는 개음 'i'가 탈락한다. (\*əm) 단, 앞서 언급했듯이 손목이 쓰는 중국어는 『聲音唱和圖』(11세기 후반)보다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ləm'과 같은 음절을 표기할 한자는 고음을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12>에서 손목은 고려 방언 모음 /·/를 'a'와 'i' 중에서 'a'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t;표 13&gt; 운미 'p'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h/th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ㅅ | ㅍ | ㅑ              | ㅁ | ㅍ | ㅁ/ㅂ | ㅌ   | ㅊ     | ㄴ   | ㄹ | ㅈ     | ㅊ                                | ㅅ   | ㅈ | ㄱ | ㅋ              | ㅅ | ㅇ |
| ap  |   |   |                |   | 法 |     | 答   | 塔     | 納   | 拉 | 雜     | 插                                | (雲) |   | 甲 | 恰              | 合 | 鴨 |
| əp  |   |   |                |   |   |     |     |       |     |   | (戢)   | (插)                              | (澁) |   |   |                |   |   |
| iəp |   |   |                |   |   |     | (蟄) | (滌)   | (圀) | 立 | 集     | 葺                                | 十   | 入 | 及 | 泣              | 吸 | 邑 |

‘蟄’은 澄母(\*d)자로 이미 처음으로 편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a’, ‘ə’, ‘i’ 중에 표기 모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뿐이다.

&lt;표 14&gt; 운미 'n'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h/th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ㅅ | ㅍ | ㅑ              | ㅁ | ㅍ | ㅁ/ㅂ | ㅌ   | ㅊ     | ㄴ   | ㄹ | ㅈ     | ㅊ                                | ㅅ   | ㅈ | ㄱ | ㅋ              | ㅅ | ㅇ |
| an   |   | 板 | 盤              | 萬 | 反 | 萬   | 丹   | 彈     | 難   | 蘭 | 棧     | 餐                                | 刪   |   | 干 | 看              | 漢 | 安 |
| ən   |   | 本 | 盆              | 門 | 分 | 文   |     |       |     |   | (臻)   | (臻)                              | (莘) |   | 根 | 懇              | 很 | 恩 |
| uən  |   |   |                |   |   |     | 頓   | 屯     | 嫩   | 論 | 尊     | 寸                                | 孫   |   | 昆 | 坤              | 昏 | 溫 |
| iuən |   |   |                |   |   |     | (椿) |       | 倫   | 俊 | 春     | 舜                                | 潤   |   | 軍 | 群              | 勳 | 允 |
| iən  |   | 賓 | 頻              | 民 |   |     | (珍) | (陳)   | (紉) | 鄰 | 眞     | 親                                | 神   | 人 | 斤 | 勤              | 欣 | 印 |

고려 방언의 ‘든’, ‘춘’을 ‘屯’[tuən], ‘寸’[ts<sup>h</sup>uən]으로 표기한 것은 ‘tən’, ‘ts<sup>h</sup>ən’ 따위의 음절을 표기할 한자가 없어서다. ‘臻’은 僻字고 중고음 臻운(in)의 莊조 성모자로 손목이 쓰는 중국어에서는 아직 개음 ‘i’가 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를 ‘a’, ‘ə’, ‘i’ 중에서 ‘ə’로 선택하고 싶었는데 ‘ə’로 표기하기 마땅치 않아 이중 모음 ‘uə’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很’[xən] 같은 한자가 있는 상황에서 ‘힌’을 ‘漢’으로 표기하고, ‘훈’을 ‘勳’[xiuən]으로 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əin’ 같은 운모가 존재하지 않아 표기할 때 혼란이 있었을 수 있고, ‘勳’[xiuən]의 경우에도 ‘ə’를 표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lt;표 15&gt; 운미 't'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h/th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ㅅ | ㅍ | ㅑ              | ㅁ | ㅍ | ㅁ/ㅂ | ㅌ   | ㅊ     | ㄴ   | ㄹ | ㅈ     | ㅊ                                | ㅅ   | ㅈ | ㄱ | ㅋ              | ㅅ   | ㅇ |
| at   |   | 八 | 潑              | 末 | 發 | 襪   | 姐達  | 脫     | 捺   | 刺 | 札     | 察                                | 薩   |   | 割 | 渴              | 轄   | 闕 |
| ət   |   | 孛 | (悖)            | 沒 | 弗 | 物   |     |       |     |   | (櫛)   | (辭)                              | (瑟) |   |   |                | (齷) |   |
| iuət |   |   |                |   |   |     | (窰) | (黜)   |     | 律 |       | 出                                | 戌   | 率 | 橘 | 屈              | (欸) | 鬱 |
| iət  |   | 必 | 匹              | 密 |   |     | (秩) | (眖)   | (昵) | 栗 | 疾     | 漆                                | 室   | 日 | 吉 | 乞              | (胎) | 一 |

<표 14>에서 보듯이 운모 ‘ət’을 표기할 수 있는 한자가 드물다. 치음자의 경우 중고음 櫛운(\*It)에 속한 한자로 대부분이 僻字고, 앞서 언급했듯이 손목이 쓰는 중국어에서는 아직 개음 ‘i’가 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孛’[bət]의 경우 ‘孛纜’으로 ‘벗림’을 표기한 예에서 가져온 것이다. 姜信沆(1980)이 언급했듯이 『鷄林類事』에서는 뒤의 자음을 앞의 받침과 중첩해 표기한 예가 많다. 다른 예를 들면 ‘하늘’을 ‘漢捺’로 표기한 것이 있다.

여기서 예외는 ‘물’을 ‘末’[mat]로 표기한 것뿐으로 /·/를 중국어 모음 ‘a’로 표기한 예는 거의 대부분 ‘ə’로 표기할 수 없거나 해당 한자가 僻字일 경우다.

‘숯’을 ‘戌’[siuət]으로 표기한 것은 어떻게든 ‘ə’로 /·/를 표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鷄林類事』에서 고려 방언 모음 /·/를 ‘a’로 표기한 예가 많았던 것은 ‘ə’나 ‘ɿ/ʌ’의 음절 제약으로 인해 표기할 모음의 선택 제약이 생겨 ‘a’와 ‘i’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힌’과 대응되는 ‘漢’[xan], ‘물’과 대응되는 ‘末’[mat], ‘스’와 대응되는 ‘沙’[ʃa]를 제외하고는 손목은 /·/를 한자로 표기할 때 중국어 모음 ‘ə’와 ‘ɿ/ʌ’를 ‘a’보다 훨씬 선호하고, 둘 다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a’로 표기한다. 단, ‘i’로 사음된 예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는 ‘i’로는 결코 표기할 수 없었던 모음으로 보인다.

김동소(1998)가 주장한 대로 고려 방언 당시 /ㅏ/와 /·/가 같았다면 중국어 모음 ‘ə’와 ‘ɿ/ʌ’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a’로 선택해 표기해야 했다. 姜信沆(1980)이 주장한 대로 /ㅏ/의 음가가 ‘a’와 같았다면 ‘ə’나 ‘ɿ/ʌ’로 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 ‘a’로 표기했어야 마땅하나 본고에서 살펴본 대로 『鷄林類事』에서는 기회만 된다면 ‘ə’와 ‘ɿ/ʌ’로 표기하는 것을 ‘a’로 표기하는 것보다 선호한다.

다만 손목이 쓰던 중국어의 음절 구조상 ‘ə’와 ‘ɿ/ʌ’가 동시에 대립돼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음절에는 ‘ə’가 없고 개음절에만 ‘ɿ/ʌ’가 나타난다.) /·/의 음가가 ‘ə’와 더 가까웠는지 ‘ɿ/ʌ’에 더 가까웠는지는 『鷄林類事』의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3.2. 『鷄林類事』(1103) /ㅡ/ 표기 제약

이제 /ㅡ/ 모음도 각 음절 환경별로 『鷄林類事』에서 어떻게 표기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찰해보자.

<표 16> 개음절의 /ㅡ/ 표기

| 운   | 성 | p<br>ㅍ | ph<br>ㅑ | m<br>ㅁ | f | ㅁ/v | t/t<br>ㅌ | th/th<br>ㅊ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sʰ/tsʰ<br>ㅊ | s/s<br>ㅅ | z<br>ㅈ | k<br>ㄱ | kh<br>ㅋ | x<br>ㅅ | Ø<br>ㅇ |
|-----|---|--------|---------|--------|---|-----|----------|------------|--------|--------|------------|--------------|----------|--------|--------|---------|--------|--------|
| a   |   | 把      | 婆       | 馬      |   |     | 大        | 他          | 那      | 羅      | 查          | *咱           | 娑        |        | 家      | 珂       | 夏      | Υ      |
| ə   |   |        |         |        |   |     |          |            |        |        |            |              |          |        |        |         |        |        |
| ɿ/ʌ |   |        |         |        |   |     | 雉        | 恥          |        |        | 子          | 此            | 事        | 兒      |        |         |        |        |
| i   |   | 祕      | 皮       | 彌      | 緋 | 微   | 地        |            | 你      | 里<br>ㄹ |            |              |          |        | 記<br>ㄱ | 旗       | 希      | 易      |
| iei |   | 閉      | 批       | 袂      |   |     | 底        | 涕替<br>ㅌ    | 泥      | 禮      | 祭          | 妻            | 西        |        | 計      | 溪       | 兮      | 藝      |

『鷄林類事』에서는 개음절 모음 /ㅡ/를 중국어 모음 ‘i’로 표기했다. ‘a’로는 표기할 수 없었고 ‘ə’는 개음절에서 표기할 한자가 없었으며 ‘즈’, ‘츠’, ‘스’ 같은 개음절 치음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 방언 ‘드’를 ‘替涕’[thiei]로 표기한 것은 의외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목이 사용했던 중국어에서 蟹脰 3, 4등운자의 운모는 ‘iei’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替涕’의 경우에 한해서 이미 ‘\*thiei > thi’의 변화를 거쳤을지도 모르겠다. 운서의 分韻과 달리 현실의 구어음은 유동성 있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단 표기 한자로 ‘地’[ti]가 나타나지 않는 것 역시 의외다. 어쩌면 손목이 사용했던 중국어에서 ‘地’의

음성이 [ti]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표 17> 운미 'i'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 <sup>h</sup> /t <sup>h</sup>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 ㄷ | ㄷ <sup>ㅅ</sup> | ㅁ |   |     | ㄷ   | ㅌ                              | ㄴ | ㄹ | ㅌㅅ    | ㅌㅅ <sup>ㅅ</sup>                  | ㅅ   | ㅈ | ㄱ | ㄱ <sup>ㅅ</sup> | ㅅ | ㅇ |
| ai |   | 敗 | 排              | 買 |   |     | 帶   | 泰                              | 迺 | 來 | 載     | 采                                | 賽   |   | 蓋 | 慨              | 海 | 哀 |
| əi |   |   |                |   |   |     |     |                                |   |   |       |                                  |     |   |   |                |   |   |

운모 'əi'가 없는 상황에서 '씩'을 '帶[tai]로 표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표 18> 운미 'k'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 <sup>h</sup> /t <sup>h</sup>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 ㄷ | ㄷ <sup>ㅅ</sup> | ㅁ |   |     | ㄷ   | ㅌ                              | ㄴ   | ㄹ | ㅌㅅ    | ㅌㅅ <sup>ㅅ</sup>                  | ㅅ   | ㅈ | ㄱ | ㄱ <sup>ㅅ</sup> | ㅅ | ㅇ |
| ak  |   | 博 | (膊)            | 莫 | 縛 |     | 鐸   | 託                              | 諾   | 落 | 作     | 錯                                | 朔   |   | 角 | 恪              | 鶴 | 惡 |
| ək  |   | 北 | 魄              | 墨 |   |     | 德   | 慝                              | (偈) | 勒 | 則     | 冊                                | 索   |   | 格 | 客              | 黑 | 厄 |
| iək |   | 璧 | 僻              | 覓 |   |     | 的   | (剔)                            | 匿   | 力 | 積     | 赤                                | 食   |   | 戟 | 隙              | 覓 | 益 |

『鷄林類事』에서 고려 방언 모음 /—/를 'a', 'ə', 'i' 중에서 'ə'로 선택해 표기했다. 예외는 없다.

<표 19> 운미 'm'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 <sup>h</sup> /t <sup>h</sup>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 ㄷ  | ㄷ <sup>ㅅ</sup> | ㅁ |   |     | ㄷ   | ㅌ                              | ㄴ | ㄹ | ㅌㅅ    | ㅌㅅ <sup>ㅅ</sup>                  | ㅅ   | ㅈ | ㄱ | ㄱ <sup>ㅅ</sup> | ㅅ | ㅇ |
| am  |   | *監 |                |   | 凡 |     | 耽   | 貪                              | 南 | 纜 | 暫     | 慘                                | 三   |   | 甘 | 坎              | 合 | 暗 |
| əm  |   |    |                |   |   |     |     |                                |   |   | (簪)   | (識)                              | (森) |   |   |                |   |   |
| iəm |   | 稟  | 品              |   |   |     | (朕) | (衫)                            | 賃 | 林 | 斟     | 寢                                | 心   | 任 | 錦 | 琴              | 欽 | 音 |

'ləm', 'kəm'과 같은 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 한자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모음 'i'로 /—/를 표기하게 됐다.

<표 20> 운미 'n' 환경 /—/ 표기

| 운   | 성 | p | p <sup>h</sup> | m | f | m/v | t/t | t <sup>h</sup> /t <sup>h</sup> | n   | l | ts/ts | ts <sup>h</sup> /ts <sup>h</sup> | s/s | z | k | k <sup>h</sup> | x | Ø |
|-----|---|---|----------------|---|---|-----|-----|--------------------------------|-----|---|-------|----------------------------------|-----|---|---|----------------|---|---|
|     |   | ㄷ | ㄷ <sup>ㅅ</sup> | ㅁ |   |     | ㄷ   | ㅌ                              | ㄴ   | ㄹ | ㅌㅅ    | ㅌㅅ <sup>ㅅ</sup>                  | ㅅ   | ㅈ | ㄱ | ㄱ <sup>ㅅ</sup> | ㅅ | ㅇ |
| an  |   | 板 | 盤              | 萬 | 反 | 萬   | 丹   | 彈                              | 難   | 蘭 | 棧     | 餐                                | 刪   |   | 干 | 看              | 漢 | 安 |
| ən  |   | 奔 | 盆              | 門 | 分 | 文   |     |                                |     |   | (臻)   | (榛)                              | (莘) |   | 根 | 懇              | 很 | 恩 |
| iən |   | 賓 | 頻              | 民 |   |     | (珍) | (陳)                            | (紉) | 鄰 | 眞     | 親                                | 神   | 人 | 斤 | 勤              | 欣 | 印 |

본고에서는 앞서 '헌'을 '漢'으로 표기한 예를 살펴본 적이 있다. '흔'을 '漢'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손목이 사용하는 중국어에서는 개인적 혹은 방언적 특성으로 인해 '痕很恨' 따위의 한자의 음성이 [xən]이 아니었던 것이다.

'폰'을 '欣[xin]으로 표기한 것은 고려 방언 '기폰'을 '及欣[kipxin]으로 표기한 예를 든 것으로 앞 음절의 'p' 입성을 고려하면 '흔'을 '欣[xin]으로 표기한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xən'이라는 음성을 표기할 한자가 없다고 착오를 일으켰거나 손목이 사용했던 방언에는 '痕很恨' 따위의 한자의 음성이 'xən'이 아

니었을 것이다.

그밖에는 /-/를 ‘a’, ‘ə’, ‘i’ 중 ‘ə’로 선택해 표기했다. 다만 ‘근’의 경우 ‘根’[kən]과 ‘斤’[kin] 두 종류의 음절로 표기됐다.

<표 21> 운미 ‘t’ 환경 /-/ 표기

| 운    | 성 | p<br>ㅍ | pʰ<br>ㅑ | m<br>ㅁ | f<br>ㅍ | m/v<br>ㅁ/ㅂ | t/t<br>ㅌ | tʰ/tʰ<br>ㅊ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ʃ/tʃ<br>ㅊ | s/s<br>ㅅ | z<br>ㅈ | k<br>ㄱ | kʰ<br>ㅋ | x<br>ㅎ | Ø<br>ㅇ |
|------|---|--------|---------|--------|--------|------------|----------|------------|--------|--------|------------|------------|----------|--------|--------|---------|--------|--------|
| at   |   | 八      | 潑       | 末      | 發      | 襪          | 達        | 脫          | 捺      | 刺      | 札          | 察          | 薩        |        | 割      | 渴       | 轄      | 闕      |
| ət   |   | 李<br>블 | (悻)     | 沒<br>블 | 弗      | 物          |          |            |        |        | (櫛)        | (辭)        | (瑟)      |        |        |         | (黻)    |        |
| uat  |   |        |         |        |        |            | 突        | (突)        | 訥      | (磳)    | 卒          | (猝)        | (宰)      |        | 骨<br>글 | (窟)     | 忽      | (兀)    |
| iuat |   |        |         |        |        |            | (宙)      | (黜)        |        | 律      |            | 出          | 戌<br>글   | 率      | 橘      | 屈       | (歛)    | 鬱      |
| iət  |   | 必      | 匹       | 密      |        |            | (秩)      | (眖)        | (昵)    | 栗      | 疾          | 漆          | 實        | 日      | 吉      | 乞<br>글  | (肸)    | 一      |

모음 /-/를 ‘a’, ‘ə’, ‘i’ 중 ‘ə’로 선택해 표기했다. 단 ‘kət’ 혹은 ‘kʰət’ 따위의 음절을 표기할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骨’[kuət] 혹은 ‘乞’[kʰit]로 표기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중고음 櫛운(\*it)에 속한 한자는 『中原音韻』(1324)에서 개음 ‘i’가 탈락하나 대부분이 僻字고, 앞서 언급했듯이 손목이 쓰는 중국어에서는 아직 개음 ‘i’가 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음절 ‘sət’을 표기할 한자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戌’[xiuat]로 ‘숫’을 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鷄林類事』에서 고려 방언 모음 /-/를 대부분 ‘ə’로 표기하지만 음절 제약이 있으면 ‘i’로 표기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a’로 표기한다. 예외는 ‘흔’과 대응되는 ‘漢’[xan] 하나뿐이다. 다만 /·/와 반대로 ‘a’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기피하고 ‘i’로 표기되는 것에 도리어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3.3. 『鷄林類事』(1103) /ㅈ/ 표기 제약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에서 ‘ɛ’는 일반적으로 개음 ‘i’ 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김현(2015)이 지적했듯이 비록 후기 중세 한국어의 음절 특징이기는 하지만 이중 모음 /ㅈ/는 단모음처럼 여러 음절에서 활용돼 나타난다. 따라서 /ㅈ/뿐만 아니라 /ㅈ/의 표기 현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표 22> /ㅈ/ 표기 현황

| 운   | 성 | p<br>ㅍ | pʰ<br>ㅑ | m<br>ㅁ | f<br>ㅍ | m/v<br>ㅁ/ㅂ | t/t<br>ㅌ | tʰ/tʰ<br>ㅊ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ʃ/tʃ<br>ㅊ | s/s<br>ㅅ | z<br>ㅈ | k<br>ㄱ | kʰ<br>ㅋ | x<br>ㅎ | Ø<br>ㅇ |
|-----|---|--------|---------|--------|--------|------------|----------|------------|--------|--------|------------|------------|----------|--------|--------|---------|--------|--------|
| ia  |   |        |         |        |        |            |          |            |        |        | 借          | 車          | 蛇        | 惹      | 迦      | 茄       |        | 耶<br>야 |
| iei |   | 閉      | 批       | 袂      |        |            | 底<br>더   | 涕          | 泥<br>녀 | 禮      | 祭          | 妻          | 西勢<br>셔  |        | 計      | 溪<br>계  | 兮      | 藝      |
| at  |   | 八      | 潑       | 末      | 發      | 襪          | 達        | 脫          | 捺      | 刺      | 札          | 察          | 薩        |        | 割      | 渴       | 轄      | 闕      |
| ㅈ/ㄹ |   |        |         |        |        |            | 雉        | 恥          |        |        | 子          | 雌          | 時<br>셔   | 兒      |        |         |        |        |
| i   |   | 祕      | 批<br>벼  | 彌      | 緋      | 微          | 地?       |            | 你      | 利<br>러 |            |            |          |        | 記      | 欺       | 希<br>허 | 易      |
| iem |   | 貶      |         |        |        |            | 點        | 添          | 念      | 廉      | 占<br>점     | 籤          | 織        | 染      | 檢      | 謙       | 嫌      | 鹽<br>염 |

|      |        |        |        |  |          |          |          |        |        |          |        |          |        |          |          |        |
|------|--------|--------|--------|--|----------|----------|----------|--------|--------|----------|--------|----------|--------|----------|----------|--------|
| iɛn  | 鞭<br>편 | 片<br>편 | 眠<br>면 |  | 典<br>뎌   | 田<br>뎌   | 年<br>년   | 蓮<br>련 | 箋<br>견 | 遷千<br>선천 | 先<br>선 |          | 建<br>건 | 牽<br>견   | 獻<br>현   | 言<br>언 |
| iɛp  |        |        |        |  | (樸)<br>덥 | 帖<br>첩   | (聶)<br>넋 | 獵<br>렵 | 接<br>첩 | 妾<br>첩   | 攝<br>첩 | (囁)<br>첩 | 頰<br>첩 | 怯<br>첩   | 協<br>협   | 葉<br>엽 |
| iɛt  | 別<br>별 | 瞥<br>편 | 蔑<br>멸 |  | (室)<br>첩 | 鐵<br>첩   | 涅<br>넋   | 列<br>렵 | 折<br>첩 | 切<br>첩   | 屑<br>첩 |          | 結<br>첩 | (挈)<br>첩 | 歇<br>협   | 噫<br>엽 |
| iɛt  | 必<br>첩 | 匹<br>첩 | 密<br>첩 |  | (秩)<br>첩 | (跌)<br>첩 | (昵)<br>첩 | 栗<br>첩 | 疾<br>첩 | 漆<br>첩   | 實<br>첩 | 日<br>첩   | 吉<br>첩 | 乞<br>첩   | (胎)<br>첩 | 逸<br>엽 |
| iuɛn |        |        |        |  | (轉)<br>첩 | (傳)<br>첩 |          | 戀<br>첩 | 專<br>첩 | 泉<br>첩   | 宣<br>첩 | 軟<br>첩   | 捲<br>첩 | 勸<br>첩   | 玄<br>협   | 元<br>엽 |
| iɛŋ  | 氷<br>병 | 瓶<br>병 | 明<br>명 |  | 頂<br>뎡   | 聽<br>텡   | 寧<br>넡   | 令<br>령 | 精<br>텡 | 靑<br>텡   | 性<br>텡 |          | 京<br>텡 | 輕<br>텡   | 馨<br>텡   | 英<br>엡 |
| iɛk  | 璧<br>첩 | 僻<br>첩 | 覓<br>첩 |  | 的<br>첩   | (剔)<br>첩 | 匿<br>첩   | 力<br>첩 | 積<br>첩 | 赤<br>첩   | 食<br>첩 |          | 戟<br>첩 | 隙<br>첩   | 覲<br>첩   | 益<br>첩 |

『鷄林類事』에서는 전체적으로 /ㄷ/를 중국어 이중 모음 'ie'나 'i'로 표기하고 있다. 극소수의 'ㄴ'도 있다. (時) 만약 /ㄷ/의 음가가 /ɛ/와 유사한 전설 모음이라면 /ㄷ/와 'ie'의 대응은 정상적이고 'i'와의 대응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표 22>에서 '溪', '西', '年', '田', '千', '泉', '瓶', '靑', '赤'의 경우 전승 한자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목의 제시자와 표기자가 같아 (예를 들어 '溪曰溪') 과연 서로 대응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특히 '瓶', '靑', '赤'의 경우 중고음과 宋代 한자음의 운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ie > i) 더욱 의심스럽다. 다만 이경우도 음절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운미 'ŋ/k'의 환경에서 중고음 梗攝운은 근대음에 들어서며 점차 曾攝운과 합류하면서 운모 'ieŋ/k'가 모두 'iŋ/k'이 된다. 따라서 '瓶', '靑', '赤'의 고려 방언 한자음이 '병', '청', '적'이라 해도 중국어에 'pʰieŋ', 'tʰieŋ', 'tʰiek' 같은 음절이 없었다고 본다면 각각 'pʰiŋ', 'tʰiŋ', 'tʰik'과 어쩔 수 없이 대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麻3등운(ia)은 『中原音韻』(1324)에서 'ie'로 재구되지만 이는 麻2등운(\*a) 喉牙音에 개음 'i'가 덧나면서 'ia'와 'ie'가 서로 대립되며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당시 중국어에서는 'ia'였을 것이라 보인다. 麻3등운자 '耶' [ia]는 『鷄林類事』에서 '야'와 대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음절의 /ㄷ/는 蟹攝 3, 4등운자(iei)와 대응되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모음 'i'와 대응되는 방법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벼', '려', '혀' 등의 경우 대응 음절 'pie', 'lie', 'xie'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 '批' [pʰi], '利' [li], '希' [xi]에 대응되는 수밖에 없었다.

입성이 탈락되지 않은 것도 이중 모음 /ㄷ/ 표기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판단된다. '別' [biet]과 '列' [liet]의 입성 운미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벼', '려'와 대응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혀'의 경우 '蜎' [xat]로 표기하기도 했는데 '蜎'은 본래 입성자나 『中原音韻』(1324)에서는 입성이 탈락해 재구음이 'xie'가 된다. 손목이 사용한 구어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입성 운미가 탈락된 것이고 비록 僻字지만 고려 방언 '혀'를 표기하기 위해 손목이 가까스로 찾아낸 표기 한자인 듯 보인다.

이제 『鷄林類事』의 단모음 /ㄷ/ 표기 제약을 각 음절 유형별로 검토해 보자.

<표 23> 개음절의 /ㄷ/ 표기

| 성<br>운 | p<br>ㅍ | pʰ<br>ㅍ | m<br>ㅁ | f | ɱ/v | t/t<br>ㄷ | tʰ/tʰ<br>ㄷ | n<br>ㄴ | l<br>ㄹ | ts/ts<br>ㅈ | tʰ/tʰ<br>ㅈ | s/s<br>ㅅ | ʒ<br>ㄷ | k<br>ㄱ | kʰ<br>ㄱ | x<br>ㅎ | Ø<br>ㅇ |
|--------|--------|---------|--------|---|-----|----------|------------|--------|--------|------------|------------|----------|--------|--------|---------|--------|--------|
| a      | 把      | 婆       | 馬      |   |     | 大        | 他          | 那      | 羅      | 查          | *咱         | 娑        |        | 家<br>가 | 軻<br>거  | 夏      | 阿      |

|     |   |   |   |   |   |     |     |   |   |   |   |   |   |   |   |   |   |
|-----|---|---|---|---|---|-----|-----|---|---|---|---|---|---|---|---|---|---|
| ə   |   |   |   |   |   |     |     |   |   |   |   |   |   |   |   |   |   |
| ɿ/ʌ |   |   |   |   |   | 雉   | 恥   |   |   | 子 | 雌 | 時 | 兒 |   |   |   |   |
| i   | 祕 | 批 | 彌 | 緋 | 微 | 地   |     | 你 | 利 |   |   |   |   | 記 | 欺 | 希 | 易 |
| iu  |   |   |   |   |   | (著) | (除) | 女 | 慮 | 主 | 處 | 序 | 如 | 具 | 區 | 虛 | 於 |

비록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개음절 처음자의 경우에는 /·/와 마찬가지로 /ɿ/는 ‘ɿ/ʌ’와도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개음절의 /ɿ/ 표기에는 /—/, /·/와는 다르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 /·/는 ‘ə’와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면서도 ‘ə’와 대응될 수 없는 음절 제약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는 ‘i’와 대응하고, (‘記’[ki]와 ‘그’) /·/는 ‘a’와 대응된다. (‘珂’[kʰa]와 ‘ㄱ’) 그런데 /ɿ/는 ‘ə’와 대응될 수 없는 음절 제약이 있는 경우에 ‘i’와 대응될 수도 있고, (‘欺’[kʰi]와 ‘거’) ‘a’와 대응될 수도 있다. (‘家’[ka]와 ‘거’)

또한 /—/, /·/와 달리 /ɿ/는 후설 원순 모음 ‘u’와도 대응례를 보인다. (‘거’와 ‘具’[kiu], ‘어’와 ‘於’[iu]) 즉, /ɿ/는 ‘ə’ 및 ‘ɿ/ʌ’와 대응될 수 없는 음절 제약이 있을 때 저모음 ‘a’, 고모음 ‘i’, 후설 원순 모음 ‘u’ 모두와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ɿ/의 음가가 무엇인지 유추조차 할 수 없다.

<표 24> 운미 ‘i’ 환경 /ɿ/ 표기

| 운  | 성 | p | pʰ | m | f | m/v | t/t | tʰ/tʰ | n | l | ts/ts | tʃ/tʃ | s/s | ʒ | k | kʰ | x | Ø |
|----|---|---|----|---|---|-----|-----|-------|---|---|-------|-------|-----|---|---|----|---|---|
|    | ㅅ | ㅍ | ㅍ  | ㅁ | ㅍ | ㅁ/ㅂ | ㄷ   | ㅌ     | ㄴ | ㄹ | ㅈ     | ㅊ     | ㅅ   | ㅆ | ㄱ | ㅋ  | ㅌ | ㅇ |
| ai |   | 敗 | 排  | 買 |   |     | 帶   | 泰     | 迺 | 來 | 載     | 采     | 賁   |   | 蓋 | 慨  | 海 | 哀 |
| əi |   |   |    |   |   |     |     |       |   |   |       |       |     |   |   |    |   |   |

운모 ‘əi’가 없는 상황에서 /ɿ/는 어쩔 수 없이 ‘a’로 표기됐다.

<표 25> 운미 ‘m’ 환경 /ɿ/ 표기

| 운   | 성 | p  | pʰ | m | f | m/v | t/t | tʰ/tʰ | n | l | ts/ts | tʃ/tʃ | s/s | ʒ | k | kʰ | x | Ø |
|-----|---|----|----|---|---|-----|-----|-------|---|---|-------|-------|-----|---|---|----|---|---|
|     | ㅅ | ㅍ  | ㅍ  | ㅁ | ㅍ | ㅁ/ㅂ | ㄷ   | ㅌ     | ㄴ | ㄹ | ㅈ     | ㅊ     | ㅅ   | ㅆ | ㄱ | ㅋ  | ㅌ | ㅇ |
| am  |   | *監 |    |   | 凡 |     | 耽   | 貪     | 南 | 纒 | 暫     | 慘     | 三   |   | 甘 | 坎  | 合 | 暗 |
| əm  |   |    |    |   |   |     |     |       |   |   | (簪)   | (讖)   | (森) |   |   |    |   |   |
| iəm |   | 稟  | 品  |   |   |     | (朕) | (彤)   | 賃 | 林 | 斟     | 寢     | 心   | 任 | 錦 | 琴  | 欽 | 音 |

중국어에 ‘범/범’이라는 음절을 표기할 한자가 없기 때문에 ‘監’이라는 한자에 ‘蒲南切’라는 설명을 붙였다. ‘蒲’는 성모 ‘pʰ’를 ‘南’은 운모 ‘am’을 가리킨다.

<표 26> 운미 ‘n’ 환경 /ɿ/ 표기

| 운    | 성 | p | pʰ | m | f | m/v | t/t | tʰ/tʰ | n | l | ts/ts | tʃ/tʃ | s/s | ʒ | k | kʰ | x | Ø |
|------|---|---|----|---|---|-----|-----|-------|---|---|-------|-------|-----|---|---|----|---|---|
|      | ㅅ | ㅍ | ㅍ  | ㅁ | ㅍ | ㅁ/ㅂ | ㄷ   | ㅌ     | ㄴ | ㄹ | ㅈ     | ㅊ     | ㅅ   | ㅆ | ㄱ | ㅋ  | ㅌ | ㅇ |
| an   |   | 板 | 盤  | 萬 | 反 | 萬   | 丹   | 彈     | 難 | 蘭 | 棧     | 餐     | 刪   |   | 干 | 看  | 漢 | 安 |
| ən   |   | 本 | 盆  | 門 | 分 | 文   |     |       |   |   | (臻)   | (榛)   | (莘) |   | 根 | 懇  | 很 | 恩 |
| uən  |   |   |    |   |   |     | 頓   | 屯     | 嫩 | 論 | 尊     | 寸     | 孫   |   | 昆 | 坤  | 昏 | 溫 |
| iuən |   |   |    |   |   |     | (轉) | (傳)   |   | 戀 | 專     | 泉     | 宣   | 軟 | 捲 | 勸  | 玄 | 元 |

|     |   |   |   |  |  |     |     |     |   |   |   |   |   |   |   |   |   |
|-----|---|---|---|--|--|-----|-----|-----|---|---|---|---|---|---|---|---|---|
| ian | 賓 | 頻 | 民 |  |  | (珍) | (陳) | (紉) | 鄰 | 眞 | 親 | 神 | 人 | 斤 | 勤 | 欣 | 印 |
|-----|---|---|---|--|--|-----|-----|-----|---|---|---|---|---|---|---|---|---|

/ɿ/를 ‘ə’나 ‘ɛ’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a’와 ‘i’로 굳이 표기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보면 모음 /ɿ/의 음가는 ‘a’, ‘i’와는 분명 구별되는 듯 보인다. 다만 예가 너무 적어서 이것만으로 /ɿ/의 음가가 ‘ə’에 가까운지 ‘ɛ’에 가까운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어 모음 ‘ɛ’는 중국어 음운 체계에서 이중 모음이나 삼중 모음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라 보기 힘들다.

&lt;표 27&gt; 운미 ‘i’ 환경 /ɿ/ 표기

| 운   | 성 | p | pʰ  | m | f | m/v | t/t | tʰ/tʰ | n   | l | ts/ts | tsʰ/tsʰ | s/s | z | k | kʰ | x   | Ø |
|-----|---|---|-----|---|---|-----|-----|-------|-----|---|-------|---------|-----|---|---|----|-----|---|
|     |   | ㄷ | ㄷʰ  | ㅁ | ㅍ | ㅁ/ㅂ | ㄷ   | ㄷʰ    | ㄴ   | ㄹ | ㅈ     | ㅈʰ      | ㅅ   | ㅈ | ㄱ | ㄱʰ | ㅅ   | ㅇ |
| at  |   | 八 | 潑   | 末 | 發 | 襪   | 達   | 脫     | 捺   | 刺 | 札     | 察       | 薩   |   | 割 | 渴  | 轄   | 闕 |
| ət  |   | 孛 | (曄) | 沒 | 弗 | 物   |     |       |     |   | (櫛)   | (辭)     | (瑟) |   |   |    | (黻) |   |
| iət |   | 弼 | 匹   | 密 |   |     | (秩) | (秩)   | (昵) | 栗 | 疾     | 漆       | 實   | 日 | 吉 | 乞  | (胎) | 逸 |

/ɿ/를 ‘i’로 표기하기는 했으나 이는 ‘kat’라는 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ɿ/는 거의 일관적으로 ‘ie’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나 /ɿ/는 그렇지 못하다. 다만 /ɿ/가 ‘ie’와 대응된다고 해서 /ɿ/의 음가가 ‘ɛ’였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중국어에서 개음 ‘i’가 결합할 수 있는 모음은 ‘a’, ‘ɛ’, ‘ə’ 세 종류인데 그중 ‘ia’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 모음 ‘i’로 쉽게 변화되어 발음된다. ‘ia’의 경우 한국어의 /ɿ/와 대응된다고 한다면 /ɿ/와 ‘ie’의 대응은 필연적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계속 살펴봤듯이 『鷄林類事』 /ɿ/ 표기의 절대적인 수량도 매우 부족하지만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ɿ/의 음가가 전설 모음 ‘ɛ’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鷄林類事』 /ɿ/ 표기에 대한 이 같은 결론은 姜信沆(1980)과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ɿ/의 음가가 무엇이었다고 함부로 주장하지는 못하겠다. 『鷄林類事』의 표기 양상만으로는 고려 방언 /ɿ/의 정확한 음가를 알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 4. 고려 방언 모음 체계

『鷄林類事』에 이용된 중국어 모음 체계는 고려 방언 모음 체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鷄林類事』를 통해 고려 방언의 모음 체계를 정확히 재구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특히 중국어에 원순 모음은 ‘u’ 하나로는 도저히 /ɿ/, /ɿ/의 음가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손목이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중국어의 음절 제약을 이용해 고려 방언 /·/, /-/ , /ɿ/를 『鷄林類事』에서 어떻게 표기하려 했는지는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鷄林類事』에서는 고려 방언 모음 /·/, /-/와 개음 ‘i’가 없는 /ɿ/를 모두 중국어 모음 ‘ə’ 혹은 ‘ɿ/ɿ’로 표기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ɿ/가 ‘a’와 대응되고, /ɿ/가 ‘i’와 대응되는 상황에서 /·/, /-/ , /ɿ/를 ‘a’나 ‘i’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a’, ‘i’ 이외의 모음 ‘ə’, ‘ɿ/ɿ’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고, 손목이 생각하기에 고려 방언 모음 /·/, /-/ , /ɿ/는 실제로 ‘a’나 ‘i’보다는 ‘ə’와 ‘ɿ/ɿ’에 더 가깝게 들렸던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鷄林類事』 당시 손목이 쓰던 중국어에서 모음 ‘ə’, ‘ɿ/ɿ’는 ‘a’와 ‘i’만

큼 다양한 음절에 활용돼 나타나는 모음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음절 제약이 나타나게 되었고 ‘ə’, ‘ɿ/ʌ’와 대응될 수 없게 되자 /·/, /—/, /ɿ/를 어쩔 수 없이 ‘a’, ‘i’, 심지어 ‘u’까지 활용해서 표기하기 시작했다.

/·/는 음절 제약이 있어 ‘ə’, ‘ɿ/ʌ’와 대응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a’와 주로 대응하게 됐다. /—/는 동일 상황에서 ‘i’와 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ɿ/의 경우 ‘a’, ‘i’ 심지어 ‘u’와도 대응됐다. 이중 모음 /ɿ/의 경우 ‘ie’와 비교적 정연하게 대응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 방언 모음 /ɿ/는 전후 고저의 거의 모든 중국어 모음과 대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鷄林類事』의 표기만으로 고려 방언 모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 수는 없지만 각 모음의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다.

개구도가 가장 큰 /ㅏ/[a]와 가장 작은 /ㅣ/[i]가 있을 때 /·/, /—/, /ɿ/ 모두 ‘ə’, ‘ɿ/ʌ’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서로 음가가 비슷했지만 그중에서도 /ㅏ/와 가장 유사한 모음은 /·/였다. /ㅏ/(후설, 저)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모음 /·/가 /—/, /ɿ/보다 상대적으로 후설 모음이거나 저모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ㅣ/와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모음은 /—/다. /ㅣ/(전설, 고)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모음 /—/가 /·/, /ɿ/보다 전설 모음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고모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ɿ/는 /a/와 가장 유사한 중앙 모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중국어 모음 ‘ə’와 대응될 수 없을 때 ‘a’[후설, 저], ‘u’[후설, 고], ‘i’[전설, 고], ‘e’[전설, 저] 모두와 대응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28> 고려 방언 비원순 모음도

|   | 전     | 중 | 후          |
|---|-------|---|------------|
| 고 | ㅣ [i] | — |            |
| 저 |       | ㅏ | ·<br>ㅏ [a] |

## 5. 結論

모음의 조음 위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외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 대응도 어렵기 때문에 그간 『鷄林類事』에 표기된 고려 방언의 모음 체계를 연구하는데 혼선을 빚어왔다.

본고에서는 『鷄林類事』에서 한국어를 표기했던 중국어의 음절 특징을 조사하고 고려 방언의 비원순 모음 /·/, /—/, /ɿ/를 표기하는데 어떤 음절 제약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봤다.

그리고 여러 음절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鷄林類事』에서 비원순 모음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 방언 비원순 모음 간의 상대적 차이도 인지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姜信沆(1980), 『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권인한(2003), 「鷄林類事の 한어음운사적 의의」, 『國語學』42, 3-26.
- 김동소(1998a),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동소(1998b), 「[계림 유사]와 [조선관 역어]의 한국어 모음 체계 연구」, 『한글』242, 7-30.
- 김무림(2006), 「『鷄林類事』의 기저 모음론 - 홍무정운역훈을 참조하여-」, 『地名學』12, 5-31.
- 김현(2015), 「중세(中世) 국어(國語) ‘ㄱ’의 음운론(音韻論)」, 『語文研究』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3.
- 박창원(2000), 「계림유사 <고려방언>의 모음체계(1) -‘ㄹ’을 중심으로」, 『口訣研究』6, 173-199.
- 李基文(1968), 「鷄林類事の 再檢討」, 『東亞文化』8, 205-248.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敦株(2004), 「邵雍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와 宋代漢字音」, 『國語學』43, 3-35.
- 陳泰夏(1975), 『鷄林類事研究』, 光文社.
- 唐作藩(2002),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 唐作藩(2013), 『上古音手冊』, 中華書局.
- 董同龢(1968), 『漢語音韻學』, 學生書局.
- 潘悟雲(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 邵榮芬(1982), 『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 陸志韋(1947), 『古音說略』, 哈佛燕京學社出版.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常務印書館.
- 李新魁(1983), 『《中原音韻》音系研究』, 中州書畫社.
- 李榮(1956),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 張玉來(1999), 『韻略易通研究』, 天津古籍出版社.
- 張玉來(2009), 「再釋內外轉並論及早期韻圖的性質」, 『語言研究』 2009(03), 27-45.
- 周組謨(1966), 『問學集』, 中華書局.
-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趙翠陽(2009), 『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 中國社會科學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이진호 역(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 黃笑山(1995),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文津出版社.
- 黃淬伯(1993), 『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 臺灣常務印書館.
- Bernhard Karlgren(19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Archives d'études orientales publiées par J.A. Lundell, Vol. 15, (趙元任 譯(1940), 『中國音韻學研究』, 常務印書館.



<기획 주제 발표>



## 고양 원각사 소장 보물 제2056호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版本) 연구

하정수(동국대학교)

### 목차

1. 서론
2.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서지(書誌)
3. 『능엄경』의 판본(版本) 비교
4. 결론

### 1. 서론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은 『상원사어첩·중창권선문』으로 세조10년(1464년)에 쓰인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보물 제2056호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에는 석독을 위한 한글이 기입되어 있다.<sup>1)</sup> 이 필사 한글은 『상원사어첩·중창권선문』보다 이른 시기인 1464년 이전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문헌이 최고(最古)의 한글 필사본이 되는 셈이다. 이 책에는 한글 이외에 목서로 기입된 생획자 구결, 정자 구결, 각필, 주석, 부호 및 경문의 수정과 교정 흔적이 있다. 이러한 기입 목서와 수정 사실은 이 문헌을 읽거나 번역하는 작업 즉 석독(釋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결은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해석하면서 읽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문 독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우리 선조는 고대부터 한자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을 발전시켰다. 구결은 신라 시대부터 발달하였는데 처음에는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고 단어의 훈(訓)이나 조사·어미 같은 문법적 요소까지도 우리말로 풀어서 읽는 석독구결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고려 말부터 한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토만 집어넣어 읽는 음독구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을 사용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언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결은 그 표기 방식에 따라 한자 정자 또는 한자 생획자, 한글 등의 문자를 사용한 문자 구결과 점이나 선 또는 부호 등을 사용한 부호 구결로 나뉜다. 문자 구결과 부호 구결은 한문 독법 방식에 따라 우리말 순서로 읽는 석독구결과 한문에 우리말 토를 덧붙여 읽는 음독구결로 나뉜다. 기입한 도구에 따라서 각필 구결과 목서 구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정리한 바 있다.<sup>2)</sup>

갖춘 이름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대승불교(大乘佛教)에서 중요시하는 경전(經典)의 하나로서 ‘대불정수능엄경’,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원각사 소장 『능엄경』은 계환해(戒環解)의 요해서로서 그 내용은 간경도감 불경 언해의 첫 작업인 『능엄경언해』의 저본과 같다. 즉 내용상으로 계환해 즉 『능엄경요해』는 언해 불경의 전범(典範)이 되는 『능엄경언해』와

1) 이 글은 鄭在永·安大鉉·河正秀(2016)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하였고, 최근 발견된 이 문헌의 각필 사진 자료 등을 더하고 대자본 『능엄경』 등 여러 판본 등을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2) 鄭在永(2006:131)에서 차자표기 체계를 정리하여 분류하고, 구결은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해석하면서 읽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문 독법 방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았다.

번역 대본의 관계가 된다.<sup>3)</sup>

이 글은 먼저 이 문헌의 서지를 간략하게 밝히고 목서로 기입된 내용을 중심으로 『능엄경언해』와의 관련이 있는 서지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석독구결과 언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이 문헌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의 저본이 되는 계환의 『능엄경요해』의 고려 말 판본과 조선 초 대자본 판본 등을 비교하여 이 문헌과 『능엄경언해』와 관련성을 판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서지(書誌)

보물 제2056호 원각사 소장 『능엄경』 권1, 2는 계환이 해(解)를 붙인 『楞嚴經要解』를 1401년에 당시 태상왕太上王이었던 태조의 명에 따라 간행한 왕실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물 제759호(권1~10) 및 통도사에 있는 보물 제1195호(권9,10), 기림사 소장 보물 제959-2호와 같은 판본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 소장된 『능엄경』 완질(권1~10)은 동일 판본을 1456년에 인출한 것이다.<sup>4)</sup>



[사진 1] 수결과 주문방인

원각사 소장 『능엄경』에는 개장된 표지 뒤의 내지에 두 개의 수결이 찍어 있고, 급남(及南)이 찬한 서문(序文) 첫 장에 또 다른 수결이 있다. 서문 첫 장에는 주문방인朱文方印도 찍혀 있는데 어떤 한자인지 판독하기 어렵다.<sup>5)</sup> 각권의 권미제(卷尾題) 뒤에는 음석(音釋)이 달려 있는데 여백에 목서로 음석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권성(圈聲)이나 교정 부호 등의 다양한 부호가 사용되었으며 난외(欄外)나 여백에 쓰인 주석(註釋)들도 적지 않다. 이 문헌의 형태서지를 먼저 살펴본 후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 부호, 성점, 보자, 주석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끝으로 『능엄경언해』의 번역 순서를 어제발(御製跋)을 검토하여 이 문헌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1. 형태 서지

이 문헌을 조사한 후 그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의 서지 정보를 간략하게 [표 1], [표 2]로 정리하였다.<sup>6)</sup>

- 3) 안병희(1979)와 안병희(1997)에서 능엄경 언해가 간경도감 언해서의 전범이 되었지만 이는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것으로 서문(序文)의 장차, 한자독음표시 등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 4)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문헌도 우리말 석독을 위한 한글 표기와 종이를 이용한 수정, 음독구결의 교정 등이 원각사 소장 문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정수(2020)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문헌에서 1401년 발문 뒤에 있는 1456년 학조(學祖)이 발문은 ‘首楞嚴王諸經之骨髓修證之正路所以開/發眼目饒益人天者也我/東宮嬪韓氏爲先考妣印出是經二十五部裝/潢備飾流布無窮以成經之勝緣因法施之/大願蒙益先靈超生淨域四生三有同霑利//樂良可期矣/景泰七年丙子十月 日山人學祖 謹跋’(/ 개행 표기 및 밑줄 필자)이다.
- 5) [사진 1]에서 급남 찬 서문 첫 장에 찍힌 수결(手決)과 주문방인(朱文方印)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이 수결의 위치와 서체로 볼 때 계양군(桂陽君) 등 왕실 종친의 수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표 1] 제목 정보, 저자 정보, 발행 정보

|     |                      |
|-----|----------------------|
| 책명  | 首楞嚴經要解               |
| 권수제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 표제  | 無(표지 추가 裝幀)          |
| 서제  | 首楞嚴經要解序              |
| 판심제 | 楞                    |
| 저역자 | 般刺密諦(唐) 譯 ; 戒環(宋) 解  |
| 판종  | 木版本                  |
| 발행지 | 不明                   |
| 발행자 | 不明                   |
| 발행년 | 1401年(太宗 1)          |

[표 2] 형태 정보 및 주기 정보

|        |                                                                           |
|--------|---------------------------------------------------------------------------|
| 장정     | 線裝                                                                        |
| 권사항    | 卷1-2                                                                      |
| 장수     | 98張(序: 張次 第1-2(右)張 / 卷1: 張次 第2(左)-46張 / 卷2: 張次 第1-52張)                    |
| 광곽 형태  | 四周雙邊                                                                      |
| 광곽 종류  | 全郭                                                                        |
| 광곽 크기  | 26.9×35.9cm                                                               |
| 계선     | 無界                                                                        |
| 행자수    | 8行 20字                                                                    |
| 주표기    | 註雙行 / 音釋雙行 / 欄內書 / 欄外書                                                    |
| 책크기    | 38.3×22.5cm                                                               |
| 지질     | 楮紙                                                                        |
| 현도표점방점 | 墨書懸吐                                                                      |
| 인장     | 판정불가(序文 1개, 사각朱印, 6.8×4.9cm)                                              |
| 주기 상세  | 1. 卷1, 卷2 말미에 音釋이 墨書로 추가되어 있음.<br>2. 앞 속지 우측 하단에 소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결이 쓰여 있음. |

- 6) 이 서지사항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content/seoji?dataId=ABC\\_NC\\_02818\\_0001](https://kabc.dongguk.edu/content/seoji?dataId=ABC_NC_02818_0001))의 이 문헌의 서지 정보를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2017:178)의 내용을 참조하고, 이전의 자료 조사와 2022년 1월 22일, 28일 자료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                                                                                                               |
|--|---------------------------------------------------------------------------------------------------------------|
|  | 3. 본문 좌측에 一, 二 등 석독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난상 및 본문에는 한글로 토가 달려 있음.<br>4. 角筆로 패선과 구결 등의 문자 기입된 곳이 있고, 종이를 붙여 수정한 곳이 있음. |
|--|---------------------------------------------------------------------------------------------------------------|

[표 1]의 발행 연도는 동일한 판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759호와 양산 통도사 소장 보물 1195호의 권10 말미에 공히 있는 간기인 “建文三年辛巳五月 日”을 통해 추정할 것이다. 이 책은 2020년 1월 6일 보물 제2056호로 지정되었다. 이 문헌은 총 10권 5책으로 구성된 전집 중 권1~2에 해당하는 1책의 낙질이다. 이 판본은 당시 태상왕(太上王)으로 있던 태조가 승려 신충(信聰)에게 큰 글씨[大字]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태종 1)년에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판각된 이후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 판본의 전집인 보물 제759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일부 결락된 장수(張數)를 보완해 준다. 이 책의 본문 좌우측에 한수자(漢數字) 등 본문 해석을 돕기 위한 석독지시부호와 석독구결(釋讀口訣)의 사례가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구결 등의 목서 기록은 이 자료의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책은 늦어도 15세기경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고, 교정 흔적은 간경도감(刊經都監) 언해본 간행과 관련되었다. 또한 이후 세조 2년(1456)에 인쇄된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본과 기입 구결 및 주석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2.2. 구결

이 문헌에는 정자 구결, 생획 구결, 한글 등의 목서와 교정용 종이가 빼곡히 달려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결이 기입된 자료로는 鄭在永(2006)에 소개된 불갑사(佛甲寺) 소장 화암사판(花岩寺版) 『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南權熙(2012)에 소개된 개인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하정수(2020)에서 소개된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 등이 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 문헌에 목서로 기입된 구결과 한글 등을 살펴본 결과 1461년에 교서관에서 을해자로 간행하고 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번역에 이용된 저본(底本) 가능성이 대두되었다.<sup>7)</sup>

이 문헌은 전체에 구결이 달려 있고, 구결을 교정할 때 사용한 종이가 많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밀하게 교정이 이루어진 것은 다른 구결 자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중요한 특징이다. 이 문헌에는 여러 층위의 구결이 기입되어 있고 종이를 붙이거나 물로 지우거나 칼로 긁어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구결의 체계가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음독구결과 석독구결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 2.2.1. 음독구결

이 문헌의 음독구결은 박진호(1996)에서 14세기 이전의 언어사실을 반영한 자료로 판단한 가람본 『능엄경』 권1~5의 음독구결과 비슷한 계통의 차자구결이 맨 처음 기입되어 있다. 이 구결은 가는 필체로 씌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우고 교서관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 활자본 및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 목판본의 한글 구결과 비슷한 조선 초기의 음독구결을 기입하였으며, 그것의 위치나 자형을 다시 교정하여 기입된 구결도 있다. 언해본과

7) 이 문헌에 나타나는 『능엄경언해』에 없는 주석을 썼다가 지운 부분, 『능엄경언해』의 한글 주석이 한문이나 구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글 자형 등이 이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다.



(圓覺寺本 『楞嚴經』 釋讀口訣)

나. 義學<sub>ㄷ1</sub> {之}徒<sub>ㄴ</sub> 多聞<sub>ㄷ</sub> {虛}속절업시 {驕}잘카냥<sub>ㄴ</sub> 道力<sub>ㄷ</sub> 全<sub>ㄴ</sub> {不}문<sub>ㄴ</sub> (圓覺寺本 『楞嚴經』 釋讀口訣 釋讀)

### (3) 언해문과 현대어 번역

가. 뜯 비호는 무리 해 드로몰 속절업시 잘카냥<sub>ㄴ</sub>야 道力을 올오디 문<sub>ㄴ</sub>야(『楞嚴經諺解』 諺解文)

나. 뜻 배우는 무리가 많이 듣는 것을 부질없이 자랑하여 도력을 완전히 하지 못하여(현대어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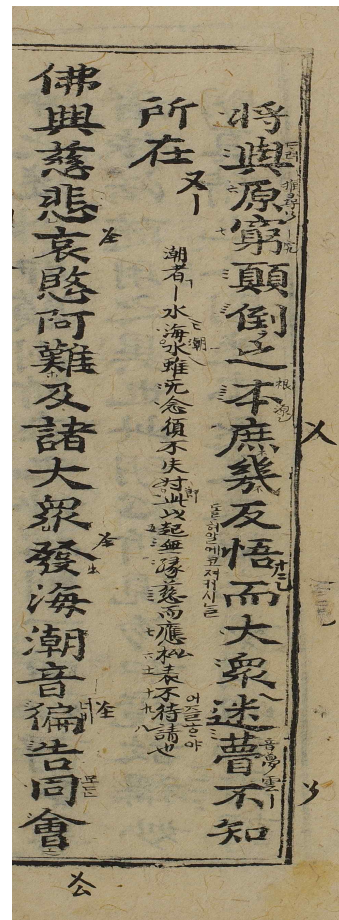
(1)은 이 문헌의 음독구결을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과 비교한 것이고, (2가)는 이 문헌에 기입된 석독구결을 문면대로 전사한 것이고, (2나)는 이에 대하여 글자 왼쪽에 작게 찍혀 있는 一點에서 四點의 순서에 따라 해독한 석독 풀이이다. (3)은 해당 구결에 해당하는 언해문과 그 현대어 번역이다. 이 문헌의 음독구결은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과 거의 같고, 석독구결은 『능엄경언해』의 언해문과 거의 같다. 이로써 이 문헌의 석독구결과 『능엄경언해』의 언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2.3. 부호

이 문헌에는 다양한 부호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석독구결에서 논의한 우리말의 어순에 따른 석독의 순서를 지시하는 부호, 한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읽지 않는 부독자(不讀字)임을 나타내는 부호, 한자의 성조(聲調)가 달라 뜻이 달라지는 것을 표시하는 부호, 빠진 글자를 보충할 때 사용하는 보자(補字) 부호, 주석(註釋)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 등이다. 보자와 주석은 절을 달리하여 2.5와 2.6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석독순서지시부호, 부독 부호, 기타 부호 등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 2.3.1 석독순서지시부호

이 문헌에는 석독순서지시부호를 사용하여 석독의 순서를 정밀하고 꼼꼼하게 표현하였다. 석독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부호는 글자의 왼쪽 위에 작은 점을 찍거나 작은 한수자를 써서 나타내었다. 점은 하나에서 여섯 개까지 찍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네 개 정도까지는 점으로 나타내었고, 그 이상으로 필요한 순서를 나타낼 경우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를 작게 써넣었다. 석독이 길고 복잡한 것은 十一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두 글자가 하나의 단위로 쓰일 때는 두 글자의 사이 중간 위치에 부호를 써넣었다. [사진 4]는 이 문헌의 2권 7장 앞면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오른쪽 첫 행의 석독순서지시부호가 쓰인 부분을 목판본 『능엄경언해』 부분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사진 4] 2권 7장 앞면

(2) 권2 7장 앞면 1~행 해당 『능엄경언해』 구결문과 언해문<sup>11)</sup>

가. 요해 구결문: 將與原窮顛倒之本<sub>하</sub>사 庶幾反悟<sub>하</sub> 어시<sub>하</sub>늘 而大衆이 迷<sub>하</sub>야 不知所在로다  
(권2 15장 앞면)

나. 요해 언해문: 장초 드러 顛倒의 根源을 推尋<sub>하</sub>야 窮究<sub>하</sub>사 도르<sub>하</sub> 알에 코져 커시<sub>하</sub>늘 大衆이 어즐<sub>하</sub>야 잇는 덜 아디 몰도다(권2 15장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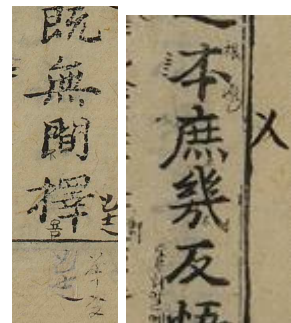
다. 경문 구결문: 佛興慈悲<sub>하</sub>사 哀愍阿難及諸大衆<sub>하</sub>사 發海潮音<sub>하</sub>사 遍告同會<sub>하</sub>사디(권2 15장 뒷면)

라. 경문 언해문: 부테 慈悲를 니르와드<sub>하</sub>사 阿難과 모든 大衆을 어엿비 너기<sub>하</sub>사 海潮音을 내사  
【潮는 밀드리니 바를 밀드리 念 업수더 모로매 時節을 일티 아니<sub>하</sub>느니 이는 緣 업슨 慈悲로 機를 應<sub>하</sub>야 니르사 請 기드리디 아니<sub>하</sub>사물 表<sub>하</sub>느니라】 모든 會에 너비 니르사  
디(권2 15장 뒷면)

[사진 4]에서는 경문뿐 아니라 2행 아래에 기입된 주석문에서도 석독순서지시부호의 기능이 잘 드러난다. 먼저 경문 ‘將與原窮顛倒之本’의 각 한자 옆에 기입된 작은 점과 한자는 석독 순서를 나타낸다. 즉 해당 문장은 ‘1-2-6-7-3-4-5’의 순서로 읽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때 ‘之’는 조사 ‘의’로 실현되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장을 석독 순서에 따라 한자를 재배열하면 ‘將與顛倒{之}本原窮’로 되어 ‘장초 드러 顛倒의 根源을 推尋<sub>하</sub>야 窮究<sub>하</sub>사’의 언해 순서와 일치한다. 이어서 2행 아래에 기입된 묵서 주석 부분을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海潮音’의 내용에 관한 주석, ‘瞿’의 독음이 ‘몽’임을 나타내 주는 독음에 대한 주석을 ‘夢’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주석 자체에 대한 석독순서지시부호, 주석에서 빠진 글자의 보자 부호 등을 함께 보여 준다. 첫 행에 기입된 글자에 대한 주석으로 ‘原, 窮, 本’의 옆에 각각 ‘推尋, -究, 根源’이 쓰여 있다. (2다)와 (2라)는 2행의 아래에 묵서로 기입된 부분이 3행의 경문의 언해에서 협주 내용으로 나타난 것을 보인 것이다.

## 2.3.2. 부독(不讀) 지시부호

[사진 5]는 권1 12장 뒷면 5행의 일부이고, [사진 6]은 앞의 [사진 4]의 ‘庶幾’ 두 글자를 확대한 것이다. ‘庶’와 ‘幾’ 글자 내부의 아래쪽에 작은 ‘不’자 부호가 있다. 이 부호는 해당 글자의 부독(不讀)을 지시하는 부호로 파악된다. 한문 해석이나 번역에서 해당 글자를 번역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는 부호이다. 이 부호가 있는 곳의 언해문은 해당 글자가 번역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의 언해를 권1의 ‘間’의 예를 제시하고, 권2는 ‘庶幾’를 (2가)에서 다시 가져와 제시한 다음 지금까지 파악한 부독 지시부호가 나타난 곳의 목록을 제시한다.



[사진 5] [사진 6]

## (3) 권1 12장 뒷면 5행 ‘間’

가. 요해 구결문: 阿難이 既無<sub>하</sub>揀<sup>12)</sup>擇<sub>하</sub>홀시 所謂誤墮也<sub>하</sub> 라(권1 33장 앞면)

11) 언해문의 한자음과 방점 표기는 생략하여 제시한다.

나. 요해 언해문: 阿難이 何마 苦行을 업슬씨 외오 둔 고디라(권1 33장 앞면)

다. 요해 현대어역: 아난이 이미 가림 없으므로 그릇 떨어진 곳이다.

(4) 권2 7장 앞면 1행 ‘庶幾’

가. 요해 구결문: 將與原窮顛倒之本<sub>하</sub>사 庶幾反悟<sub>하</sub> 어시닐(권2 15장 앞면)

나. 요해 언해문: 장차 드러 顛倒의 根源을 推尋<sub>하</sub>야 窮究<sub>하</sub>사 도르혀 알에 코져 커시닐(권2 15장 앞면)

다. 요해 현대어역: 장차 데리고 전도의 근원을 추심하고 궁구하시어 돌이켜 알게 하고자 하 시거늘

(5) 부독지시부호(不) 목록

가. 권1: 間(12ㄴ:5행), 得(15ㄴ:7행), 得(21ㄴ:5행), 得(23ㄴ:5행), 得(24ㄴ:1행), 我(35ㄴ:6행), 已(37ㄴ:8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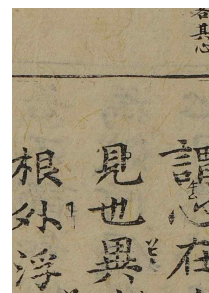
나. 권2: 見(2ㄴ:5행), 得(3ㄴ:3행), 夫(6ㄴ:4행), 庶(7ㄴ:1행), 幾(7ㄴ:1행), 爾(9ㄴ:2행), 唯(20ㄴ:1행), 爲(24ㄴ:2행), 爲(25ㄴ:6행), 爲(25ㄴ:6행), 周(44ㄴ:4행)

### 2.3.3. 권점, 음주, 훈주, 삭제, 위치 변동부호

이 책에 나타나는 주석들 중에는 언해본의 협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난상이나 난외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분에 작은 권점을 기입하여 이 권점이 해당 주석과 관련되는 곳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글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간단히 글자 옆에 해당 부분에서 풀이되는 글자의 뜻을 기입한다. 독음과 관련한 부호로는 글자의 옆에 ‘音’ 또는 ‘音’이라 쓰고 그 아래에 해당 음에 대한 주석을 기입한다.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닌 어려운 글자는 난상에 해당 글자를 쓰고 그에 대한 음주(音註)나 훈주(訓註) 등을 기입한다. 이 밖에도 글자를 삭제하고 다른 글자를 써넣은 것을 지시하는 사선 모양의 삭제 부호, 글자의 상하 순서를 바꿀 것을 지시하는 작은 글씨의 ‘上下’ 부호 등이 나타난다.

## 2.4. 성점

성점은 권점을 글자의 네 귀퉁이 또는 모서리 중간에 기입하여 해당 글자의 독음과 뜻이 다름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현재까지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파악된 성점이 기입된 글자는 易, 見, 爲이다. ‘易’는 ‘쉽다’의 뜻을 가지는 것 4개 중 3개에 성점 표시인 권점이 글자 오른쪽 중간에 기입되어 있다. [사진 7]의 18장 뒷면 5행의 見은 ‘見’에 성점이 기입된 유일한 예이다. 이때 ‘보다’의 뜻이 아닌 ‘나타나다’를 의미하고 『능엄경언해』에서도 ‘나토니라’로 언해되었다. 爲는 ‘위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14회 중 13회에서 성점이 쓰이고 있다. 성점이 기입된 위치는 오른쪽 위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성점이 나타난 글자가 있는 곳을 (6)에 정리하였다.



[사진 7]

12) 『능엄경언해』는 ‘既無揀擇’으로 ‘間’이 ‘揀’으로 바뀌어 있다. 이 부분은 ‘間’과 ‘揀’의 음이 같고 ‘簡擇’과 ‘揀擇’의 의미도 서로 통한다는 관점에서 통용자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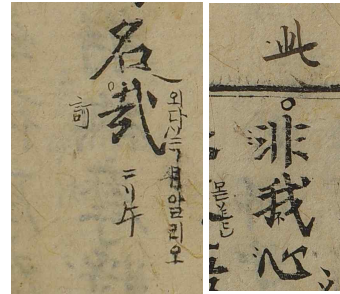
## (6) 권별 성점 출현 현황

가. 권1: 易(13ㄱ:4행, 45ㄴ:8행, 46ㄱ:3행), 見(18ㄴ:5행) 爲(7ㄱ:1행, 11ㄴ:6행, 39ㄴ:6행, 42ㄴ:2행, 42ㄴ:5행)

나. 권2: 爲(17ㄱ:5행, 23ㄱ:4행, 26ㄴ:7행, 27ㄱ:1행, 32ㄱ:6행, 32ㄴ:7행, 37ㄱ:1행, 52ㄴ:5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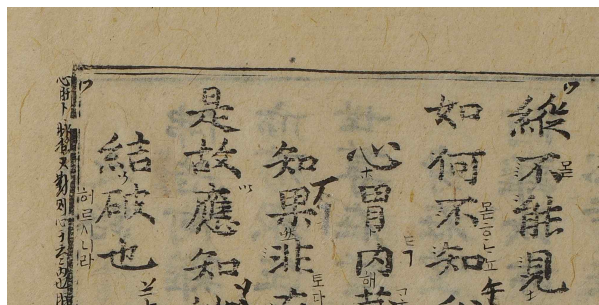
## 2.5. 보자

보자(補字) 표시 부호는 글자의 보충을 표시하는 것으로 빠진 글자가 보충되어야 하는 곳에 권점이 기입되어 있다. 권점의 위아래, 좌우 난외에 보충되어야 할 글자를 써넣었다. 이 책에서 권점이 표시된 위치에 보충된 글자는 『능엄경언해』에 대체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를 [사진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왼쪽 사진을 보면 권점으로 ‘哉’의 왼쪽 위에 보자 부호를 표시하고 왼쪽 옆에 ‘訶’를 써넣은 부분(1권 13장 앞면 7행)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非 위에 권점으로 보자를 표시하고 바로 위 난상에 ‘此’를 써넣은 부분(1권 35장 앞면 6행)이 나타난다. 이때 ‘非我’의 ‘我’에 부독 부호 ‘不’이 작게 적혀 있다.<sup>13)</sup> 다음 절의 [그림 10]의 경우에도 ‘食’ [사진 8] 보자 표시 부호자(1권 21장 뒷면 7행) 아래에 권점으로 보자를 표시하고 그 오른쪽 옆에 ‘等’字를 써넣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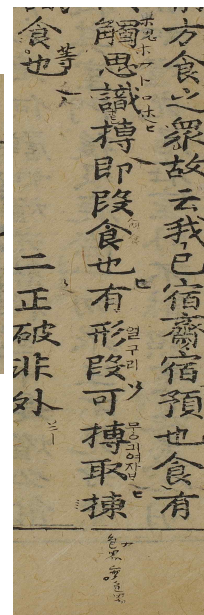


## 2.6. 주석

이 책에는 목서로 주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ㄱ’ 모양의 부호가 쓰였다. 이 부호는 변란 밖이나 변란 안의 빈 공간에 쓰인 주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준다. [사진 9]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부호가 변란 모서리 안쪽에 기입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부호 옆의 변란 밖에 주석이 쓰여 있고, 왼쪽 난외에 쓰인 주석은 오른쪽의 주석 부호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주석임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사진 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난하의 기입된 주석의 ‘色界’ 오른쪽에 있는 부호와 ‘無色界’의 왼쪽에 있는 부호가 있는 바로 위 행의 경문 중 ‘思’의 오른쪽과 ‘識’의 오른쪽에 같은 모양으로 기입되어 있어 이 둘



[사진 9]



[사진 10]

13) 보자인 ‘此’에 석독순서지시부호 1점이 다음 ‘非’에 3점, ‘我’에 부독 표시, ‘心’에 이점이 찍혀 있다.

이 순서로 교정을 해 보면 목판본 『능엄경언해』와 ‘此非心’과 같게 된다.

14) 이 부분은 다른 판본에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4장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 서로 관련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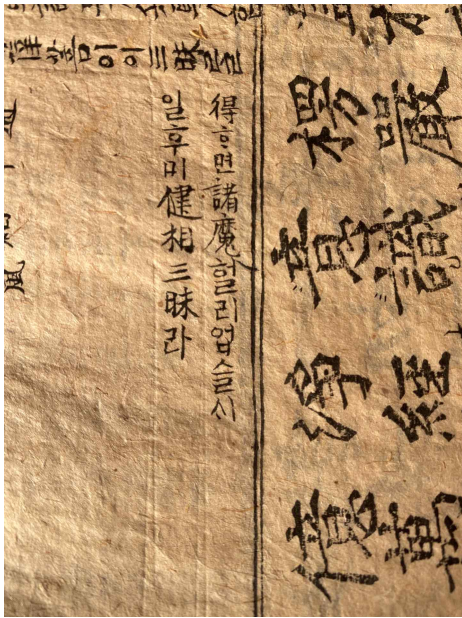
이 책에는 변란의 바깥 또는 행 사이의 빈 공간에 내용과 관한 주석이 하나 이상의 필체로 기입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권1의 권수제 앞의 표지 뒤에도 ‘大佛頂首楞嚴經’의 각 글자의 뜻을 설명해 주는 주석이 기입되어 있다.<sup>15)</sup> 본문에서도 본문 내용과 관련한 계송, 七言古詩 등의 형식을 가지는 주석이 다양한 위치에 기입되어 있다.<sup>16)</sup> 주석 내용 중에는 현재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권1의 7장 앞면의 난상에 있는 ‘精見者眞性覺塵濁而不雜精也涉萬殊而不異妙也又此見本乎妙精明心精 依用也指體故曰見精依體用故曰精見’과 같이 그 내용이 능엄경 연관 문헌인 『楞嚴經纂註』 등에서 검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권1 11장 앞면 난상에 있는 ‘自恣 九旬之內 人多迷己 不自見過 僧氣過 內彰無私隱’에서는 ‘自恣’에 대한 주석으로 이는 『翻譯名義集』 권4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주석 중에는 목판본 『능엄경언해』의 본문이나 협주 등에 번역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다. 주석 중 특이한 것으로는 권2 25장 뒷면 난외에 기입된 ‘莊子云’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莊子의 일부 내용이 기입된 것이다. 이 밖에도 권2 25면 앞면의 난외에 기입된 ‘舊家解云’으로 시작되는 것은 당시 참고한 문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2.7. 각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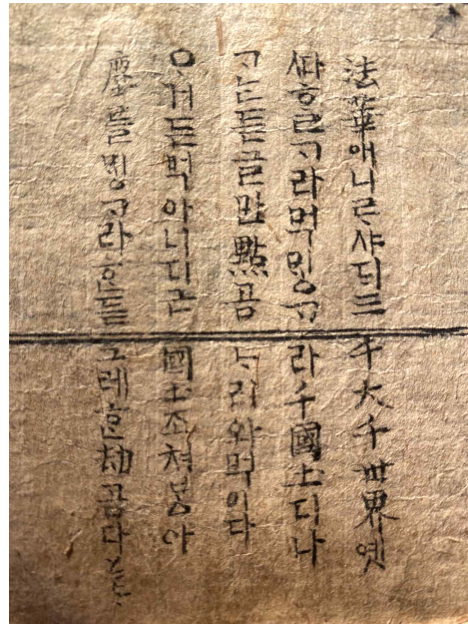
이 문헌에는 조선 초기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각필 사용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유형을 구분하면 각필 패선과 각필 구결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사진들을 살펴보자.

15) 표지 뒷면 경명 글자 설명 大者含裏十方覆蔭萬物爲義/佛者自他覺滿清淨無染爲義/頂者相盡名忘無相無見爲義/首者首出眞如應用萬物爲義/楞者妙絕名言無方無圓卽染卽淨爲義/嚴者体無長短無去無來不嚴而嚴爲義/經者徑也成佛之正路也(/는 개행 표시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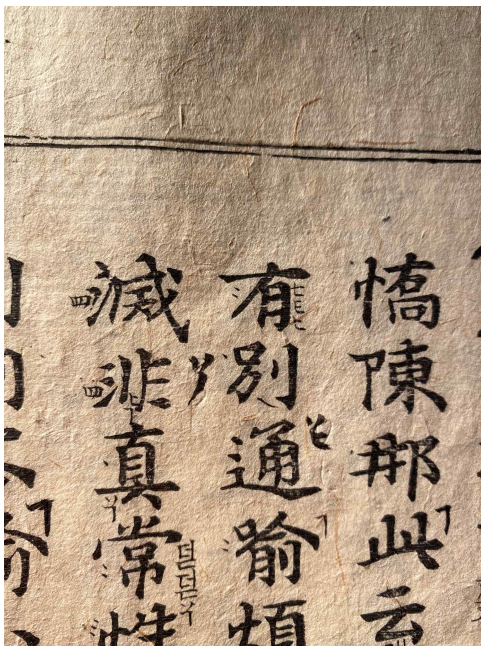
16) ‘義者中道第一義 智者照了之心 識者妄想之心 法者實相及助道法 人者五陰生滅’(권1 1장 뒷면 난상), ‘無上涅槃萬物通 不雉分別世間中 於分別處無分相 長短青黃扇古風’(권1 2장 앞면 난상), ‘敬喜當年色未空 室羅城畔愛花紅 寒山若不傳心呪 應凚于今釋子風’(권 13 뒷면 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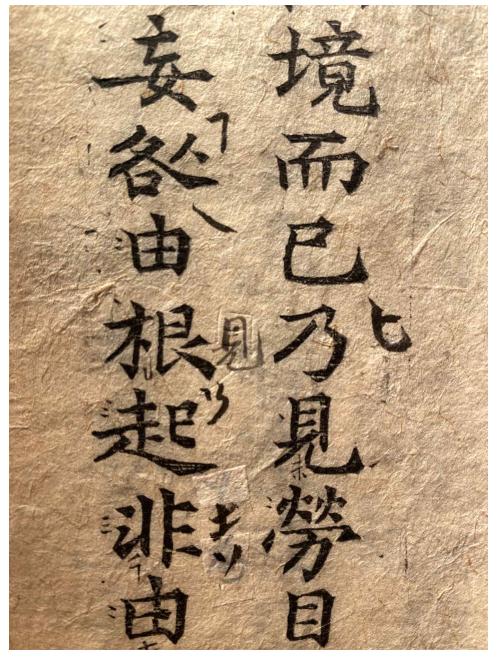
[사진 11] 권1 2장 뒷면 난상



[사진 12] 권1 2장 뒷면 난하



[사진 13] 권2 20장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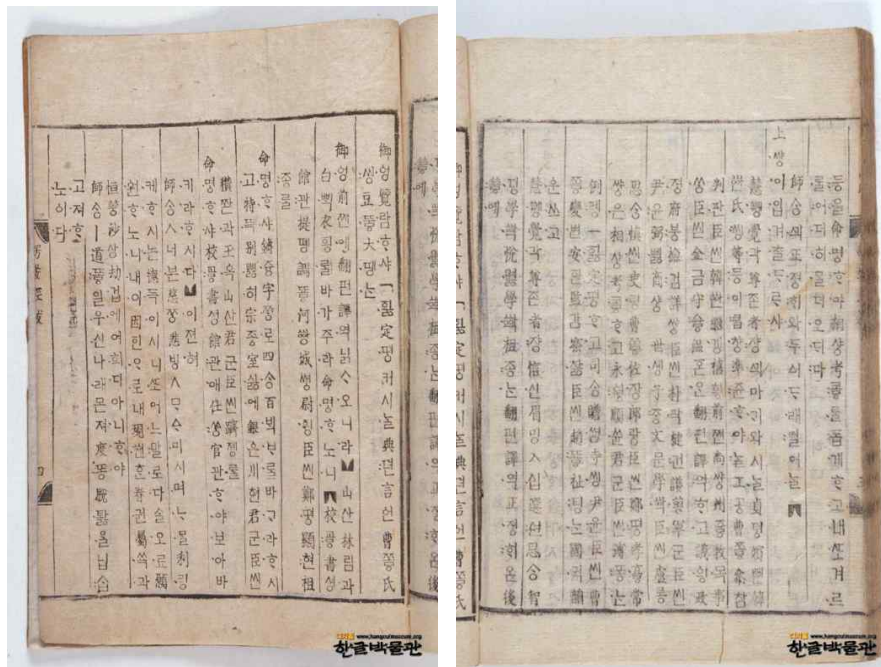


[사진 14] 권2 37장 앞면

[사진 11]과 [사진 12]는 각필로 그어진 패선이다. 이 패선은 한글과 주석을 기입할 때 줄을 맞춰 주는 기능을 한다. [사진 13]과 [사진 14]는 이 문헌에 기입된 각필 구결의 예이다. 묵서 구결과 동일한 형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같이 나타난다. 이 문헌에 기입된 각필 구결과 묵서 구결을 살펴보면 각필 위로 묵서가 지나간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묵서 구결보다 각필 구결이 먼저 기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2.8. 『능엄경언해』의 번역 과정과 번역 순서

원각사 소장 『능엄경』은 교서관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 활자본과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 목판본과 구결의 교정 양상 및 한글의 자형 등과 주석의 내용 등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여 『능엄경언해』가 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능엄경언해』 권10의 말미에 어제발(御製跋)을 살펴보자.



[사진 15] 『능엄경언해』 권10 말미 御製跋

[사진 15]는 『능엄경언해』 권10의 권말 어제발이다. 언해본이 간행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 발문에 있는 내용에 따라 언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7)</sup>

### (7) 『능엄경언해』 御製跋 의 나타난 언해 순서

- ① 세종이 1438년에 『능엄경』을 읽어보고 나서 1449년에 수양대군에게 번역을 명함.
- ② 세조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번역을 못하다가 1461년 석가의 분신사리 100여 개가 나타난 일과 효령대군의 권유로 구결을 달고 언해 사업 착수.
- ③ 한계희韓繼禧, 김수온金守溫 등에 명하여 구결에 따라 번역하게 하고 신미信眉 등의 질정을 받게 함.
- ④ 박건朴楗,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정효상鄭孝常, 정빈한씨貞嬪韓氏 등이 번역 원고의 수정과 교정 작업에 참여함.
- ⑤ 영순군永順君 부溥가 예문을 일정하게 함.
- ⑥ 조변안曹變安과 조지趙祉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함.
- ⑦ 신미信眉, 사지思智, 학열學列, 학조學祖 등이 번역을 바로잡음.
- ⑧ 세조가 이루어진 번역을 보고 확정함.
- ⑨ 전언典言 조씨두대曹氏豆大가 세조 앞에서 번역을 읽어드림.

17) 安秉禧(1997:5-6)에 언해 순서를 어제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9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원각사 소장 『능엄경』 권1, 2는 앞서 살펴본바, 구결의 수정, 번역을 위한 한글 기입 등 ⑥의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 이전까지의 연해 순서와 그 과정이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책이 당시 『능엄경언해』에 쓰인 실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3. 『능엄경』의 판본 비교

#### 3.1. 한문본 『능엄경』의 판본

우리나라에 『능엄경』이 전래된 시기는 신라 시대로 추정된다.<sup>18)</sup> 趙明濟(1988: 18-19)에서는 고려 시대 『능엄경』의 확산은 이자현(李資玄 1061~1125)에 의한 것으로, 그의 사상이 제자인 혜조(慧照)와 탄연(坦然)에 계승되었고, 계환(戒環)의 주석서인 『능엄경요해』가 유입된 것은 탄연(坦然)이 송(宋)의 선승(禪僧)들과 교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계환의 『능엄경요해』가 전래된 이후 고려 시대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 주도의 간행이 있었고 세종 연간에는 성달생(成達生) 서체의 판본이 유행하고, 세조 대에 언해본인 『능엄경언해』가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고 이전 판본의 번각이 이루어져 유통된 것은 계환의 『능엄경요해』가 주를 이루었다.<sup>19)</sup> 현존하는 판본들을 중심으로 고려 시대로부터 17세기까지 간행된 한문본 『능엄경』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 (8) 고려 시대 간행본

- ① 1235년(고종 22) 李勝光 등이 판각한 경판
- ② 1370년(공민왕 19) 인쇄본과 그 저본으로 추정되는 1309년(충선왕 1)본
- ③ 1372년(공민왕 21) 인쇄본과 그 후쇄본
- ④ 13세기 이전에 간행 추정본

##### (9) 15세기 간행본

- ① 1401년(태종 1) 태조가 信聰에게 명하여 대자로 쓰게 하고 판각한 것
- ② 세종 연간에 成達生(1376~1444)에게 쓰게 하여 1433년(세종 15) 간행한 초각본과 1443년 간행본
- ③ 1456년 학조 발문이 있는 1401년(태종 1) 후쇄본
- ④ 1488년(성종 19) 당대 명필인 朴耕(?~1507)이 글씨를 쓰고 충청도 鴻山 無量寺에서 홍산현감 등의 시주로 간행한 목판본

18) 郭東和・姜順愛(2008:260)에서 우리나라에 『능엄경』이 전래 시기에 대해 신라 지증대사(智証大師 824~882)의 원조탑(寂照塔) 비명(碑銘)에서 卷4의 일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점과 그의 법손 원오(圓悟)의 탑명에 절의 원주인 예백(芮帛)이 『능엄경』을 항상 독송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보아 신라 시대에 이미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이유를 신라 말기 당나라 유학승들이 선법(禪法)을 전래할 때 함께 전래된 것으로 보았다.

19) 金惠瓊(1999:72-73)는 계환의 『능엄경요해』가 유행한 이유를 이 책이 내용이 쉽고 선(禪)적인 경향으로 해석이 되었고, 주역(周易)을 원용하는 등 성리학파 사상적 연관성을 갖고 있어 불교계뿐 아니라 유교계까지 확산되어 널리 읽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20) 남권희(2014:197-198)에서 옥영정(2008:17)을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을 1456년 간행본 등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⑤ 1489년(성종 20) 황해도 慈悲嶺寺 간행본

(10) 16-17세기 간본

① 1547년(명종 2) 황해도 石頭寺 간행본

② 1559년(명종 14) 황해도 星宿寺 간행본

③ 1609년(광해군 1) 순천 松廣寺 간행본, 문경 圓寂寺 간행본

④ 1635년(인조 13) 태인 龍藏寺 간행본(1401판 복각본)<sup>21)</sup>

⑤ 1672년(현종 13) 양산 雲興寺 간행본

⑥ 1682년(숙종 8) 묘향산 普賢寺 간행본

⑦ 1692년(숙종 18) 전라도 龍興寺 간행본(대자 능엄경(1401년)을 기준으로 후에 새로 새긴 판본으로 추정)

위의 문헌 중에서 『능엄경언해』 이전의 것으로는 고려 시대의 것과 조선 초기 15세기 간행본 중 위의 (9)의 ①, ②, ③, 세 판본이 해당된다. 원각사 소장 『능엄경』은 1401년 간행된 대자본으로는 그 후쇄본과 1635년 복각본이 있다. 다음 절에서 이들 문헌 중 구결 자료인 고려 시대 판본 2종과 1401년 판각 대자본과 그 복각본을 대상으로 형태서지와 경문의 교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3.2. 『능엄경』의 판본 비교

『능엄경언해』의 번역 대본이 되었던 판본은 1461년 활자본이 간행되기 이전의 판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전 판본인 고려본 능엄경 2종과 1401년 신충 판하 대자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책 크기와 광곽(반곽) 크기를 비교하고 원각사 소장 『능엄경』에 나타난 경문 교정 부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sup>22)</sup>

[표 3] 한문본 『능엄경요해』 판본 크기

| 구분                | 간행연<br>도   | 권수                | 책크기(cm)   | 匡郭크기(cm)      |
|-------------------|------------|-------------------|-----------|---------------|
| 고려본 남권회본(남채문고본)   | 13세기<br>이전 | 10권 5책 완질         | 24.8×16.3 | 19.3×13.0(半郭) |
| 고려본 소곡본(구 박동섭본)   | 13세기<br>이전 | 10권 5책 완질         | 24.0×14.0 | 19.4×11.9(半郭) |
| 원각사 소장            | 1401       | 권1, 권2            | 38.3×22.5 | 26.9×35.9(匡郭) |
| 국립중앙박물관<br>(송성문본) | 1401       | 10권 5책 완질         | 38.2×22.5 | 27.0×18.5(半郭) |
| 기림사 소장            | 1401       | 권2, 권3, 권4<br>포배장 | 37.2×21.0 | 26.7×18.0(半郭) |

21) 郭東和·姜順愛(2008:272-273)에 따르면 이 판본 3종이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영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10권 전질이 남아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되어 해당 문헌의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22) 고려본에 대한 서지사항은 남권회(2014)와 이승재(1995)를 참조하였고, 1401년 간본 및 복각본은 이들 자료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동국대학교 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경상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프랑스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한 서지 정보를 정리하였다.

|             |      |                            |           |               |
|-------------|------|----------------------------|-----------|---------------|
| 통도사 소장      | 1401 | 권9, 권10                    | 33.4×20.8 | 27.5×18.4(半郭) |
|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 1456 | 10권 5책 완질                  | 38.0×22.0 | 26.9×17.9(半郭) |
| 이화여대 도서관    | 1635 | 10권 5책 완질                  | 36.1×23.0 | 24.8×18.3(半郭) |
| 동국대 도서관     | 1635 | 권3, 권4, 권7,<br>권8, 권9, 권10 | 34.5×22.5 | 23.8×17.5(半郭) |
| 경상대 도서관     | 1635 | 권8, 권9, 권10                | 35.0×23.4 | 26.0×16.9(半郭) |
| 대흥사 소장본     | 1692 | 권3, 권10                    | 35.7×23.4 | 24.6×17.4(半郭) |

판본의 크기 비교 결과 1401년 대자본 『능엄경』은 권1, 권2의 반곽의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26.7~27.0cm으로 0.3cm의 차이가 있고, 통도사 소장본은 27.5cm로 다른 판본과 0.5~0.8cm의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은 26.9cm로 원각사 소장본과 크기가 같다. 1635년 번각본은 반곽의 세로 길이가 23.8~26.0으로 2.2cm의 차이가 보이고 1401년 대자본과는 최소 0.7cm 최대 3.2cm의 차이를 보인다. 1692년 간행본은 24.6cm 반곽의 세로 길이가 가장 작다.<sup>23)</sup>

원각사 소장 『능엄경』에는 경문과 요해의 글자에 대한 교정과 보자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이 중 권1에 나타난 5개의 예를 다른 판본과 비교할 수 있다. [표 4]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교정 및 보자의 타 판본 비교

| 구분           | 간행연도        | 권1 해당 위치  | 1401본 6장 뒷면 4행             | 권1 12장 뒷면 5행          | 1권 13장 앞면 7행         | 1권 21장 뒷면 7행         | 1권 35장 앞면 6행                |
|--------------|-------------|-----------|----------------------------|-----------------------|----------------------|----------------------|-----------------------------|
|              |             | 교정 내용     | ‘詣’를 ‘指’로 교정               | ‘間’을 ‘揀’으로 교정         | 名 뒤 ‘訶’ 보자           | 食 뒤 ‘等’ 보자           | 非我心 앞 ‘此’ 보자                |
| 원각사 소장 『능엄경』 | 1401 권1, 권2 | 권 1 해당 부분 | 指에 훈주 詣                    | 間 교정 없음               | 訶 보자 부호              | 等 보자 부호 글자 오른쪽 기입    | 非我心 此 난상 보자 부호 我 부독 부호      |
| 『능엄경언해』 목판본  | 1462 10권 완질 | 권 1 해당 부분 | 指 (13장 뒷면 2행) 언해: ㄴ ㄹ 치사 물 | 揀 (33장 앞면 2행) 언해: 굴히음 | 訶 (34장 뒷면 5행) 언해: 외다 | 等 (54장 앞면 7행) 언해: 둘히 | 此非心 (86장 앞면 3행) 언해: 이믄심 아니라 |

23) 목판본의 특성에 따른 광곽의 모양, 글자의 마멸 정도 등을 살펴보면 문헌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권1 35장은 글씨체로 볼 때 판본이 아닌 필사 보충 부분으로 생각된다.

|                        |                            |                  |                                |                                                 |                                            |                                       |                                                        |
|------------------------|----------------------------|------------------|--------------------------------|-------------------------------------------------|--------------------------------------------|---------------------------------------|--------------------------------------------------------|
| 고려본<br>남권희본(남<br>재문고본) | 13세기<br>이전<br>10권 5책<br>완질 | 권 1<br>해 당<br>부분 | 詣<br>(4장 앞면<br>6행)             | 閒<br>교정 없음<br>(7장 뒷면<br>7행)                     | 보자 없음<br>(8장 앞면<br>3행)                     | 보자 없음<br>(12장<br>앞면<br>13행)           | 非我心<br>보자 없음<br>(19장 뒷면<br>11행)                        |
| 고려본<br>소곡본<br>(구 박동섭본) | 13세기<br>이전<br>10권 5책<br>완질 | 권 1<br>해 당<br>부분 | 낙장                             | 閒<br>교정 없음<br>(5장 앞면<br>6행)                     | 보자 없음<br>(5장 앞면<br>12행)                    | 보자 없음<br>(8장 앞면<br>6행)                | 非我心<br>보자 없음<br>(12장 뒷면<br>8행)                         |
| 국립중앙박물<br>관<br>(송성문본)  | 1401<br>10권 5책<br>완질       | 권 1<br>해 당<br>부분 | 詣에 권원<br>난상 指                  | 閒<br>교정 없음                                      | 보자 없음                                      | 보자 없음                                 | 非我心 <sup>24)</sup><br>보자 없음<br>'非' 아래<br>부독 부호         |
| 기림사 소장                 | 1401<br>권2, 권3,<br>권4      |                  | -                              | -                                               | -                                          | -                                     | -                                                      |
| 서울역사박물<br>관 소장         | 1433<br>10권 2책<br>완질       | 권 1<br>해 당<br>부분 | 詣<br>(3장 뒷면<br>10행)            | 閒<br>교정 부호<br>변란 바깥<br>揀 기입<br>(8장 앞면<br>1행)    | 보자 없음<br>(보자<br>부호<br>있음)<br>(8장 앞면<br>9행) | 等<br>보자 부호<br>(13장<br>앞면 8행)<br>난상 기입 | 非我心<br>(21행 뒷면<br>5행)<br>我 왼쪽에<br>미상 부호                |
| 프랑스국립도<br>서관 소장        | 1456<br>10권 5책<br>완질       | 권 1<br>해 당<br>부분 | 指<br>글자<br>오른쪽<br>난하 '詣'<br>흔적 | 閒<br>교정 없음<br>間擇 사이<br>합부선 및<br>왼쪽 한글<br>'욤' 기입 | 訶<br>보자 부호<br>행 왼쪽<br>여백 기입                | 等<br>보자 부호<br>행 아래<br>여백 기입           | 非我心<br>此 변란 글자<br>사이 글자<br>기입<br>보자 부호<br>없음<br>我心 합부선 |
| 이화여대<br>도서관 소장         | 1635<br>10권 5책<br>완질       | 권 1<br>해 당<br>부분 | 指<br>하단 손상<br>부 필사<br>보완       | 閒<br>교정 없음                                      | 訶<br>(번각 시<br>보완)                          | 等<br>(번각 시<br>보완)                     | 非我心<br>교정 없음                                           |

권1에 나타난 글자의 교정과 보자 5부분만을 살펴보았지만 문헌 사이의 개략적인 계통 관계와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려본과 1401년 대자본 사이에 문자의 이동(異同)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교정 결과와 『능엄경언해』의 판본에 반영된 내용이 유사하였고,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의 교정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지만 그 정도는 원각사본보다는 적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성달생 서(書) 중자본 1433년 판본의 교정 결과 또한 『능엄경언해』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1401판의 번각본인 1635년 용장사 간행본은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보자로 표시된 부분이 대체로 보완되어 판각되어 인쇄된 글자로 나타났다. 5개의 작은 예로 전체적인 계통 관계를 일람하였고 향후 보다 정밀하고 세세한 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4. 결론

보물 제2056호 원각사 『능엄경』에는 신라와 고려 시대의 석독구결을 이어 주는 석독 표기와 음독구결 표기 등이 함께 기입되어 있다. 여기에 석독을 위해 필사로 기입된 한글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헌은 1401년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의 명으로 간행한 왕실본으로 능엄경 경문에 계환(戒環)이 해를 붙인 것을 명필 신충(信聰) 대사가 글씨를 써서 판을 새기고 찍어낸 것이다.

이 책에는 1461년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고, 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번역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서, 세필 목서, 교정용 용지, 각필 등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 부분, 주석, 석독의 순서를 지시하는 부호, 글자를 번역하지 말라는 부호, 사성(四聲)의 성조가 달라 뜻이 달라지는 것을 표현한 부호, 빠진 글자를 보충하라는 보자(補字) 부호, 글자나 내용에 관한 주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 등이 기입되어 이 문헌이 번역과 관련이 많음을 보여 준다. 경문과 요해에는 목서로 쓴 구결을 차자(借字) 또는 한글로 달아 놓았고, 여백을 이용하여 경문이나 요해에 없는 주석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써넣었다. 잘못 쓰거나 고치고자 한 곳에는 일일이 종이를 붙여 교정하였다.

경문과 요해 및 주석의 한글 부분은 대체로 『능엄경언해』의 한글 부분과 같지만, 『능엄경언해』에 없는 주석을 써넣었다가 지운 부분도 있고 『능엄경언해』에는 한글로 된 주석이 이 책에서는 한문이나 구결문으로 된 곳도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문헌에 기입된 한글과 구결 등이 『능엄경언해』보다 먼저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문헌과 동일 판본인 이른바 대자본 능엄경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759호 10권 완질본과, 통도사 소장 보물 제1195호(권9, 10), 기림사 소장 보물 제959-4-3호(권2, 3, 4)와 동일 판본이다. 그리고 이 판본의 후쇄본인 1456년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10책 전질이 있다. 이 대자본의 복각본으로 1635년 태인 용장사 간행본과 1692년 용흥사 간행본이 있다. 성달생서 중자본 또한 계환해 『능엄경』으로 1433년 간본이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문헌의 형태서지 일부와 경문 문자의 교정 내용과 보자(補字) 5곳을 살펴보았다.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은 신라 시대부터 발달한 석독구결의 후기 모습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서 읽었던 석독구결은 언해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이와 달리 음독구결은 한문 학습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석독구결의 전통은 오랫동안 잊혀졌으나, 1970년대 이후 『구역인왕경』 등의 문자 석독구결 자료가 발견되고 2000년대에는 부호 석독구결 자료가 발견되면서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 조선 초기 석독구결 자료인 보물 제2056호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발견으로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이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郭東和·姜順愛(2008), 「楞嚴經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9, 서지학회, 255-290.
- 金永旭(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研究」, 『구결연구』 10, 47-78.
- 金惠瓊(1999), 「高麗時代 「楞嚴經」 思想의 受容研究: 「普幻解」 成立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大學院.
- 남정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결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南權熙(2012), 「구결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증도가>의 서지적 고찰」,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3-52.
- 남권희(2014), 「영남대학교 도서관 南齋文庫 소장 佛敎文獻의 서지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48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79-229.
- 南豐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233-242.
- 南豐鉉(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20.
- 南豐鉉(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태학사.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2017), 『원각사의 불교문헌』,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 朴盛鍾(1996), 「宋成文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1.
-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73-94.
- 安秉禧(1977),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 일지사.
- 安秉禧(1997), 「활자본 능엄경언해 해제: 권1·10을 중심으로」, 영인본 『능엄경언해』 별책, 문화재관리국.
- 옥영정(2008), 「장서각 소장 보물 『楞嚴經』과 『圓覺經』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제2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5-31.
- 유필재(2016), 「활자본 『楞嚴經諺解』 校正에 대한 기초적 연구」, 『규장각』 4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63-386.
- 李丞宰(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資料와 國語學的 研究』, 문학과지성사, 56-76.
- 李丞宰(1995), 「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5-348.
- 趙明濟(1988), 「高麗後期 戒環解 楞嚴經의 盛行과 思想史的 意義」, 『역사와 세계』(구 『釜大史學』) 제12집, 효원사학회, 125-167.
- 鄭在永(1996), 「祇林寺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5.
- 鄭在永(1997), 「고려시대 釋讀口訣」, 『문헌과해석』 1, 162-174.
- 鄭在永(2006ㄱ), 「불갑사(佛甲寺) 소장의 화암사판(花岩寺版) 『부모은중경』에 대하여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11-244.
- 鄭在永(2006ㄴ),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125-185.
- 鄭在永(2009), 「『華嚴文義要訣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31-65.
- 鄭在永·安大鉉·河正秀(2016), 「조선 초기 『楞嚴經』 釋讀口訣의 발견과 그 의의」, 개교 110주년 기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 세

미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별지 1-17.

하정수(2020),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 2에 기입된 구결(口訣)  
및 한글 연구」, 『국어문학』 74, 국어문학회, 1-37.



##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어문생활사적 특징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 1. 시작하면서

국어사 관련 문헌자료는 서지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 그 문헌을 대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문헌은 성격과 가치를 달리한다. 어느 문헌은 음운론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문법 연구자에게는 가치가 떨어지며, 어느 문헌은 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국어사 관련 문헌이지만 어느 문헌은 국어학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국어학계와는 다른 관심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천자문류는 그 문헌의 한글 석음이 국어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지만, 서예학계에서는 한자의 자형이나 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석봉천자문의 영인본을 국어학자들보다 서예가들이 더 많이 소장하기도 한다.

원각사 소장 능엄경(앞으로는 ‘원각사본 능엄경’이라 칭할 것이다)도 다양한 시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는 주로 이 문헌의 석독구결 표기에 주목하여 왔다. 반면에 이 문헌에 필사되어 있는 한글은 능엄경언해의 주석문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석독구결 표기나 한글 표기는 어문생활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능엄경에 필사되어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한문본 능엄경을 한글본 능엄경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어문생활사, 특히 문자 생활사에서 이 문헌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문헌에 필사되어 있는 한글의 서체를 검토하여 이 문헌이 지니는 한글 서예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한다.

### 2. 원각사본 능엄경의 특징

원각사본 능엄경에 필사되어 있는 각종 기록들로 인해 이 문헌이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특징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① 석독구결 표기와 한글이 같이 표기되어 있는 자료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석독구결이 필요하지 않아서 석독구결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이 문헌에는 한글 표기와 석독구결 표기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문헌이다. 석독구결 표기가 있어서 한문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글로 내용을 덧붙인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문헌에는 각필(角筆)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그래서 이 문헌은 각필과 석독구결과 한글 자료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문헌이다.

③ 이 문헌에 쓰인 필서체들은 한 사람의 글씨로 보이지 않는다. 생획자 구결을 단 부분

과 한글로 쓰인 주식문의 서체는 다른 사람의 서체임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필사들은 한꺼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시차(時差)를 두고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 문헌에 표기되어 있는 한글 표기의 내용은 주로 능엄경언해의 주식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 표기도 능엄경언해의 주식 부분과 거의 같다. 단지 능엄경언해의 주식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ㄱ. 표기에서 ‘-르 씨라’가 ‘-르 시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ㄴ. 문법 형태소들은 생획자 구결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ㄷ. 능엄경언해에 없는 주식 부분도 보이는 점.

ㄹ. ㅇ △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서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표기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

ㅁ. 병과 ㅕ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특징은 다른 문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후술할 바와 같이 언해 과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 원각사본 능엄경의 필사 기입 구조

이 능엄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401년에 간행된 한문본 ‘능엄경’에 각종 필사 기록이 있는 문헌이다. 이 필사 기록들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능엄경의 모습은 원책의 한 행의 좌우에 한자, 생획구결자, 한글, 그리고 가운데 등에 권점, 그리고 왼쪽에 한자로 쓰인 一 二 三 등의 숫자 등이 보이고 난상이나 난하에는 한문의 글귀나 국한혼용으로 된 글이 보이고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각사본 능엄경』의 한문 원문의 첫 행을 예를 들어 보이도록 한다.



한문 원문은 “像季已還 道術既裂 明心之士 妄認緣塵 爲物所轉”으로 되어 있는데, 판본이다.

① 像의 오른쪽에 ‘似’, 季의 오른쪽에 ‘末’, 術의 오른쪽에 ‘法也’, 心의 오른쪽에 ‘有定无惠’, 士의 오른쪽에 ‘人’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다.



오른쪽의 한자는 왼쪽 한자의 주석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② 心の 왼쪽에 ‘一’, 明의 왼쪽에 ‘二’, 士의 왼쪽에 ‘三’, 妄의 왼쪽에 ‘一’, 塵의 왼쪽에 ‘二’, 認의 왼쪽에 ‘三’이라는 숫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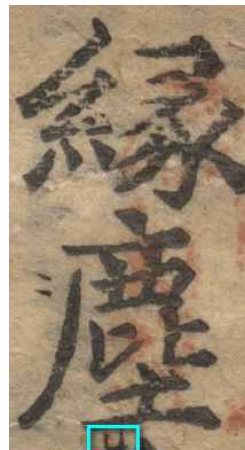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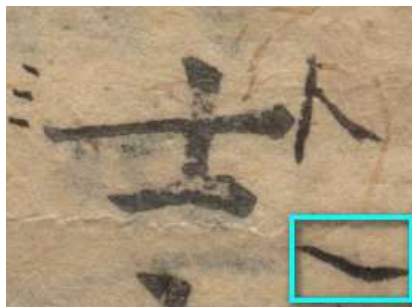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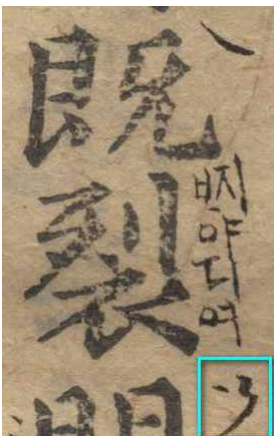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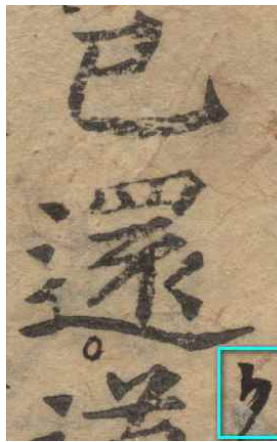
이것은 석독 순서 지시 부호이어서 풀이를 할 때 숫자에 표시된 순서대로 해독하라는, 어순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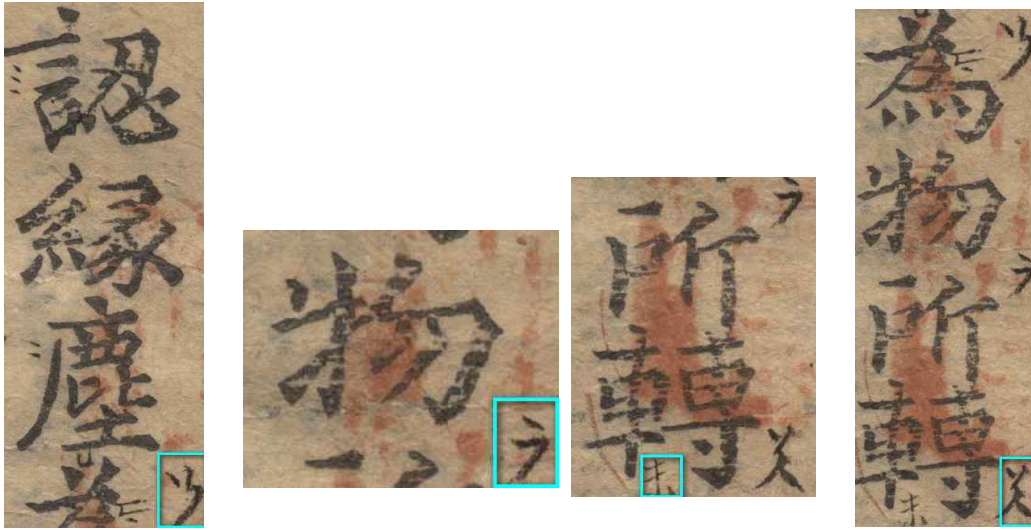
③ 還의 아래에 圈點이 있다.



이 권점은 그 글자의 다음에 천두 부분의 난상에 있는 주석문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즉 ‘像季已還’의 연해가 끝난 곳에 주석문을 넣으라는 표시이다.

④ 像季의 아래 왼쪽에 ㄹㄷ, 已還의 아래 오른쪽에 ㄹ, 道術의 아래 오른쪽에 ㄹ, 既裂의 아래 오른쪽에 ㄹ, 士의 아래 오른쪽에 ㄹ, 緣塵 아래쪽 가운데에 ㄹ, 塵 아래(정확하게는 ‘認緣塵’의 아래) 오른쪽에 ㄹ, 物の 오른쪽 아래에 ㄹ, 所轉의 아래쪽에 ㄹ, 轉의 아래 오른쪽에(정확히는 爲物所轉의 아래 오른쪽에) ㄹ란 생획구결이 쓰이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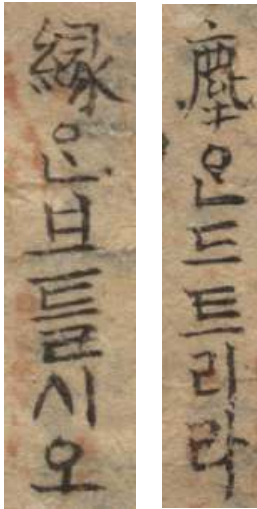
이들은 모두 구결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像季又七 已還 道術 既裂 ヽ 心 明之士 妄 緣塵 認 ヽ 物 所轉 未 爲 ㄷ ヽ”가 될 것이다.

⑤ ‘裂’의 오른쪽에 ‘빠야디여’란 글이 쓰이어 있고, ‘明’의 오른쪽 아래에 ‘길’이, ‘妄’의 오른쪽에 ‘거즈리’라는 글이, 그리고 ‘爲’의 오른쪽 가운데에 ‘ㄷ’가 쓰이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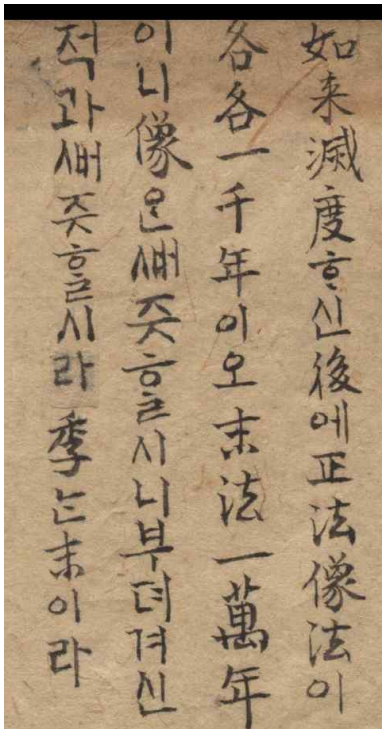
이것은 그 한자의 뜻풀이를 해 놓은 것이어서, ‘裂’은 ‘빠야디여’로, ‘明길’은 불길‘로, ‘妄’은 ‘거즈리’로, 그리고 ‘爲’는 ‘ㄷ’(‘ㄷ외다’의 ‘ㄷ’)로 번역하라는 표시이다.

⑥ 緣의 오른쪽과 塵의 오른쪽에 각각 ‘緣은 브틀시오’와 ‘塵은 드트리라’란 글이 있다.



이들은 각 한자의 주석문으로서 언해문에서 그 글자의 바로 아래에 주석문을 붙일 것을 보인 것이다.

⑦ 난상에 ‘如來 滅度후신 後에 正法 像法이 各各 一千年이오 末法이 一萬年이니 像은 卍  
 字하느니라 부더 겨신 적과 卍字하느니라 季는 末이라’란 글이 있다.



이 부분은 권점이 있는 곳에 주석문을 붙이되, 이 주석문을 삽입하라는 표시이다.  
 그리하여 ‘像季已還’의 번역문 아래에 이 주석문을 붙이란 의미이다.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7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한자의 주석 내용 (한자)
- ② 석독 구결 해독 순서 표시 (숫자)
- ③ 권점(주석문 위치 표시 부호)
- ④ 구결(생획자)
- ⑤ 한자의 뜻풀이 (한글)
- ⑥ 한자의 주석문 (한글)
- ⑦ 내용의 주석문(국한 혼용)

#### 4. 원각사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징과 구성을 통해 이 원각사본 능엄경의 성격을 구명할 수 있다.

원각사본 능엄경에 필사되어 있는 내용이 능엄경언해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문헌이 능엄경언해와 연관이 있음은 틀림이 없다. 능엄경언해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첫째 능엄경언해를 보고 부분적으로 전사했을 가능성.

둘째 능엄경을 공부하기 위해 또는 가르치기 위해 능엄경언해를 부분적으로 전사했을 가능성.

셋째 능엄경을 언해하기 위한 저본일 가능성.

첫째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 하면 능엄경언해를 참고하여 필사하였다면, 석독구결 방식까지 이 문헌에 등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의 경우처럼 능엄경을 공부하기 위해 또는 가르치기 위해 능엄경언해를 부분적으로 전사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능엄경을 공부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 한문본 능엄경에다가 석독구결 표시뿐만 아니라 각종 부호를 붙여 가며 능엄경언해를 참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한 예는 『월천두시언해』에서 볼 수 있다. 『월천두시언해』처럼 두보의 한시를 가르치기 위해 두보의 한시에 구결을 표시하고 두시언해 초간본을 필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능엄경을 공부하기 위해 또는 가르치기 위해 각종 부호를 붙여 만들었다면, 작성자가 대체로 한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이 원각사본의 능엄경은 한 사람의 글씨가 아니며, 또한 시차를 두고 필사한 것으로 보여서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능엄경언해 본문 등을 필사하지 않고 주로 주석문만 필사한 것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말해 준다.

셋째의 경우, 즉 능엄경언해를 만들기 위한 저본일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 왜냐 하면 한문본 능엄경을 번역하기 위한 과정으로 석독구결 방법을 원용하는 것은 석독구결의 목적이 한문을 우리말로 읽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발표에서는 원각사 소장의 능엄경이 능엄경언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책으로

추정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가도록 한다.

## 5. 원각사본 능엄경에 보이는 능엄경의 언해 과정

능엄경언해의 언해 과정은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발문에 기록되어 있다.

上이 입겨출 드르샤 慧覺尊者의 마기와시닐 貞嬪韓氏等이 唱準호야닐 工曹參判臣韓繼禧 前尙州牧事臣金守溫은 翻譯호고 議政府檢詳臣朴樸 護軍臣尹弼商 世子文學臣盧思愼 吏曹佐郎臣鄭孝常은 相考호고 永順君臣溥는 例一定호고 司膽寺尹臣曹變安 監察臣趙祉는 國韻 쓰고 慧覺尊者信眉 入選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訶은 後에 御覽호샤 一定커시닐 典言曹氏 豆大는 御前に 翻譯 넙스오니라(임금께서 구결을 다시고 혜각존자에게 확인하시거늘, 정빈 한시 등이 창준(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함)하거늘, 공조참판 한계희, 전 상주 목사 김수온은 번역하고, 의정부 검상 박건, 호군 윤필상, 세자문학 노사신, 이조좌랑 정효상은 상고(서로 비교하여 고찰함)하고, 영순군 부는 예를 일정하고, 사십시운 조변안, 감찰 조지는 국운(동국정운 한자음)을 쓰고, 혜각존자 신미, 입선 사지, 학열, 학조는 번역을 바르게 고친 후에 어람하시어 일정하시거늘, 전언 조씨 두대는 어전에서 번역을 읽은 것이다)(楞嚴經諺解 御製跋 4a~4b)

이 과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순서 | 언해 과정                     | 참여자            |
|----|---------------------------|----------------|
| 1  | 구결을 단다                    | 世祖             |
| 2  | 그 구결을 확인한다                | 信眉             |
| 3  | 한문과 구결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을 한다  | 貞嬪韓氏           |
| 4  | 한글로 번역한다                  | 韓繼禧, 金守溫       |
| 5  | 이 번역을 여러 사람이 서로 비교하여 고찰한다 | 朴樸 尹相弼 盧思愼 鄭孝常 |
| 6  | 예를 일정하게 한다                | 永順君            |
| 7  | 한자음을 단다                   | 曹變安 趙祉         |
| 8  | 번역을 교정한다                  | 信眉 思智 學悅 學祖    |
| 9  | 번역을 일정하게 한다               | 世祖             |
| 10 | 번역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확인한다        | 豆大             |

이 기록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기록들로도 구결을 달아 놓고 언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恭惟我主上殿下(中略)特徵乙覽 親加口訣 正其句讀 命工曹參判臣韓繼禧及臣守溫 悉以國語依文而譯(우리 전하께서 (중략) 철저히 보시고 친히 구결을 더하여 그 句讀를 바르게 하고 공조참판 한계희와 (김)수온에게 명하여 모두 우리말로 번역하도록 하였다)(楞嚴經諺解 金守溫 跋文)

於是親定口訣 臣敬依口訣宜譯 孝寧與僧海超等 更加研究 凡五日告成 命刊經都監 鑲板引布 (이에 전하가 친히 구결을 정하시고 신은 그 구결에 따라 번역하였고, 효녕과 승 해초 등이 더 연구하여 5일에 완성을 고하고 간경도감에 명하여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금강경언해』 韓繼禧 跋文)

능엄경언해 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그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구결을 단다

언해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구결을 달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한문에는 없는 문법형태소를 표시하기 위해 언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작업이 구결을 다는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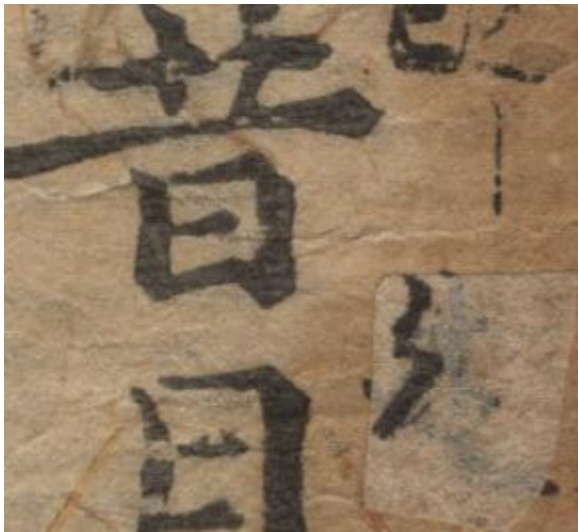
이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생략자로 된 구결을 달고 있다. 따라서 이 능엄경에 보이는 각종 필사 중에서 구결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필사된 부분일 것이다.

#### (2) 구결을 확인하고 교정을 한다.

다음에 행하는 작업은 구결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구결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흔적들이 있다. 구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구결을 단 부분을 한지로 붙여 놓고 그 위에 붓으로 다시 쓰는 것인데, 2a 부분에서 볼 수 있다.

(본문) 昔 3 月盖比丘、嘗問藥王如來七法 法供養義 1 大

#### ① 昔의 오른쪽에 ‘ㄴ’을 써 넣었다가 그 자리에 종이를 붙여 ‘3’로 교정하였다



#### ② 來의 오른쪽에 쓰이어 있던 구결자 위에 종이를 붙여 교정하였다.



(본문) 藥王、告言ッハム

① 言의 오른쪽에 ‘ッ소ム’를 기입했다가 ‘去’를 ‘入’로 교정하였다.



(3) 한글로 번역한다.

구결을 교정한 뒤에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다. 이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그 과정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본문을 번역하는 경우와 본문 번역이 끝난 후에 주석문을 붙이는 과정이다.

본문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어순을 정한다.

어순을 정하기 위해서 한문 구절에 따라 번역해야 할 순서를 정하는데, 여기에 석독구결의 순서를 표시해 둔다. 그래서 석독구결의 번역 순서를 적는 것이 그 다음 과정으로 보인다. 이 능엄경에는 그 부호로 一 二 三 四 등의 부호를 붙여 놓았다.

② 각 한자나 한자어에 대해 번역할 내용을 참고로 달아 놓는다. 능엄경에는 ‘裂’의 오른쪽에 ‘뼉야디여’가, ‘妄’의 오른쪽에 ‘거즈리’가, ‘爲’의 오른쪽 가운데에 ‘드’가 쓰여 있는 것이 그 과정에서 기입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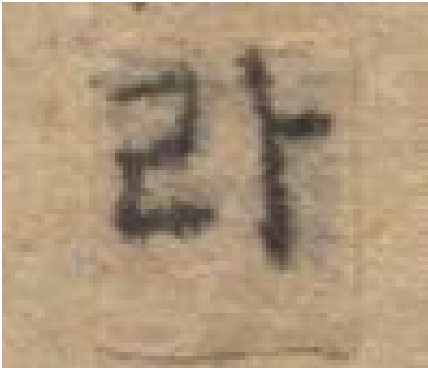
③ 한자에 대한 주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자에 대한 주석이

있고, 또 하나는 언해문에서 그 글자의 바로 아래에 주석문을 붙인 것의 두 가지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자에 대한 주석은 한자로 풀이를 하였고, 언해문에서 그 글자의 바로 아래에 붙이는 주석문은 그 글자의 바로 오른쪽 옆에다가 한글로 기입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像의 오른쪽에 ‘似’, 季의 오른쪽에 ‘末’ 術의 오른쪽에 ‘法也’, 心の 오른쪽에 ‘有定无惠’, 土의 오른쪽에 ‘人’이라는 한자가 쓰이어 있고, 緣의 오른쪽과 塵의 오른쪽에 각각 ‘緣은 브틀시오’와 ‘塵은 드트리라’란 글이 있다.

④ 그 다음 과정은 주석문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주석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용주이고 또 하나는 한자에 대한 주석이다. 능엄경에서는 내용주를 쓸 경우에는 내용주를 붙일 곳에 권점을 쳐서 그 주석문이 들어갈 곳을 표시하여 놓았다. 그리고 천두 부분에 그 주석문을 써 놓았다. 이 국한 혼용의 주석문은 세로로 반듯하게 쓰이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석문을 줄을 맞추어 쓰기 위해 각필로 줄을 쳐 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 주석문을 쓴 것이다.

(4) 번역을 다시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 언해한 것을 다시 고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능엄경에는 그러한 부분을 교정한 부분들이 보인다. 예컨대 ‘像은 씨죇홀시니 부더(터의 오자) 겨신 적과 씨죇홀시라’에서 마지막 글자인 ‘라’ 부분은 이전 글자에다가 종이를 붙여 대고 그 위에 ‘라’를 써 놓은 것인데, 이전의 글자는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원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像季ヌヒ 已還ス 【如來 滅度호신 後에 正法 像法이 各各 一千年이오 末法이 一萬年이니 像은 씨죇홀 시니 부더 겨신 적과 씨죇홀 시라 季는 末이라】 道術、既裂뻬야디여ッ 心 明길 {之}土、妄거즈리 緣塵ヒ 認ッ 【緣은 브틀 시오 塵은 드트리라】 物ヲ 所轉未 爲 得ッ

여기의 구결을 한글로 바꾸어 놓으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像季로 오매 【如來 滅度호신 後에 正法 像法이 各各 一千年이오 末法 一萬年이니 像은

빠듯홀 시니 부터 겨신 적과 빠듯홀 시라 季는 末이라】道術이 ㅎ마 ㅼㅅ야디여 ㅁ슴 불길  
사르미 거츠리 緣塵을 아라 【緣은 브틀 시오 塵은 드트리라】 物의 ㄹ교미 ㄷ외며

그렇다면 실제로 『능엄경언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 <원문>

像季已還애 道術이 既裂ㅎ야 明心之士ㅣ 妄認緣塵ㅎ야 爲物의 所轉ㅎ며

#### <언해문>(한자음과 방점은 표기하지 않았다)

像季ㄹ 오매 【如來 滅度ㅎ신 後에 正法 像法이 各各 一千年이오 末法 一萬年이니 像은  
빠듯홀 씨니 부터 겨신 적과 빠듯홀 씨라 季는 末이라】道術이 ㅎ마 ㅼㅅ야디여 【術은 法이  
라】 ㅁ슴 불길 사르미 거츠리 緣塵을 아라 【緣은 브틀 씨오 塵은 드트리라】 物의 ㄹ교미  
ㄷ외며

원각사본 능엄경에 필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결과로, 이 문헌이 능엄경을 언해하는 과정에 관계된 문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원각사본 능엄경을 능엄경언해를 만들기 위한 저본으로 판단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

그런데 이 원각사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게 된다. 원각사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너각사본 능엄경에 필사되어 있는 주석문의 내용과 능엄경언해의 주석문의 차이는 몇 가지에서 발견된다.
- ② 언해본에는 생획자 구결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능엄경에는 한글로 쓰인 주석문에 각종 구결이 보인다는 점.
- ③ 한글 표기상에서 ‘능엄경언해’에서는 ‘홀 씨라’로 되어 있는데,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홀 시라’로 되어 있다는 점.
- ④ 능엄경언해에는 언해문이나 주석문의 한자의 아래에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는데,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한자음 표기가 없다는 점.
- ⑤ 능엄경언해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데,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방점이 없다는 점

#### ① 주석문과 구결의 차이

주석문의 구결 표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몇 개 들어 보도록 한다.

|     |                                                                                                                                                                                                        |     |                                                                                                                                                                                                |
|-----|--------------------------------------------------------------------------------------------------------------------------------------------------------------------------------------------------------|-----|------------------------------------------------------------------------------------------------------------------------------------------------------------------------------------------------|
|     | 원각사 소장본                                                                                                                                                                                                |     | 능엄경언해(목판본)                                                                                                                                                                                     |
| 5a  | 道記ㄷ 1 道又 授記ㄹ 乙 乙 乙<br>ㅁ슴 뒤느니는 반드기 부테<br>드외리라 쏭스 또 經돌해<br>니르샤디 이 經 닐글 사르몬<br>阿耨菩提를 반드기 得히리라<br>ㅎ삼돌히라 果記ㄷ 1 經돌해 혼<br>사르물 바르 ㄱ르치샤 後에 현 劫<br>디나 아모 世界에 부터 드외야<br>일후몬 아피오 나랏 일후몬 아피오<br>正法 像法 末法이 현 매라 ㅎ샤미라 | 17b | 道記는 도로 授記ㅎ실 씨니 ㅁ슴<br>뒤느니는 반드기 부테 드외리라<br>ㅎ시며 또 經돌해 니르샤디 이 經<br>닐글 사르몬 阿耨菩提를 반드기<br>得히리라 ㅎ삼돌히라 果記는 經돌해<br>혼 사르물 바르 ㄱ르치샤 後에 현 劫<br>디나 아모 世界에 부터 드외야<br>일후몬 아피오 나랏 일후몬 아피오<br>正法 像法 末法이 현 매라 ㅎ샤미라 |
| 10a | 敏은 썩르며 通達ㄹ 乙 乙 乙                                                                                                                                                                                       |     | 敏은 썩르며 通達ㅎ을 씨라                                                                                                                                                                                 |
| 1a  | 術 法也                                                                                                                                                                                                   |     | 術은 法이라                                                                                                                                                                                         |
| 1a  | 義學之徒 1 글읠 뜯썩 비호는 사르<br>미라                                                                                                                                                                              | 3a  | 뜯 비호는 무리 글읠 뜯썩 비호는 사<br>르미라                                                                                                                                                                    |

그 차이점을 부분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원각사본 능엄경 | 능엄경언해  |
|----------|--------|
| ㄷ 1      | 는      |
| 又        | 로      |
| ㄹ 乙 乙 乙  | ㅎ실 씨니  |
| ㄷ 1      | 는      |
| 닐글 사르몬   | 닐글 사르몬 |
| 일후몬      | 일후몬    |

이것으로 보아서 능엄경언해는 원각사본 능엄경의 구결을 한글로 바꾸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각경언해의 한글 언해문에 보이는 문법형태소들을 구결로 바꾸어 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능엄경언해를 원각사본 능엄경에 필사해 놓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 ② ‘ㅎ 씨라’와 ‘ㅎ 시라’의 차이

원각사본 능엄경에 ‘ㅎ 씨라’가 아닌 ‘ㅎ 시라’로 표기된 사실로만 보면 이 자료의 한글 기입 시기는 1465년 이후로 추정할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ㅎ 씨라’가 ‘ㅎ 시라’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1465년에 간행된 원각경언해부터이기 때문이다.

‘ㅎ 씨라’형과 ‘ㅎ 시라’형, 그리고 ‘ㅎ 배’로 표기되는 현상을 문헌별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도   | 문헌명              | 홀 씨<br>라 형 | 홀 시라 형 | 홀 사람 형 |
|------|------------------|------------|--------|--------|
| 1446 | 훈민정음 언해본         | ○          |        | ○      |
| 1447 | 월인천강지곡           | ○          |        |        |
| 1447 | 석보상절             | ○          |        | ○      |
| 1459 | 월인석보             | ○          |        | ○      |
| 1461 | 능엄경언해            | ○          |        | ○      |
| 1463 | 법화경언해            | ○          |        |        |
| 1464 | 반야심경언해           | ○          |        | ○      |
| 1464 | 선종영가집언해          | ○          |        |        |
| 1464 | 아미타경언해           | ○          |        |        |
| 1465 | 원각경언해            |            | ○      |        |
| 1467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 ○          |        | ○      |
| 1474 | 내훈언해             |            | ○      |        |
| 1481 | 삼강행실도            | ○          |        |        |
| 1482 | 금강경삼가해           |            | ○      | ○      |
| 1489 | 구급간지방언해          |            | ○      |        |
| 1500 | 개간법화경언해          |            | ○      |        |
| 1517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심원사판) | ○          |        | ○      |
| 1518 | 정속언해             |            | ○      |        |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원각사본 능엄경의 한글 표기는 1465년 이후라고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홀 시라’가 쓰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능엄경언해에 보이는 ‘홀 씨라’를 이 능엄경에서는 ‘홀 시라’로 쓴 이유는 구결의 영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각사본 능엄경에 쓰인 언해문은 한문 원문에 구결을 통해 달고 언해하였음이 분명한데, 구결에서 ‘시라/씨라’의 ‘시/씨’는 ‘道記<sub>ㄷ</sub> 1 道<sub>ㄷ</sub> 授記<sub>ㄷ</sub> 二<sub>ㄷ</sub> 二<sub>ㄷ</sub> ㅁ 숨 뒷느니는 반드기 부테 드외리라’<sub>5a</sub> 와 ‘敏은 쟁르며 通達<sub>ㄷ</sub> 二<sub>ㄷ</sub> 二<sub>ㄷ</su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二’로 표기되므로 ‘二’가 ‘씨’가 아닌 ‘시’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한자음 문제

한자음을 다는 과정이 원각사본 능엄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능엄경언해 발문에서는 ‘국운(國韻)’,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번역 후에 단다고 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원각사본 능엄경이 언해 과정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까지만 보이는 문헌임을 암시해 준다. 그 이후에는 이 원각사본 능엄경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가지 작업이 더 진행되었을 것임을 말해 준다. 즉 예를 일정하게 하는 과정과 한자음을 다는 과정과 방점을 다는 과정이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책을 만들 때의 편집 체재를 결정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한다. 언해본은 문헌마다 책의 편집 체재가 다르다. 예컨대 월인천강지곡과 월인석보가 서로 다르고 월인석보라도 앞의 훈민정음어제서문과 월인석보의 본문의 체재가 다르다. 더군다나 분량이 많은 법화경언해나 능엄경언해 등은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와는 편집 체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법화경언해나 능엄경언해의 체재를 월인석보와 같이 본문을 대자로 처리한다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엄경언해 등

은 본문과 주석문을 다른 문헌의 협주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과 형식에 따라 판식이나 행자수를 결정하기도 할 것이다.

능엄경언해의 예를 일정하게 하고 여기에 맞게 능엄경언해를 써서 정리하게 될 때, 그때에 바로 한자음과 성조 표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 한자음을 먼저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가 다 되고 정서를 한 후에 방점을 처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 표기에 대해 능엄경언해의 발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방점 표기가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정본에서는 방점을 교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한자음을 교정한 것이다. 이것도 언해본을 만들 때의 과정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 보면 원각사본 능엄경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각사본 능엄경은 능엄경언해를 편찬하기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언해 작업은 능엄경의 한문 원문이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문본 능엄경이 인쇄된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 하는 작업은 예를 일정하게 한 후에 다른 책에다가 했을 것인데, 그 책은 한문본 능엄경이 없는 백지에 했을 것이다. 곧 정서본(淨書本)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각사본 능엄경은 언해본을 만들 때의 다음 과정이 보이는 문헌이다.

- ①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단다.
- ② 그 구결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 ③ 한글로 번역한다. 그런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ㄱ. 어순을 정하기 위해 석독구결 순서를 써 놓는다.
  - ㄴ. 각 한자나 한자어에 대해 번역할 내용을 참고로 달아 놓는다.
  - ㄷ. 내용주를 달 곳을 정해서 권점을 표시한다.
  - ㄹ. 내용주를 난상에 써 놓는다.
  - ㅁ. 이렇게 주석문을 쓰고 난 뒤에 이들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한다.

## 6. 원각사본 능엄경에 보이는 필체의 차이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필사되어 있는 내용들은 능엄경을 언해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능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언해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능엄경언해 활자본의 발문에서 밝혀져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다른 언해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각사본 능엄경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 구체적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구결을 달고, 구결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교정하고 한글로 번역한다는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할 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 원각사본 능엄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글로 번역할 때의 구체적인 과정을 구결을 달고 구결을 확인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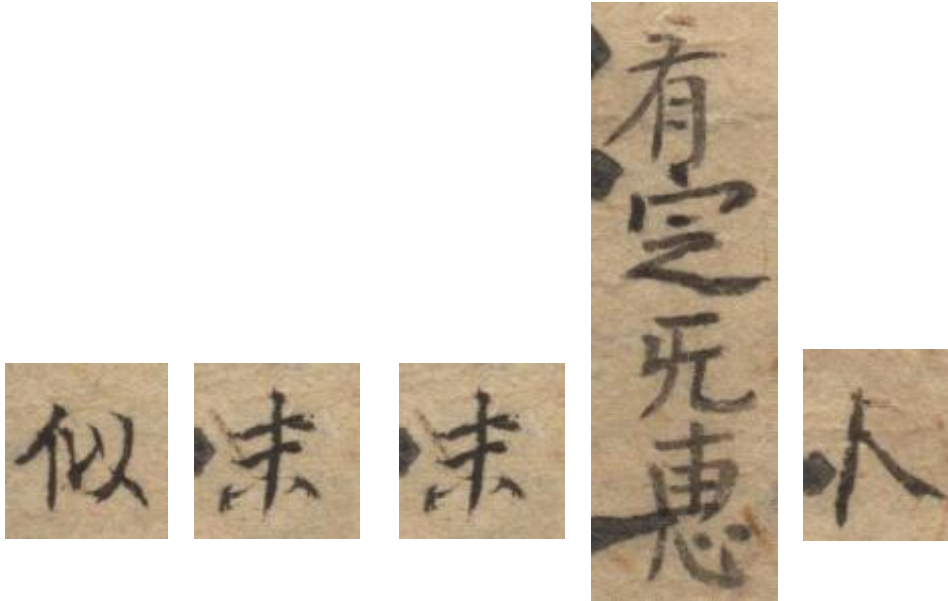
이 7 곳에 보이는 글씨는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보인다.

- (1) ① 한자의 주석 내용
- (2) ② 석독구결 해독순서 표시

(3) ④ 구결

(4) ⑤ 한자의 뜻풀이 ⑥ 한자의 주석문 ⑦ 내용의 주석문

한자의 오른쪽에 쓰인 한자들의 서체도 모두 동일인의 서체이다. 획이 가는 것이 특징이다.



석독구결 해독 순서를 쓴 숫자의 글씨는 모두 동일인의 글씨이다. 마치 점을 표시한 것 같은 글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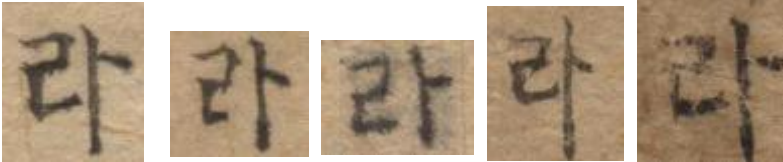


오른쪽에 쓰인 음독 구결자들은 모두 동일인의 서체이다. 이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자의 주석문 등이 쓰인 한글로 쓴 글씨는 모두 한 사람의 서체로 보인다. 다음에 1a에 보이는 ‘라’만을 집자하여 보면 한 사람의 서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③의 권점 표시는 (4)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능엄경에 필사한 부분은 최소한 4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필사들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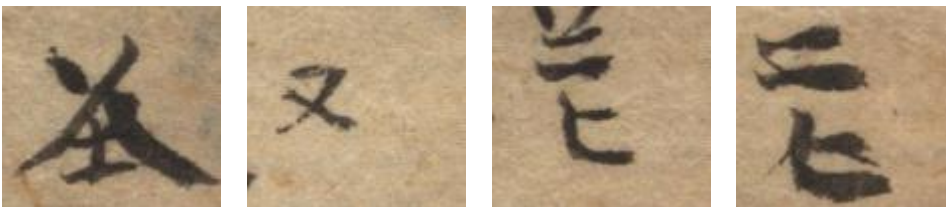
이 원각사 소장의 능엄경은 능엄경언해의 저본으로 판단되므로 능엄경언해보다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보인다.

## 7. 원각사본 능엄경의 필사자

원각사본 능엄경이 능엄경언해의 저본이라고 한다면 능엄경언해 발문에 능엄경을 언해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글씨를 쓴 사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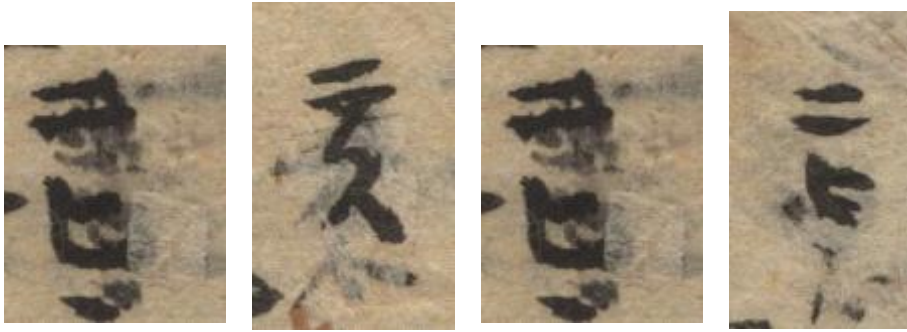
### ① 세조의 글씨

오른쪽에 구결을 단 사람이 세조이므로 세조의 글씨로 추정할 수 있다.



### ② 신미의 글씨

구결을 확인하고 수정한 사람이 신미이므로 신미의 글씨로 추정할 수 있다. 구결을 수정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 ③ 김수온 또는 한계희의 글씨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김수온과 한계희인데, 이 중에서 어느 사람이 한글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세종 세조 당시에 언해작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많은사람들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가 써업으로 언해 작업을 매우중히 여겼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초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 간행의 참여자(언해자 포함)를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문헌명            | 간 행 연<br>도 | 관여자                                                                                                                                | 인 원<br>수 |
|----------------|------------|------------------------------------------------------------------------------------------------------------------------------------|----------|
| 훈민정음 해<br>례본   | 1446년      | 정인지(鄭麟趾),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강희안(姜希顔),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 등                                                       | 8명       |
| 용비어천가          | 1447년      | 권제(權跬), 정인지(鄭麟趾), 안지(安止), 유의손(柳義孫), 이사철(李思哲), 정창손(鄭昌孫), 박팽년(朴彭年), 강희안(姜希顔), 신숙주(申叔舟), 이현로(李賢老),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신영손(辛永孫), 최항(崔恒) | 14명      |
| 월인천강지<br>곡     | 1447년      | 세종                                                                                                                                 | 1명       |
| 석보상절           | 1447년      |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                                                                                                                   | 2명       |
| 동국정운           | 1448년      |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강희안(姜希顔), 이현로(李賢老), 조변안(曹變安), 김증(金曾)                                                 | 9명       |
| 월인석보           | 1459년      | 신미(信眉), 수미(守眉), 홍준(弘璿), 학열(學悅), 학조(學祖), 김수온(金守溫)                                                                                   | 6명       |
| 능엄경언해<br>(활자본) | 1461년      | 세조, 신미, 한씨(女), 한계희, 김수온, 박건, 윤필상, 노사신, 정효상, 영순군, 조변안, 조지, 사지, 학열, 학조, 조두대(女)                                                       | 16명      |
| 능엄경언해<br>(목판본) | 1462년      | 계양군, 윤사로, 황수신, 박원형, 조석문, 윤자운, 이극감, 원호연, 성임, 한계희, 홍응, 이부형, 노사신, 강희맹, 윤찬, 김왕필, 이계전, 정문형, 신송주, 권왕함, 윤필상, 이극중, 이극돈, 최호                 | 24명      |
| 법화경언해          | 1463년      | 윤사로, 황수신, 박원형, 조석문, 윤자운, 김수온, 원호연, 성임, 한계희, 강희맹, 노사신, 윤찬, 이계전, 남윤, 김달전, 안관후, 신송주, 윤필상, 김영건,                                        | 19명      |

|       |       |                                                                                                |     |
|-------|-------|------------------------------------------------------------------------------------------------|-----|
| 금강경언해 | 1464년 | 황수신, 박원형, 윤자운, 김수온, 김국광, 원호연, 성임, 한계희, 강희맹, 노사신, 윤찬, 남윤, 김달전, 안관후, 권왕함, 이원호, 정지, 김영건, 최호, 김계창  | 20명 |
| 원각경언해 | 1465년 | 황수신, 박원형, 윤자운, 김수온, 김국광, 원호연, 성임, 한계희, 강희맹, 윤찬, 노사신, 김달전, 안관후, 권왕함, 홍방치, 김원신, 정지, 윤호, 남효남, 김계창 | 20명 |

이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강희맹 | 강희안 | 계양군 | 권왕함 | 권제  | 김계창 | 김국광 | 김달전 |
| 김수온 | 김영건 | 김왕필 | 김원신 | 김증  | 남윤  | 남효남 | 노사신 |
| 박건  | 박원형 | 박팽년 | 사지  | 성삼문 | 성임  | 세조  | 세종  |
| 수미  | 신미  | 신송주 | 신숙주 | 신영손 | 안관후 | 안지  | 영순군 |
| 원호연 | 유의손 | 윤사로 | 윤자운 | 윤찬  | 윤필상 | 윤호  | 이개  |
| 이계전 | 이극감 | 이극돈 | 이극증 | 이부형 | 이사철 | 이선로 | 이원호 |
| 이현로 | 정문형 | 정인지 | 정지  | 정창손 | 정효상 | 조두대 | 조변안 |
| 조석문 | 조지  | 최항  | 최호  | 학열  | 학조  | 한계희 | 한씨  |
| 홍방치 | 홍응  | 홍준  | 황수신 |     |     |     |     |

모두 68명이 관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중에서 가장 2 문헌 이상 관여한 사람은 36명으로 그 명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관여한 문헌수)

|        |        |        |        |        |        |
|--------|--------|--------|--------|--------|--------|
| 김수온(6) | 노사신(5) | 한계희(5) | 박원형(4) | 성임(4)  | 윤자운(4) |
| 강희맹(4) | 황수신(4) | 원호연(4) | 권왕함(3) | 최항(3)  | 박팽년(3) |
| 신숙주(3) | 안관후(3) | 윤찬 (3) | 성삼문(3) | 강희안(3) | 김달전(3) |
| 윤필상(3) | 이개(3)  | 신미 (3) | 남윤(2)  | 김영건(2) | 최호(2)  |
| 김계창(2) | 조변안(2) | 이현로(2) | 정인지(2) | 신송주(2) | 김국광(2) |
| 윤사로(2) | 이계전(2) | 학조(2)  | 정지(2)  | 학열(2)  | 조석문(2) |

이 중에서 언해 작업에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은 김수온과 한계희고 노사신이다. 김수온은 6 가지 문헌에, 한계희는 5 가지 문헌에 관여하였다. 이 결과만을 가지고 원각사본 능엄경에 한글을 쓰거나 주석의 한자를 쓴 사람을 추정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의 문집이 있지만 그 글씨는 전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8. 원각사본 능엄경의 한글 서예사적 의미

원각사본 능엄경은 거기에 필사되어 있는 한글은 한글 서예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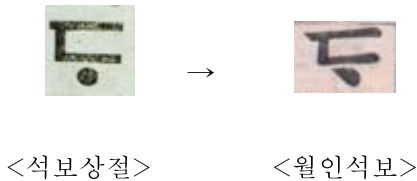
한글은 이전에는 모두 붓으로 쓰는 것이어서 한글 자료들은 한글 서예사 연구의 대상이 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글자는 각 자모의 변별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서 각 자모들을 그려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실용 단계에서는 붓으로 쓰는 단계로 이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즉 ‘그리기’에서 ‘쓰기’가 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그리기’에서 ‘쓰기’로 변화하면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 변화이다. ‘·’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丨’나 ‘一’와 결합할 때에도 둥근 점으로 되어 있지만, 용비어천가에서는 ‘·’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만 동그란 점으로 남아 있고, ‘丨’와 ‘一’와 결합될 때에는 이미 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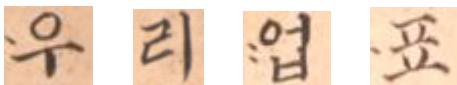
이 ‘·’가 동그란 점에서 아래로 내리찍은 점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월인석보’(1459년) 때부터이다. ‘ㄷ’ 자의 변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즉 동그란 점으로 쓰던 ‘·’를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붓으로 찍어서 쓴 ‘·’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모음 글자에서만 서체의 변화를 겪은 것이고 자음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음 글자의 변화는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에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즉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적용하였던 것이 ‘天’이 사라짐으로써 그 원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훈민정음의 두 번째 단계의 변화는 1464년에 필사된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이때까지 목판본이나 활자본에만 보이던 한글 서체가 최초로 필사본이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변화 현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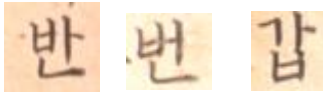
① 이 서체의 변화는 특히 가로선에서 보인다. 가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서 약간 비스듬히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에 몇 가지 예들을 보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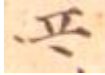
‘우’의 가로선과 ‘리’의 ‘ㄹ’의 가로선, ‘업’의 ‘ㅍ’ 자의 가로선, ‘표’의 ‘ㅍ’의 가로선이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붓으로 쓰면서 발생한 자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② ‘ㅍ’의 변화를 볼 수 있다. ‘ㅍ’은 원래 가운데 가로선이 세로선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

이 아니었는데 세로선의 중앙에 그어진 것이다. 다음 글자의 모습을 보이면 그 현상을 알 수 있다.



③ ‘ㅍ’과 ‘ㅌ’에서 위의 가로선과 아래의 가로선의 길이가 같았던 것인데, 아래의 가로선이 조금 더 길어진 모습을 보인다.



④ ‘ㄷ’이 ‘ㄴ’에다가 가로선을 가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필사하면서 위의 가로선을 먼저 쓰고 ‘ㄴ’을 씌우므로 해서 위의 가로선이 길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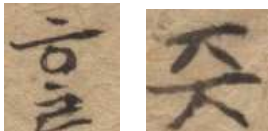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붓으로 자유롭게 쓰면서 한글의 서체가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글서체의 변화를 필사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필사본에서 볼 수 있는 서체의 변화를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볼 수 있다.

#### ① 가로선의 변화

가로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쓴다.



#### ② ㅂ의 변화

‘ㅂ’은 ‘ㅍ’에다가 세로로 가획한 것이어서 소위 미가법(微加法)으로 선의 길이의 반만 가획한 것이다. 그래서 ㅂ 자는 ㅍ 위의 선이 짧다. 그러나 세로선의 중앙에 가로선이 그어지게 변화하였다.



#### ③ ㅍ의 변화

ㅍ 은 위 아래의 가로선의 1/3 정도에서 세로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1/5이 되는 위치에서 세로선을 긋는 것인데, 1/3의 위치에서 ㅍ 선을 긋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④ 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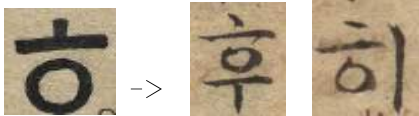
ㅅ 은 왼쪽 빼침과 오른쪽 빼침이 만나는 곳은 선의 꼭대기이어서 두 선이 서로 꼭대기점

에서 만나는 것인데, 왼쪽 빼침의 가운데에서 오른쪽 빼침이 시작되는 변화를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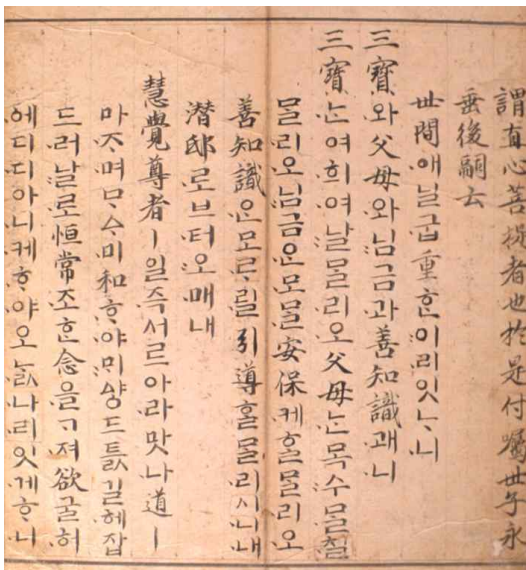
##### ⑤ ㅎ 의 꼭지점의 변화

ㅎ 은 ㅎ 에다가 세로선을 가획한 것이다. 세로로 가획할 경우에는 선의 반만 가획하는 미가법에 의해 ㅎ 에 세로로 짧은 선을 세로로 가획하게 되어 있는데, 이 능엄경에서는 ㅎ 의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찍히는 현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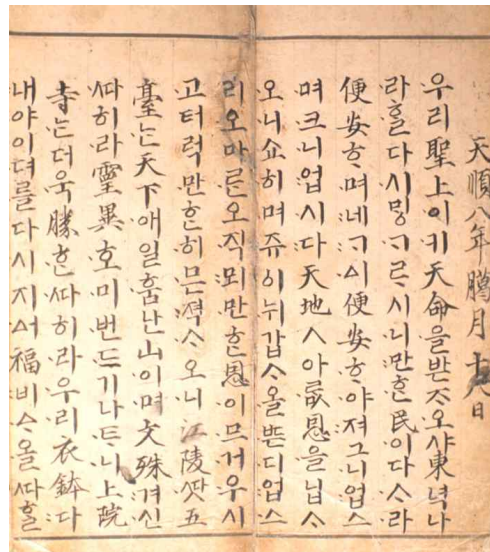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에 보이던 것이었는데, 이미 이 원각사본 능엄경에 보이고 있어서, 이 능엄경이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보다 앞서 시기의 필서체 한글임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에는 두 가지의 필체가 보인다. 하나는 이전에 써 왔던 서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서체다. 한 사람이 쓴 서체인지 두 사람이 쓴 서체인지는 알 수 없다.



<기존의 서체>



<변화된 서체>

그런데 원각사본 능엄경은 1464년에 필사한 한글 글씨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필사된 자료이다. 즉 능엄경언해가 1461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각사본 능엄경은 그 이전에 필사된 자료이어서 이 자료가 최초의 한글 필사본의 서체가 된다.

원각사본 능엄경의 한글 서체를 목판본 능엄경언해와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몇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하  
신

<목판본>

하  
신

<활자본>

하  
신

<능엄경>

새  
죽  
은  
새  
나

새  
죽  
은  
새  
나

새  
죽  
은  
새  
나

마  
조  
양  
노  
라  
하  
니  
라

마  
조  
양  
노  
라  
하  
니  
라

양  
노  
라  
하  
니  
라

마  
조

<목판본> <활자본> <능엄경>

이 서체를 비교하여 보면 원각사본 능엄경의 한글 서체는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의 변화된 서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서체들은 붓으로 자연스럽게 쓴 서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그린 서체에 가까워서 가로획들도 거의 수평으로 놓여 있는데 비해서, 원각사본 능엄경에 보이는 한글 서체는 필기체의 서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9. 원각사본 능엄경의 의미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특징과 그 구성 등을 살펴 본 결과 이 책은 능엄경언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이해하는 과정은 대체로 능엄경언해 활자본의 발문에 보이는 과정에 잘 장려되어 있다. 즉 아쟁서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구체적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원각사본 능엄경을 통해 그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능엄경언해 발문에 기록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① 구결을 단다
- ② 그 구결을 확인한다
- ③ 한문과 구결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을 한다
- ④ 한글로 번역한다
- ⑤ 이 번역을 여러 사람이 서로 비교하여 고찰한다
- ⑥ 예를 일정하게 한다
- ⑦ 한자음을 단다
- ⑧ 번역을 교정한다
- ⑨ 번역을 일정하게 한다
- ⑩ 번역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확인한다

이 10가지 과정 중에서 이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특히 ④의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은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이 능엄경에는 그 세부적인 과정이 자세히 노출되어 있다. 즉 한자의 의미를 풀어 놓거나, 한자어의 의미를 풀어 놓거나, 또는 내용주를 달아서 삽입하거나 하는 세부적인 공정이 다 들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언해본에는 한문 원문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문본 판본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며, ①에서 ④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여 새 책의 편집 체제에 따라 다시 정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언해할 때의 더 이상의 과정이 필요없게 되어, 이 책으로서 언해의 모든 교정이 끝나고 새 체제에 따라 정서본을 만들게 되며, 그때에 한자음을 기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서가 끝나면

방점을 기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원각사본 능엄경은 언해본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여실히 나타나는 자료이어서 우리나라 어문생활사에서 매우 중요한 암시를 주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 문헌이 능엄경언해를 편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여기에 쓰인 한글은 능엄경언해가 간행되기 이전에 쓰인 것이 틀림없으므로 여기에 쓰인 한글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최초로 쓰인 필서체 한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원각사본 능엄경은 한글 서예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사본 한글의 최초로 오대산사원사증창권선문을 언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사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원각사 소장 《능엄경》 한글 표기의 표기사적 위치

정 우 영 (동국대 명예교수)

## 1. 머리말

‘능엄경(楞嚴經)’은 불교 교리를 강론하는 강원(講院)의 사교과(四教科)의 한 과목으로서, 출가자는 이 책이 필수교과목이며, 선(禪) 수행자들 또한 이 책을 수행의 지침서로 삼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 경전에 대한 많은 주석서와 저술이 간행되었다. 이 자료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책으로, 정제된 협주, 경본문의 한자에 일일이 붙여놓은 석독 한글표기와 차자표기, 정갈하고 방정하며 정성스럽게 월인석보체의 한글로 꾸며져 있어, 관점에 따라서는 이 《능엄경》이 1461년 《능엄경》 언해본을 만들기 위해 이용한 저본자료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여러 층위의 차자 및 한글표기 자료를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다.

이 글은, 경기도 고양시 원각사(주지 정각 스님)에 소장된 한문본 《능엄경요해》(권1·2, 이하 ‘능엄경’으로 줄임)에 기입된 한글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국어 표기사적 위치와 이 자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자료의 현황에 대하여는 하정수(2021.9월)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고, 자료의 세부 내용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를 통해 허인영(2021.10월), 최준호(2021.11월), 이강혁(2021.12월) 등에서, 자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자료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전체상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발표에서는 주로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표기 양상과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글표기를 행한 시기와 표기의 주체, 그리고 이 자료의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원각사에 소장된 한문본 《능엄경》(권1·2) 전체에 기입된 한글표기 자료, 한문의 행간이나 자간의 여백, 또는 광곽의 안팎에 기입한 모든 한글표기를 조사하였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언어음의 표기를 위해 완벽하게 체계화된 <훈민정음> 규정(자모·운용 규정)을 기준으로, 《능엄경》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한글표기 양상을 분류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전체를 3장으로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능엄경》의 한글표기 양상을 분석·검토하되, 2.1.에서는 한글 자모규정의 기준으로 본 한글표기 양상을, 2.2.에서는 한글 운용규정의 기준으로 본 한글표기 양상을, 2.3.에서는 《능엄경》의 석독 한글표기의 오류 및 기타, 그리고 2.4.에서는 《능엄경》의 자료적 성격과 표기 주체에 대하여 밝힌다. 제3장은 결론으로 이 자료를 검토한 소회와 문헌자료를 조사·분석할 때의 유의 사항 몇 가지를 간략히 언급한다. 그 동안 이 자료에 대해 가졌던 여러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 2. 《능엄경》의 한글표기 양상과 그 해석

국가의 공식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世宗은 1443년 12월 ‘文字와 本國俚語’를

적을 수 있도록 친히 ‘언문(諺文)’을 창제하고,<sup>1)</sup> 그것을 기반으로 ‘正音사상’의 실현을 위해 성운학적 연구를 심화하도록 명하여 32개월 후인 1446년 9월에, 드디어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확대·개편,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음편(正音篇)’에 공시문으로 체계화해 세상에 반포한다.<sup>2)</sup>

해례본에 실린 <훈민정음> 규정은 일부 외국어 표기를 제외하면 완벽한 문자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본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표기의 국어 표기사적 위치를 검토하는 일도, 우선 <훈민정음> 자모·운용 규정을 기준으로, 분석·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하겠다. 《능엄경》 한글표기의 시대적 좌표 설정은 각 부문별 양상을 종합해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1. 한글 자모규정의 기준으로 본 한글표기 양상

1446년 9월 해례본에 실린 <훈민정음> 규정은, 한자어의 한자음과 우리말 표기를 위해 규정된 것으로, 여기에 제시된 초성자모 목록은 모두 23개이다. 여기에는 후음 전청음인 ‘ㅇ’을 비롯하여 전탁음 6자(ㄱ ㅋ ㆁ ㆁ ㆁ ㆁ)도 포함되어 있다. 《능엄경》(권1·2)에 기입된 한글표기를 모두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장차 표시에서 ‘ㄱ’은 앞면, ‘ㄴ’은 뒷면을 나타낸다.

### (1) 후음 전청자 ‘ㅇ’ 반영하지 않음

<ㅇ> (능엄경) 二千年이오 末法이 一萬年이니 <楞嚴1:1ㄱ3난상>  
 (언해본) 一萬千천年년이오 末法法법이 一萬萬萬年년이니 <능엄1:2ㄴ>  
 (능엄경) 性(ㄱ)在 ㄷ 纏얼큐메(ㄴ)<楞嚴2:2ㄱ2> 不得문홀줄로<1:29ㄴ3>  
 (언해본) 性성은 얼큐메 잇느니 <능엄2:3ㄴ> 문홀줄로 <능엄1:72ㄱ>

후음의 전청 ‘ㅇ’은, 우리말 표기를 위해서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개신한자음(동국정운음)의 초성자모 <ㅇ>(捫음)자 소속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해례본(1446.9.)을 간행할 때에는 한자음의 설음입성 ‘-ㄷ’[-t]으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어 현실한자음 ‘-ㄴ’과 절충해 이영보래(以影補來) ‘-ㄹ’ 표기로 변경, 이와 함께 우리말의 ‘-ㄴ’ 관형구성에 참여하는 후행어 초성을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ㄹ}으로, 그리고 사이시옷 표지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능엄경언해》에서는,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훈민정음’ 제정자가 의도한 대로 그 가치가 발휘되고 있다. 그러나 《능엄경》의 한글표기에서는 한자어에 병기한 한자음은 물론이

1) 이때 언어의 문자화를 위해 간략한 자모·운용 규정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해례본(1446.9.)의 <정인지서>에서는 “계해년 겨울에...(중략)...간략하게 ‘예의’를 보이시고[癸亥冬...(중략)...略揭例義以示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동립(1973,1975)과 강창석(2014)에서는, 그 ‘예의’가 바로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1527)에 실린 <諺文字母>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해례본(1446)의 <訓民正音> 규정이 바로 <정인지서>에서 언급한 “약계예의(略揭例義)”라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세종 25년(1443) 12월 ‘諺文’ 창제에서 세종 28년(1446) 9월에 解例本이 완성될 때까지 32개월 동안 전개된 國語學史의 사업의 연보 하나만 작성해보아도 두 규정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선부른 전제보다는 그 사업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대조해보는 기초적 작업이 ‘훈민정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고 그 어느 환경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표기자가 인식(숙지)하고 있는 한글 표기법의 자모규정 목록에 ‘ㅇ’이 들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다. 만약에 이 양상만을 토대로 《능엄경》의 한글표기 연대를 추정한다면, 1465년 《원각경언해》의 고유어 표기에서 ‘ㅇ’과 각자병서가 폐지되므로(정우영 2005), 그 책이 간행된 이후의 일로 해석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만약에 표기자가 <언문자모(諺文字母)> 체계를 익힌 사람이라면, 1465년보다 앞서 1461년 《능엄경언해》 간행 이후부터 15세기말, 또는 16세기 중·후반까지의 시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글표기를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전탁자를 평음자로 표기함

1446년의 <훈민정음> 규정에 들어 있는 초성 규정은, 문자(文字, 한자 및 그 이상의 언어단위)와 본국이어(本國俚語, 우리말)를 ‘正音’으로 표기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초성의 경우는 신제자 17자모와 전탁음 6자모를 합쳐 모두 23자모가 <훈민정음>에서 규정한 초성자모다. 이들은 전청(후음은 ‘차청’)을 병서하여(‘ㄱㄷㅌㅍㅈㅊㅌㅍㅈㅊ’) 된소리를 적는 데 사용되었다. 《능엄경》과 언해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문헌에 나타난 한글표기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쓰> (능엄경) 舊セ引1多1說은(1)不몬ッオセ可縷낫나치 疏스디(ヒ)<楞嚴1:5ㄱ5>

(언해본) 넷 현 한 마른 낫나치 쓰디 못흐리니 <눅1:18>

<箴> (능업경) **키운 혈시니 經 뜨들 혀 널시라** <楞嚴1:2ㄱ난상6>

(언해본) **리은 혈씨니 經경 브들 혀 널씨라 <능엄1:5>**

<ㄱ> <ㅁ> 용례가 나타나지 않음

<ㄷ> (능업경) 目(丶)應無업술디어늘翳, 未(才ㄴ) <楞嚴2:46ㄴ7>

(언해본) 누니 반드기 가료미 업술띠어늘 <농업2:111>

<ㄸ> (능업경) 髮머리白세며面치皺살지여(ㄴ ㄹ) <楞嚴2:2ㄴ7>

(언해본) 머리 세며 느치 살찌여 <능엄2:5ㄴ>

(능엄경) 隨順조각와 分두루 布퍼(ㄴ ㄹ) <楞嚴1:1ㄴ7>

(언해본) 조꼭와 두루 펴 <능엄1:47>

(능엄경) 從조즈ト 佛乙轉法 輪乙(ッヅ) <楞嚴1:9ㄱ7>

(어해보) 부터를 조쪽와 法범輪류을 옮겨<능엄1:47>

(능엄경) 於內庭(3) 延 滿坐<sup>호문</sup>4) 佛(1) <楞嚴1:11ㄴ8>

(언해본) 안뜰헤 부터를 마쭈오문 <능엄1:31 7>

(능업경) 若戀<sup>ㄴ</sup> 滅<sup>ㄴ</sup>업슬 時제 <楞嚴1:37ㄱ1>

(언해본) 흥다가 變變흥야 업슬 제 <능엄1:90ㄴ>

<쓰> (능업경) 說者니를사르미(ㄴ) <1:5ㄴ8> 戲論노르셋말스맏 <2:29ㄱ8>

3) 우리말 표기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1465년 《원각정언해》부터 쓰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지만, 한자어에 대한 한자음 표기에서는 관판문헌의 관례에 따라 1485년 《영협약초》와 《불정심다라니경언해》에까지 유지된다(정우영 2005).

4) 《능엄경》의 한글표기 경향으로 볼 때 ‘마즈오몬’[延] 표기가 예상되었다. 언해본의 다른 곳에서는 ‘부터울 만즈오니라’[迎佛也]<능엄5:33ㄴ>도 나타나므로 ‘만즈오몬’을 16세기 표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언해본) 니를 싸르미 <능엄1:18ㄴ>    노르셋말쑤맷 <능엄2:70ㄱ>

위에서 두 자료의 대응 양상을 보였듯이, 《능엄경언해》에서는 전탁음을 전청(후음은 차청‘ㅎ’)을 각자병서 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능엄경》(권1:2)의 한글표기에서는 어두음과 어중음 그 어느 환경에서든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표기자가 숙지한 한글 문자목록에 전탁음을 문자화하기 위한 각자병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추론한다면, 표기자는 <훈민정음> 규정은 모르고 <언문자모> 규정만 익혀서 쓰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우리말을 적는 시대에 사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훈민정음> 규정과 <언문자모> 규정의 차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훈민정음>과 <언문자모>의 자모규정

| 구분   | <훈민정음>                 | <언문자모>                | 비고                  |
|------|------------------------|-----------------------|---------------------|
| 초성   | 17자+6자=23자             | 16자                   |                     |
| 중성   | 11자                    | 11자                   |                     |
| 종성   | 17자+@                  | 8자                    |                     |
| 표기대상 | 文字及本國俚語<br>※ 문자(개신한자음) | 文字及本國俚語<br>※문자(전통한자음) | 대상은 같으나<br>적용기준이 다름 |

## 2.2. 한글 운용규정의 기준으로 본 한글표기 양상

다음으로, <훈민정음> 운용규정을 통해 《능엄경》 한글표기 양상을 정리해보자. 주지하듯이, 운용규정(運用規定)은 세종이 ‘자모규정’에서 제시한 ‘훈민정음’ 28자를 운용해 언어음을 문자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서, 모두 6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즉 ①연서법, ②병서법, ③부서법, ④중성법, ⑤성음(성자)법, ⑥가점법이 그것이다(정우영 2014). 이들은 표기대상 언어가 국어나 외국어나, 그리고 관문문헌이냐의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글 표기의 역사에서 이들 운용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면, 한글표기 자료의 성립 연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조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능엄경》(권1:2)의 한글표기를 모두 조사해본 결과, 6개 규정 중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규정은 <훈민정음>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었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 (1) 연서법(連書法)

|             |                                                    |       |
|-------------|----------------------------------------------------|-------|
| 연<br>서<br>법 |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 正音 3ㄴ |
|             | ○를 連連書성唇순音음之장下:향ㅎ·면 則·즉爲잉唇순輕경音음·ㅎ·ㄴ·니·라            | 정음11ㄴ |
|             |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가·벼·본 소·리 드외·ㄴ·니·라     | 정음12ㄱ |
|             | ○를 순음(입술소리) 아래에 (위에서 아래로) 이어서 쓰면 순경음(입술가벼운소리)이 된다. |       |

이 규정은 후음 ‘ㅇ’을 순음(唇音)인 ‘ㄴ/ㄷ/ㄹ/ㄱ’ 아래에 이어서 ‘빙/뽕/퐁/뭉’처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성(初聲)을 문자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 고유어 표기에서는 ‘빙’이, 외래어적 요소의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에서는 ‘-뭉’이, 중국어 등 외국어 표기

에서는 위의 모두가 사용되었다. 《능엄경언해》(권1:2)와 《능엄경》(권1:2)에 기입된 한글 표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붕-> (능엄경) 더러이며<1:9ㄱ8하> 어드운<2:12ㄱ4> 사오나온 홀기오<楞嚴2:9ㄴ3난상>  
 (언해본) ①더러이며<1:24ㄴ>②어드운<2:28ㄴ>③사오나온 홀기오<능엄2:22ㄱ>5)  
 <-붕> (능엄경) 如來 滅度訖신 後에 正法 像法이 <楞嚴1:1ㄱ3난상>  
 (언해본) 如來來링 滅滅度똥訖신 後후에 正正法법 像쌍法법이 <능엄1:2ㄴ>

《능엄경언해》(권1:2)에서는 우리말 표기에 ‘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sup>6)</sup> 그것은 ‘훈민정음’ 표기법의 제1차 개정인 ‘붕→오/우/ㅇ’로의 교체가 이 문헌의 우리말 표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정우영 2005, 2012). 그러나 한자음(동국정운음) 표기는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종성 표기에서 ‘-붕’이 여전히 사용되었다.

그런데 《능엄경》(권1:2)의 한글표기에서는 그것마저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자어에 한자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이 자료에 한자음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표기자가 한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능엄경》에 한글표기를 전제하는 주된 목적이 한문경전의 우리말 번역(언해문)에 있지 한자음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연서법’ 규정은 <언문자모> 규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훈민정음> 규정에는 운용규정에 들어 있어 우리말 표기에 적용되었다. 그 후 1461년 《능엄경언해》에서 전격 폐지되는 개정을 맞게 된 것이다. 《능엄경》 한글표기에 순정음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표기자가 <언문자모> 규정만 숙지한 결과일 수도 있고, 《능엄경언해》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붕’이 실현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능엄경》의 한글표기가 1461 《능엄경언해》의 간행보다는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 (2) 병서법(竝書法)

|             |                                                                                                                           |       |
|-------------|---------------------------------------------------------------------------------------------------------------------------|-------|
| 병<br>서<br>법 | 初聲合用則竝書○終聲同。                                                                                                              | 正音 4ㄱ |
|             | 初충聲성을슴·합用·용·흠디면 則·즉·竝·뽕書성호·라 終중聲성·도 同똥호·나·라                                                                               | 정음12ㄱ |
|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박·쓰·라 乃·냉終중·기·소·리·도 훈가·지·라<br>초성(첫소리)글자를 합쳐 쓰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쓰라. 종성(끝소리)글자의 경우도 (초성글자와) 마찬가지로. | 정음12ㄴ |

이 규정은 음절의 초성(初聲)이나 종성(終聲)에 두 개 이상의 소리를 합쳐 써야 할 경우에 그 구성요소를 병서하라는 규정이다. 이 병서법은 <훈민정음> 자모규정에 나타나는 ‘전탁음’ 표기와 ‘정음해례편’ <합자해> 규정과 용례를 종합해볼 때, 서로 다른 낱자만이 아니라 동일한 낱자를 병서하는 법까지, 즉 합용병서와 각자병서 방법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폭 넓게 이해된다. 두 문헌의 표기를 대비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oo>(능엄경) 二障所纏<sup>1</sup>요문(1)<楞嚴1:38ㄴ5> 妄<sup>2</sup>纏<sup>3</sup>요미<楞嚴1:38ㄴ8>

- 5) 《능엄경언해》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들에서는 ‘붕’이 굳건하게 유지된 모습을 보여준다. ① 형덕 더러<sup>1</sup>며 중 소기<sup>2</sup>릴 만나<sup>3</sup>돈<1459 월석21:67ㄱ>. ② 큰 光明 퍼 어드<sup>4</sup>본 싸<sup>5</sup>돌<sup>6</sup>해 비<sup>7</sup>취<sup>8</sup>며<1459 월석23:57ㄱ>. ③ 사오<sup>9</sup>나<sup>10</sup>본 차<sup>11</sup>반 어<sup>12</sup>더<sup>13</sup>든<1459 월석20:12ㄴ>  
 6) 권1,2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능엄경언해》 10권 중 권5에는 ‘지벽’[礫]이 3회 나타난다(권5: 72ㄱㄴ).

(언해본) 二聲障장애 믹옌문 <능엄1:94ㄴ> 冥망애믹옌미 <능엄1:95ㄱ>  
 <ㄴㅁㅅㅅㅅㅅ> 2.1. (2) 용례 모두가 《능엄경》에서는 낱자로만 표기됨

위의 예에서 보듯이, 《능엄경언해》에는 ‘각자병서’가 우리말과 한자음 모두에서 고르게 사용되었는데, 《능엄경》의 한글표기에서는 각자병서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평음형으로만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훈민정음’ 표기법의 개정에 따라 1465년 《원각경언해》에서 고유어의 각자병서와 ‘ㅇ’을 폐지한 결과, 그러한 한글 표기법을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표기자가 각자병서가 없는 <언문자모> 규정을 숙지한 결과, 《능엄경언해》의 각자병서를 평음형으로 여과·조정하여 기입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전자라면 1465년 이후에 고유어 표기에서 개정된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후자라면 1461년 《능엄경언해》 간행 이후 언제라도 각자병서가 아닌 평음형으로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 (3) 종성법(終聲法)

|             |                                                                                              |                     |       |
|-------------|----------------------------------------------------------------------------------------------|---------------------|-------|
| 종<br>성<br>법 | 終聲復 <sup>ㅇ</sup> 用初聲。                                                                        | 復 <sup>ㅇ</sup> (거성) | 正音 3ㄱ |
|             | 終 <sup>ㅇ</sup> 聲 <sup>ㅇ</sup> 성·은 復 <sup>ㅇ</sup> ·뵈用·웅初 <sup>ㅇ</sup> 聲 <sup>ㅇ</sup> 성·ㅎ·ㄴ니·라 |                     | 정음11ㄴ |
|             | 乃 <sup>ㅇ</sup> ·냉終 <sup>ㅇ</sup> 중·ㅅ소·리·ㄴ 다·시 ·첫소·리·를 ·ㅅ <sup>ㅇ</sup> ·ㄴ니·라                   |                     | 정음11ㄴ |
|             | 중성(받침)에는 (만들어 쓸 수 있는 모든) 초성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                     |       |

<훈민정음> 규정에서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은, ‘자모규정’에서는 ① 종성 자모규정으로, ‘운용규정’에서는 ② 종성 표기규정(종성법)으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 중의적 규정이다(정우영 2014). 《능엄경언해》에 적용된 종성법을, 8종성에 ‘-△’이 더 있는 9종성 표기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규정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문자와 우리말’이고 한자음의 종성 ‘-ㅁ/ㅇ’까지를 어떤 규정으로 포섭하려면 ‘종성부용초성’ 규정이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에 합당하다. 다음에 인용한 표기에서 차이점은 한자음 표기의 유무밖에 없다.

<-△> (능엄경) 黃卷ㅅ 가온딛 聖賢과 마조 앞노라 ㅎ니라 <楞嚴1:1ㄴ7상>  
 (언해본) 黃嚮卷권ㅅ 가온딛 聖甞賢현과 마조 앞노라 ㅎ니라 <능엄1:3ㄴ>  
 (능엄경) 먹이 다으거든 먹 아니 디근 國土 조처 보아 <楞嚴1:2ㄱ6하>  
 (언해본) 먹이 다으거든 먹 아니 디근 國國土통 조처 보아 <능엄1:5ㄱ>

《능엄경》에 나타난 한글의 종성 표기는 《능엄경언해》를 그대로 옮겨 써놓은 것에 불과할 뿐, 각자병서와 ‘ㅇ’의 폐지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표기자의 적극적인 조정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 현상을 굳이 해석하자면, ‘-△’ 종성을 표기에 반영한 문헌(1496년 육조법보단경언해)을 고려할 때, 《능엄경》의 한글표기는 1461,2년 《능엄경언해》 간행 때로부터 15세기 말까지에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가 언해본 표기의 단순한 전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한 연대를 16세기 중후반까지로 내려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4) 가점법(加點法)

이 규정은 방점법(傍點法)이라고도 하며, 음절(/자절)로 형성된 글자의 왼쪽에 점(點. 1점

거성, 2점 상성, 0점 평성)을 찍어서 해당 음절의 성조(聲調)의 고저(高低)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능엄경언해》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 반영되었으나, 《능엄경》의 한글표기에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표기 주체의 한글표기 대상이 성조에 있지 않고 번역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점법(방점법)의 제정은, ‘훈민정음’ 제정자가 한글 표기를 통해 문장뿐만 아니라 초분절 음소까지 정밀하게 표기하는, 이른바 ‘발화를 문자로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발화로 재현함으로써 ‘正音’으로 통일하려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성조의 문자화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공통적으로 규정화된 성조치[調値]에 따라 암호와 해독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당시 ‘훈민정음’ 제정자가 목표로 삼았던 국어표준음[正音]으로의 통일은 실현가능한 주제였을 것이다.

《능엄경언해》(1461,2)는 그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점을 표시해 간행했다. 그러나 《능엄경》 한글표기에서는 굳이 그것이 필요 없고, 다만 불전의 내용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생략한 것이다. 표기자의 의도(목적)에 따라 방점 표기 여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여부로 한글표기의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훈민정음> 규정이든, <언문자모> 규정이든 모두 가점법(방점법)은 갖추고 있으므로, 이것으로 표기자가 숙지한 한글 체계를 뭐라고 규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두 규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한자의 의미 구분을 위한 권성점(권발) 규정 유무인데, <훈민정음>에는 없으나, <언문자모>에는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 《능엄경》에는 유의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예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권성점이 표기된 자료가 몇 군데 발견되기는 한다. (易° 쉽다)

### 2.3. 《능엄경》의 석독 한글표기 오류 및 기타

이 절에서는 《능엄경언해》의 언해문을 《능엄경》에 전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지적한다. 표기자가 언해본의 내용을 아주 정성스럽게 옮겨 적어서 그런지 그리 많지는 않다. 이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성립연대 추정에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의 밝은 혜안을 기다린다. 괄호 밖은 《능엄경》 표기이고, 괄호 안은 언해본 표기이며, 장차는 능엄경의 출처이다.

- (1) 부더(부터)(1:1ㄱ상) 조죽와(조죽와)(1:1ㄴ) 혼劫곰(×)(혜)다(1:2ㄱ난하) 프리 물니  
(물리)이셔(1:4ㄱ상) 므득(믄득)(1:5ㄱ) 건내떡(뽽)에(1:9ㄴ8) 上座(座)(1:12ㄱ상)  
迷或(惑)(1:13ㄱ상) 바(반)득기(1:27ㄱ) 迷或(惑)妄ㄴ(1:31ㄱ8) 脆音萃(2:2ㄱ) 悴  
취(2:2ㄴ7) 如日顔듬미(듬미)(2:3ㄱ2) 瞥므득(믄득)(2:8ㄴ4) 名木可憐慙어엿바다  
ㅂㅂ (2:13ㄱ 6) 妄度혀(혜)물也(2:18ㄱ7) 挽音万자바르(느)리혀(2:18ㄴ3) 縮운추  
미(움초미)(2:18ㄱ6) 須몬덕(모덕)(2:21ㄴ1) 是何어던(엇던)物トㄱㅅ(2:23ㄴ6) 几  
느書案곤흔거시라(2:34ㄴ상2) 目누내셔(누네셔)(2:46ㄱ3)(2:46ㄴ5)
- (2)가. ①暈과②適과珮③玦와曄와④字와飛와流와負와耳와⑤虹과⑥蜺에<능엄2:85ㄴ>  
나. 暈音運日傍氣也適音釋刮往~蜺音倪白氣起也(楞嚴2:36ㄱ3-5상)<능엄2:125ㄴ>

(1)은 표기자가 《능엄경》에 기입한 자료인데 오류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듀미’에 대한 ‘뉘미’나 ‘모딧’에 대한 ‘몰딧’, 그리고 ‘믈리’에 대한 ‘믈니’는 16~17세기 표기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누내셔’는 ‘누네셔’의 잘못으로, 언해자료를 검색해보면 이와 같은 표기가

임진란 이전 복각본인 구급방언해(1466)에 나타난다. 그런데 나머지 한글표기도 그렇게 유사한 예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오기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으므로 차차표기까지 아울러 보고 성립연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가)는 경본문에 대한 언해문이고, (2나)는 한문본 《능엄경》에 협주로 난상에 제시한 음석(音釋) 자료인데, 6개 한자어에 대한 것들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증거가 있지만, (2나) 하나만 가지고도 《능엄경》이 《능엄경언해》(1461,2)를 전적으로 참고하여 만든 교육자료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능엄경》에는 이들 한자에 대한 한자음 정보만 제공되어 있는 데 반해, (2나)의 음석 자료는 《능엄경언해》의 제2권 말미 <音釋>의 <集註>에만 실려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 2.4. 《능엄경》의 자료적 성격과 표기의 주체

이제, 원각사 소장본 《능엄경》의 자료적 성격과 표기 주체에 대해 정리해보자.

《능엄경》은 불교강원(오늘날에는 ‘승가대학’)의 학제에서 사교과에 드는 필수경전으로서, 고려시대 이래로 전국 여러 사찰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불교경전 중의 하나다.

원각사 소장본 《능엄경》(권1·2)은,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불교경전의 이해를 위한 부속자료들로 판단해볼 때, 불교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인 《능엄경》 강의의 위해 강주(講主=법스승)가 개인적으로 축적한 교육자료 즉 강본(講本)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문의 행간 또는 한자의 자간에 베풀어 놓은 석독 한글표기와 차차표기 자료. 둘째, 광곽 밖의 난외에 베풀어 놓은 경본문 협주의 면밀한 기입. 셋째, 어려운 한자의 경우 음과 뜻[音釋] 자료의 기입과 책 전체에 일관되게 표시되어 있는 번역 순서 표시 등이다.

불교강원의 교과과정으로 볼 때, 이 《능엄경》은 사교과반에서 학습하는 필수경전으로, 몇 개 승가대학(기존의 ‘불교강원’)의 학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승가대학(기존의 ‘불교강원’)의 교과과정

| 기관명                       | 1학년(沙彌科)                   | 2학년(四集科)                   | 3학년(四敎科)                  | 4학년(大敎科)                           |
|---------------------------|----------------------------|----------------------------|---------------------------|------------------------------------|
| 1910년대 불교강원 <sup>7)</sup> | 十戒、誦呪、般若心經、禮懺、初心文、發心文、自警文( | 大慧書狀、高峰禪要、禪源諸詮集都序、法集別行錄節要( | 능엄경, 기신론, 금강반야경, 원각경      | 화엄경, 선문염송, 전등록                     |
| 운문승가대학                    | 치문, 불교학개론, 인도불교사 등.        | 중국불교사, 구사론 등               | 능엄경, 금강경, 한국불교사 등         | 화엄학개론, 화엄학 등                       |
| 동방불교대학                    |                            |                            |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 | 화엄경, 선문염송, 경덕전등록, 십지론, 선가구감, 묘법연화경 |

7) 이것은 이능화(1918: 568)에서 제시된 자료를 필자가 편집한 것이다.

이 원각사 소장 《능엄경》은, 《능엄경언해》(1461,2) 간행 후에 입수하여 그것을 참고해, 불교강원의 사교과반 학인들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대단히 정성스럽게 붓으로 경전 독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한글로 기입한 강독 교재다. 추측건대, 《능엄경언해》를 일괄적으로 갓출 수 없으므로, 기존 사찰에서 오래 간행해 사용해오던 한문본 《능엄경》을 주교재로 쓰고 거기에 맞추어 기입한 책일 것이다. 특히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는 세조와 신미대사를 비롯하여 당대 불교계의 집단지성들이 역경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이룩한 한글불전이다. 따라서 그 어느 자료보다도 공신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 문자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참고서 겸 수행 지침서요 교수·학습용을 불전으로서 대단히 선호하는 경전이었기에 선택되었을 것이다.

### 3. 맺음말

1) 이 글에서 살펴본 원각사 소장 한문본 《능엄경》 자료는, 1461년 세조와 신미대사가 주도하여 역경위원회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능엄경언해》(1462)를 대본으로 삼아, 표기자(한문본 책주)가 숙지하고 있는 한글 규정으로 여과·조정하여 적용한 자료이다.

2) 한문본 《능엄경》은 불교강원의 사교과 강독을 위한 교육자료로 만들어진 강본(講本)으로서, 이 자료를 만든 주인공은 불교강원의 강주(講主)가 틀림없다. 그 시기는 《능엄경언해》(1461,2)가 간행된 때로부터 15세기 말 사이, 늦어도 16세기 중·후반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능엄경》의 한글표기를 조사해본 결과, <훈민정음> 자모규정의 관점에서 초성자모는 후음의 <ㅎ>과 전탁음 6자(ㄱ ㅋ ㆁ ㆁ ㆁ ㆁ)를 전혀 쓰지 않는 16자모이고, 중성자모는 11자모로 구성된 한글 27자모 체계로 되어 있는 <언문자모> 규정을 기반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기자는 《능엄경언해》에 <훈민정음> 규정이 적용된 한글 표기를 <언문자모> 규정으로 여과·조정해 새롭게 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자료의 출현으로, 현재 전해지는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1527)에 실린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가 실제로 민간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약 그렇다면 세종 25년(1443) 12월에 세종이 친제하여 신하들에게 간략히 보여준 ‘예의(例義)’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 《능엄경》에 적힌 한글표기도 <언문자모> 규정에 준하여 기록한 자료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관판자료가 아닐 경우, <훈민정음> 단선체계로만 자료를 분석하지 말고, <언문자모> 규정도 민간에 통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능엄경》을 검토하면서 느낀 소회는, 표기자의 사건이 들어 있지 않은 자료는 그 제작 연대를 추정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표기자의 조심성이 두드러지고, 언해본을 베낀 정성이 대단해서 실수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대물림으로 받아쓴,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중층적 자료일수록 누적된 정보 때문에 자료의 연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글표기와 함께 행해진 차자표기의 특성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면 그 성립연대를 좀 더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헌자료를 검토할 때 항상 유의할 점은, 문헌자료의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결/장서인/어보/자료의 재질(옥책) 등 외적 증거들에 이끌려 문헌을 대하면 평정심

을 잃을 위험이 있다. 외형은 물리적으로 가공해 진품(원본)처럼 만들어낼 수 있으나, 그 안에 내장된 언어문화적 요소는 그렇게 꾸며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문헌자료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내장된 언어 자료를 감정의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참고문헌

- 강신항(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 강창석(2014), 언문자모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22,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7~52.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7-48, 동방학회, 793~821.
- 유창균(1979),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 이강혁(2021.12월), 圓覺寺 所藏 《楞嚴經》 卷1 講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자료.
-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몇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1~15.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 이동립(1973),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이십칠자 책정근거, 《양주동박사 고회기념논문집》, 탐구당, 113~144.
- 이동립(1975), 훈민정음의 창제경위에 대하여: ‘언문자모이십칠자’는 최초원안이다, 《국어국문학논문집》 9-10,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7~22.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정우영(2005),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93~326.
- 정우영(2012), 중기국어 불전언해의 역사성과 언어문화사적 가치,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295~340.
- 정우영(2014나),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 구조와 ‘해례편’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 국어학회, 103~153.
- 정우영(2018),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병서행’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학》 88, 국어학회, 33~73.
- 조규태(2006), 옛한글 표기법, 《용비어천가》, 서울: 한국문화사, 305~325.
- 지춘수(1986), 국어표기사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 최준호(2021.11월), 圓覺寺 所藏 《楞嚴經》 卷1 講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자료.
- 하정수(2021.09월), 圓覺寺 所藏 《楞嚴經》 卷1 講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영규(1993), 「능엄경언해」,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123~144.
- 허인영(2021.10월), 圓覺寺 所藏 《楞嚴經》 卷1 講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자료.
- <http://stdweb2.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1.30. 웹사전)
-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일산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특징

-어순 표시를 중심으로-

장경준(고려대)

### 1. 머리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소재 원각사(圓覺寺, 주지 정각正覺 스님) 소장본 『능엄경楞嚴經』(이하 '원각사본 능엄경')의 구결은 2016년 1월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알려졌고(발표자 정재영), 2021년 2월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개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발표자 안대현). 이후 2021년 9월~12월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앞부분 일부를 같이 살펴보고(발표자 하정수, 허인영, 최준호, 이강혁),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sup>1)</sup>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음독구결과 함께 한문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석독 표기, 어순 표시 및 관련 부호가 전권에 걸쳐 기입되어 있고, 언해본의 한글 문장과 그 밖의 한문 주석문도 적지 않은 양이 기록되어 있다. 본고는 2장에서 이 자료의 구결을 개관하고,<sup>2)</sup> 3장에서 이 자료에 기입된 어순 표시에 대해 같은 성격의 자료인 프랑스로입도서관 소장본 『능엄경』(이하 '파리본 능엄경'), 법응스님 소장본 『법화경』(이하 '법응본 법화경') 등과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4장에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 2. 원각사본 능엄경 구결 개관

원각사본 능엄경의 구결은 (1) 음독구결, (2) 석독 표기, (3) 어순 표시, (4) 언해본의 문장, (5) 그 밖의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 (2), (3)은 놓이는 자리가 대체로 고정적이다.

(예) 寂觀은 雙忘起滅홀시니 所以泯迹이라 (언해목판본 1:40ㄴ8)  
寂觀은 닐며 업수를 다 니즐씨니 자취 업게 호미라

(1) 음독구결: 원문 구결 마지막 글자의 바깥 오른쪽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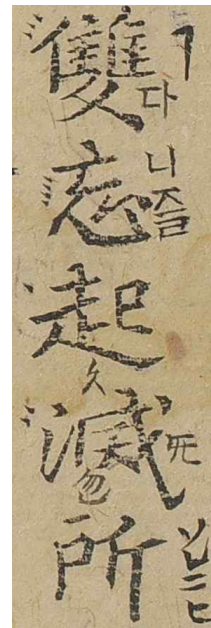
(“ッヒヒ”[홀시니])

(2) 석독 표기: 원문 해당 글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

(“ス”[며], “无”[없], “勿ヒ”[물], “다”, “니즐”)

(3) 어순 표시: 원문 해당 글자의 왼쪽

(“·”, “:”, “:”, “:”)



(1:15ㄴ3)

- 1) 필자는 다른 발표자들과 함께 2022년 1월 28일 원각사에서 원본을 열람하였다.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재영 선생님과 열람을 허락해 주신 정각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안대현(2021), 하정수(2021)에 기술된 내용을 보완하되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용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 (1) 음독구결

\* 일반적인 필사 음독구결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문 구결의 마지막 한자 바깥 오른쪽 아래에 한자의 자형을 이용한 차자借字 구결자만으로 기입하고 한글 자모는 사용하지 않았다. 구결자는 복잡한 한자의 경우 자획의 일부를 생략한 약체略體자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厓, 果, 要, 面, 應’처럼 생략하지 않은 자형도 사용하였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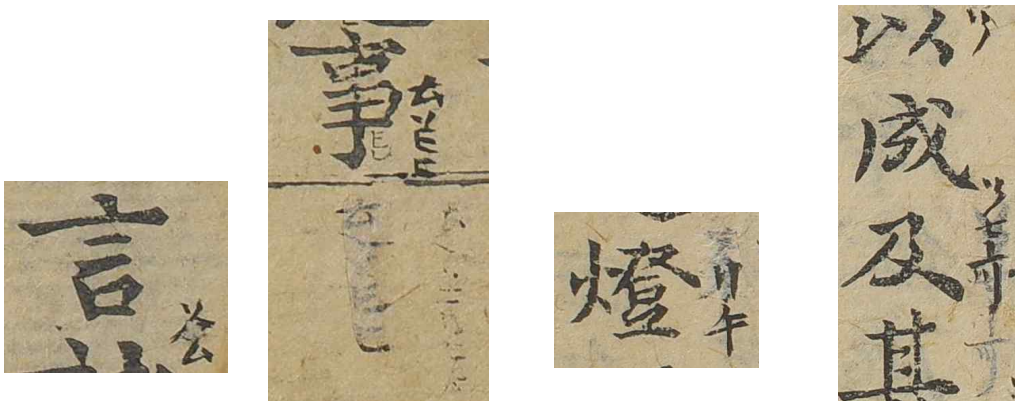
\* 음독구결은 여러 번에 걸쳐 기입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초로 기입한 구결은 세필細筆의 가는 글씨로 되어 있으며 언해본의 음독구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수정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sup>4)</sup>

\* 수정하여 새로 기입한 구결은 대체로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2차례 이상 수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수정은 최초의 구결이 언해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물을 묻히거나 긁거나 종이를 덧붙여 지운 다음, 그 자리에 언해본의 내용을 굵은 글씨로 덮어 쓴 경우가 많다. 간혹 덮어 쓰지 않고 한자의 아래쪽 다른 자리에 새로 기입하기도 하였다.

\* 두 번째 이후의 수정은 최초의 세필 구결이나 첫 번째 수정된 구결 위에 종이를 덧대고 그 위에다 굵은 글씨로 언해본의 내용을 기입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1차 수정한 구결이 언해본의 내용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결자의 자형만 바꾸거나, 구결자 'ㄴ'[이], 'ㄷ'[느]를 가려서 결과적으로 언해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같은 자형의 동일한 음독구결을 반복하거나 종이만 덧댄 채 새로 기입하지 않은 사례도 여럿 있다.

-> 이런 경우 기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음에도 굳이 종이를 덧대어 새로 구결을 기입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예)



(1:2) “헝샤디” (1:3) “케헝느니” (1:6-8) “헝리오” (1:18-6) “헝엣다가”  
 ‘ㄴ ㅅ ㅅ ㅅ’(+)굵음) ‘ㅅ ㅅ ㅅ ㅅ ㅅ ㅅ ㅅ’(+)굵음) ‘ㄴ ㅅ ㅅ’(+)굵음) ‘ㄴ ㅅ ㅅ ㅅ ㅅ’(+)굵음)

3) 음독구결보다는 석독 표기에, 음독구결 중에는 수정하여 새로 기입한 것에 생략하지 않은 구결자가 사용된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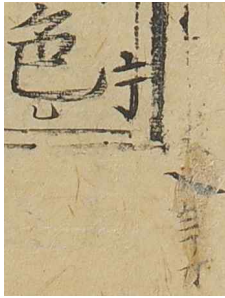
4) 안대현(2021: 77)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여말선초 『능엄경』 음독구결 자료 가운데 박진호(1996)에서 14세기 이전의 언어사실을 반영한 자료로 판단한 가람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가장 비슷하고, 일부는 남권희본 『능엄경』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중봉中縫(판심 한가운데)이 갈라져 종이 뒷면을 통해 수정 전 구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의 일부를 살펴본 결과 'ㄴ ㅅ ㅅ ㅅ', 'ㄴ ㅅ ㅅ ㅅ' 등 특징적인 고형의 표기는 보기 어려웠다.

‘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종이)

‘ㄴ ㅅ’

‘ㄴ ㅅ ㅅ ㅅ ㅅ ㅅ’



(1:42ㄱ1) “이언덩”

‘ㄴ ㅅ ㅅ ㅅ ㅅ ㅅ’(+)‘ㅅ’뒹뚱음)

‘ㅅ ㅅ ㅅ ㅅ ㅅ ㅅ’(+)종이)

‘ㅅ ㅅ’



(1:43ㄱ1) “ㅎ거늘”

‘ㄴ ㅅ ㅅ ㅅ ㅅ ㅅ’(+)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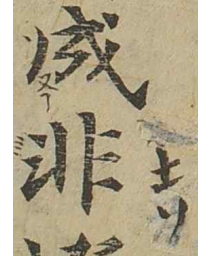
‘ㅅ ㅅ ㅅ ㅅ’



(1:45ㄴ4) “ㅣ 언덩”

‘ㅅ ㅅ ㅅ ㅅ ㅅ ㅅ’(+)종이)’

‘ㅅ 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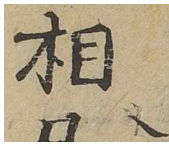


(2:37ㄱ7) “이디위”

‘ㅅ ㅅ’(+)‘ㅅ ㅅ ㅅ ㅅ ㅅ ㅅ’뒹뚱음)

‘ㅅ ㅅ ㅅ ㅅ’(+)종이 2조각)

‘ㅅ ㅅ’



(2:42ㄱ2) “이”

‘ㅅ ㅅ’(+)‘ㅅ ㅅ ㅅ ㅅ ㅅ ㅅ’뒹뚱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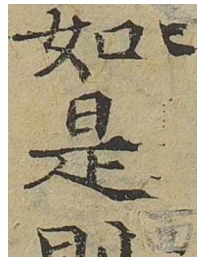
‘ㅅ’



(1:11ㄴ4) “애”

‘ㅅ ㅅ ㅅ’(+)종이)

‘ㅅ’



(2:30ㄴ6) “면”

‘面’(+)종이)

Ø



(1:2ㄴ6) “호미”

‘手 米’(+)종이)

Ø

## (2) 석독 표기

\* 석독 표기는 대체로 한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한글과 차자 구결자를 주로 사용하여 기입하였고 간혹 한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토자가 석독 표기를 통해 기록하고자 한 내용은 언해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 석독 표기에 한글, 차자, 한자를 혼용한 것은 현토자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서 공적인 기록이기보다 사적인 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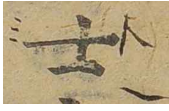
\* 석독 표기에 사용된 차자 구결자는 음독구결과 자형이 다른 경우가 많다(단, 수정 전 최초로 기입된 음독구결은 자형 확인이 어려움).

-> 석독 표기의 현토자와 수정된 음독구결의 현토자는 다른 사람이 분명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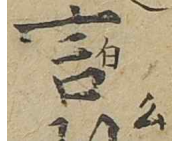
\* 석독 표기에 사용된 한글은 각자병서나 ㅎ이 쓰이지 않는 등 언해본의 표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석독 표기에 사용된 한자는 혼독해야 한다. 주로 명사나 동사 어간을 적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석의 기능을 겸한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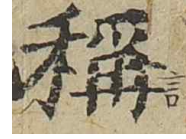
(1:1ㄱ3) “사르미”



(1:22ㄴ2) “술오디”



(1:35ㄴ8) “니르시논”



(2:7ㄴ7) “니르시고”

## (3) 어순 표시

\* 한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의 왼쪽에 번호를 매기는 점과 숫자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부독자를 표시하는 부호나 멀리 떨어져 있는 원문의 한자를 적어 놓기도 하였다.

(->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봄.)

## (4) 언해본의 문장

\* 언해본의 언해문이나 한글 주석문이 원문의 행간이나 변란 바깥에 산발적으로 기입되었다. 석독 표기와 마찬가지로 한글뿐 아니라 차자와 훈독 한자도 사용하고, 한글 표기에는 각자병서와 ㅎ이 쓰이지 않았다. 기존 구결 위에 종이를 덧대고 그 위에 언해문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예)

(1:10ㄴ8) “初心은 처심 모습 니르와돈 사르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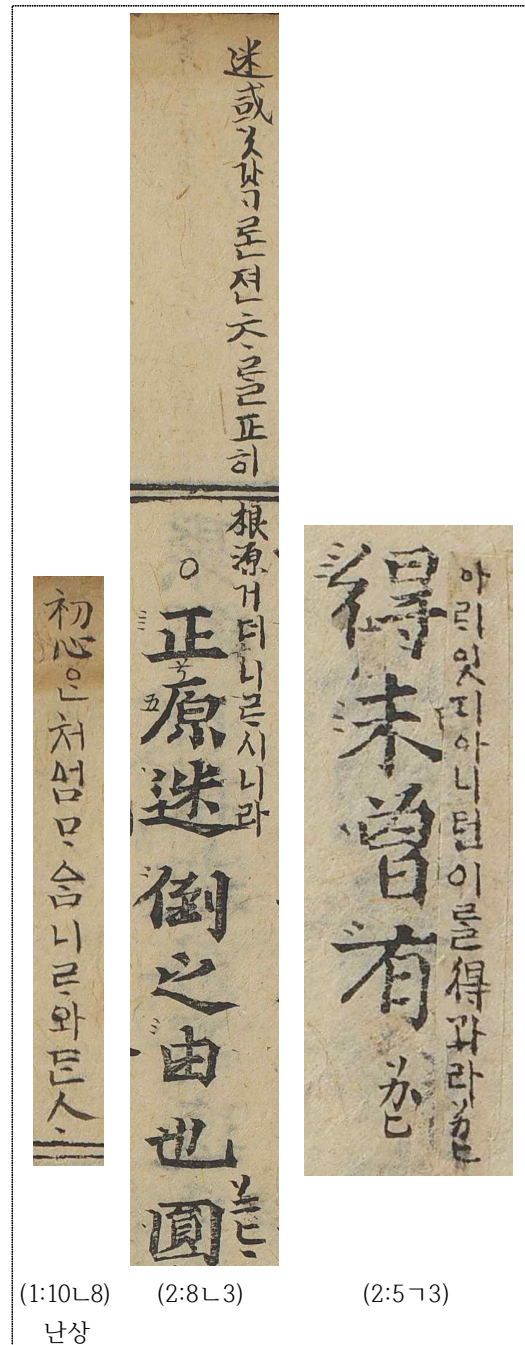
(2:8ㄴ3) “正原迷倒之由也 ㅎ시니라”

“迷惑하며 갓론 전츠를 正히 根源 거더 니르시니라”

(2:5ㄱ3) “得未曾有 ㅎ더라”

“아리 잇디 아니던 이를 得과라 ㅎ더라”

-> (2:5ㄱ3)의 예는 애초에 (未자 오른쪽에) “턴이를”, (曾자 오른쪽에) “아리”를 기입하였다가 길게 종이를 덧대고 그 종이 위에 이 구결 전체의 언해문을 적은 것임을 원본 조사에서 확인함.<sup>5)</sup>



(1:10ㄴ8)

(2:8ㄴ3)

(2:5ㄱ3)

난상

5) 원문의 得자 안쪽에는 석독 표기 구결자의 일부가 보이는데, 이것은 원래 “ㅅ”[과라]를 적었다가 그 위에 종이를 덧댄 결과 “ㅅ”의 윗부분과 “ㅅ”의 첫 획 마지막 부분만 보이는 것임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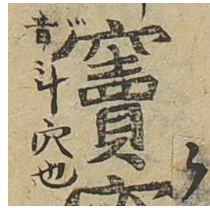
## (5) 그 밖의 요소

\*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해본 이외의 주석서에서 인용한 한문 주석문과 더불어 어려운 한자의 독음, 의미, 성조 등을 표시한 주석이나 부호(‘○’)를 원문의 행간, 변란 바깥, 한자의 특정 위치에 기입한 예가 많다.

(예)



(2:2ㄴ7) 한자음



(2:18ㄴ4) 한자음+의미



(2:36ㄴ3) 거성(‘나타나다’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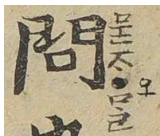


[언해] 既不中理 訖시 - 訖마 理에 맞디 訖홀씨

(2:22ㄱ7) ※ 中이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가 아닌 ‘맞다/맞추다’를 뜻하는 동사로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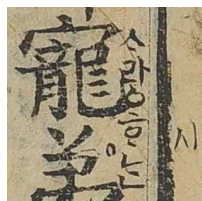
\* 오탈자의 교정, 토나 주석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호(특히 ‘○’)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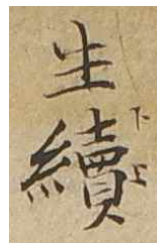
(2:19ㄴ4)

“문즈오물”(탈자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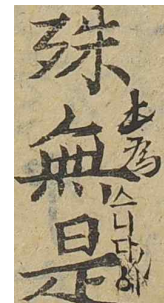
(1:35ㄱ1)

“스랑訖시논”(탈자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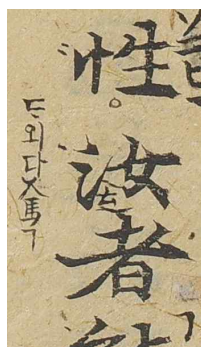
(1:38ㄴ6난상주석)

“續生”(상하 교정)



(2:24ㄴ6)

“업스니이다”(상하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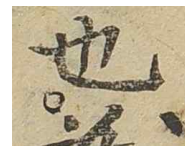
(2:16ㄴ5)

“性汝者訖- 네게 性드외다 訖샤문”(현토 위치)



(2:33ㄱ4)

“開示 訖산”(현토 위치)



(2:19ㄱ3)

(난상에 주석 있음 표시)



(난상)

## 3. 원각사본 능엄경 구결의 어순 표시

## (1) 점과 숫자를 이용한 어순 번호의 표시

\* (놓이는 위치)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어순을 표시하는 점, 숫자는 한자의 왼쪽에 고정적으로 놓인다. 이는 한자의 오른쪽에 고정적으로 놓이는 파리본 능엄경의 경우와 대비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불규칙하게 놓이는 법응본 법화경의 경우와도 차이를 보인다.

(예)



(1:19ㄱ6)

(원각사본 능엄경: 왼쪽에)



(1:19ㄱ6)

(파리본 능엄경: 오른쪽에)



(1:45ㄱ5)

(법응본 법화경: 양쪽 모두)

[능엄] 欲破在內之心이 不先見內샏다 - 안해 잇는 묵슴미 몬져 안 보디 몬호몰 허루려 흥샏다

[법화] 亦莫不由斯道也 | 샏다 - 쏘 이 도를 분디 아니하시니 업스샏다

\* (번호 매기는 방식) 조선시대 구결 자료에서 점과 숫자로 어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해석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독順讀, 그 반대인 역독逆讀 여부와 무관하게) 해석에 반영되는 모든 한자에다 순서대로 숫자를 하나씩 더해 가면서 번호를 붙임.

(단, 어순이 복잡한 문장은 중간에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길 수 있음.)

㉡ 해석의 방향이 순독일 때에는 같은 번호를 달다가 역독으로 바뀔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더하여 번호를 붙임.

(단, 어순이 복잡한 문장은 중간에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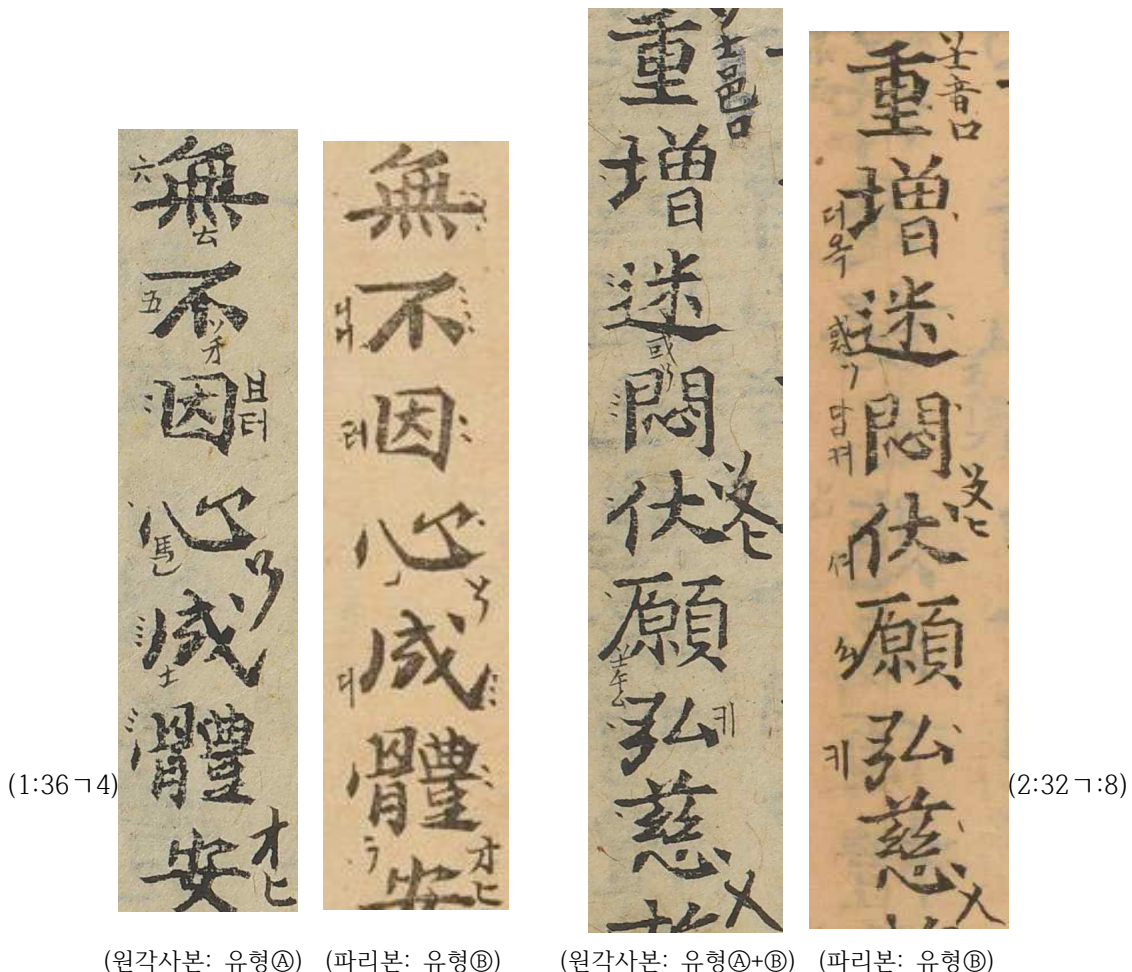
※ 법응본 법화경은 일관되게 유형㉠을 취함.

※ 파리본 능엄경은 일관되게 유형㉡을 취함.

※ 원각사본 능엄경은 유형㉠을 위주로 하되 유형㉡을 혼용함.

(최초로 순독하는 어순에서 유형㉡을 적용하여 어순 번호 1을 반복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어순 번호 2부터는 유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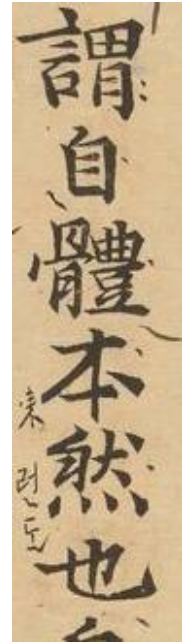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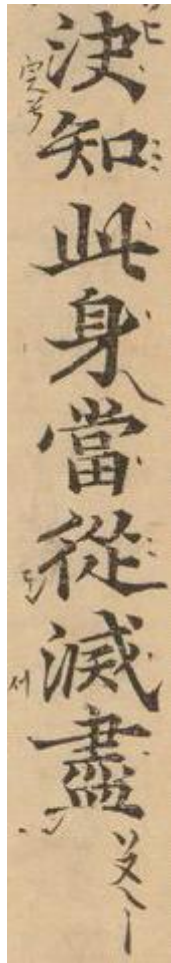
[언해] 既無不心<sub>하</sub>야 成體<sub>아니</sub> - <sub>호마</sub> <sub>무</sub> <sub>스</sub> <sub>물</sub> <sub>브터</sub> <sub>體</sub> 이디 아니<sub>하</sub>리 업거니

[언해] 重增迷悶<sub>하</sub>노니 伏願弘慈<sub>하</sub>사 - <sub>더욱</sub> <sub>迷惑</sub> <sub>하</sub>야 답쳐 <sub>하</sub>노니 <sub>굿</sub> <sub>브러</sub> <sub>서</sub> 願<sub>하</sub>스오디 키 <sub>慈</sub> <sub>하</sub>사



(2:21-3)

(원각사본: 유형④) (파리본: 유형⑥)



(2:28-3)

(원각사본: 유형⑥) (파리본: 유형⑥)

[언해] 決知此身이 當從滅盡호노이다 - 決定히 이 모미 반드기 업서 다오물 조췌들 아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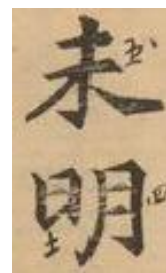
[언해] 自然은 謂自體 | 本然也 | 라 - 自然은 제 體 本來 그러호물 나르니라

\* (번호를 기입한 시점)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어순 번호는 음독구결이나 석독 표기보다 나중에 기입되고, 음독구결 수정을 위한 종이를 붙이기 이전에 기입된 것으로 볼 만한 사례들이 있다.

(예)



(2:40-4)



(2:40-7)

(원각사본, 파리본 모두 번호 4, 5를 정상 기입) (원각사본 번호 4는 음독구결을 피하고 종이에 가려짐)

[언해] 未明 - 불기디 못흐니



(1:11-7)

(“아니흐이를”을 피해 어순 번호를 위쪽에 기입)



(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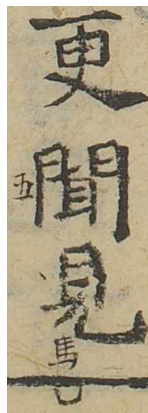
(‘ッハム’[하샤디]를 피해 ‘皆’[다]를 왼쪽에 기입)  
(‘皆’를 피해 어순 번호를 아래쪽에 기입)

[언해] 得未曾有하더니 - 아래 잇디 아니흐 이를 得과라 하더니

[언해] 得成菩提하샤디 凡資始於此하시니라 -菩提 일우물 得하샤디 다 이에 브터 비르스시니라



(2:32-7-8)



(‘ッハム’[하샤디]를 피해 번호 3을 위쪽에 기입)



(1:41-7)

(번호 1이 음독구결을 수정한 종이에 가려짐)

[언해] 更聞見見非見하좁고 - 다시 보물 보미 봄 아니라 하샤물 들좁고

[언해] 不在眼也 | 로다 - 누네 잇디 아니흐 들 足히 알리로다

-> 기입 시점이 “음독구결(수정 전) > 석독 표기 > 어순 번호 > 음독구결 수정(+종이)”일 가능성이 큼.

## (2) 목적어가 길고 복잡한 문장의 어순 표시

\* 한국어는 동사가 목적어의 뒤에 오고 중국어는 그 반대다. 따라서 목적어가 길고 복잡하면 한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번호를 매길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문에서 멀리 떨어진 글자를 한국어로 읽을 때 바로 앞뒤로 붙여서 읽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구결 자료는 이런 경우에 부호를 사용하거나 목적어의 마지막 부분에 동사로 쓰인 한자를 적어주기도 하였다. 다만, 원각사본 능엄경은 부호의 사용이 보이지 않고 동사로 쓰인 한자를 적어준 사례만 관찰된다.

\* 그리고 파리본 능엄경은 동사와, 목적어의 구성 성분 중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글자(A) 또는 마지막에 놓이는 글자(B)에<sup>6)</sup> 부호를 기입한 사례들이 있는데,<sup>7)</sup>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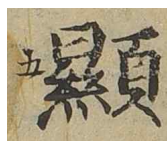
유형①: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의 A나 B에 ‘上’을 기입. (※권1~2에서 용례 2개 발견)

유형②: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기입하지 않음. (※권1~2에서 용례 10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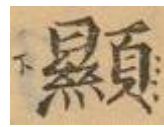
유형③: 동사와 목적어의 A에 모두 ‘下’를 기입. (※권1~2에서 용례 3개 발견)

유형④: 동사와 목적어의 B에 모두 ‘O’를 기입. (※권1~2에서 용례 1개 발견)

(유형①의 예)



(1:10~14)



(원각사본: 부호를 사용하지 않음)

(파리본: 동사 ‘顯’에 ‘下’, 목적어의 A ‘在’에 ‘上’ 표시)

[언해] 以<sup>顯</sup>阿難示迹이 實無虧汚하야 意<sup>在</sup>拔濟也<sup>上</sup> 닐<sup>하</sup>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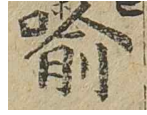
- 阿難入 자죄 뵈요미 實로 허리며 더러유미 업서 쁘디 싸허며 濟度호매 잇는 돌 나토니라

6) 목적어의 구성 성분 중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글자(A)와 마지막에 놓이는 글자(B)는 일치할 수도 있고 (2:36~78 용례 참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1:10~14, 2:51~72, 2:23~75 용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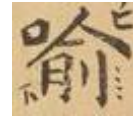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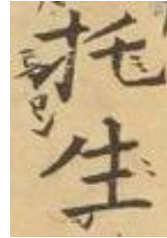
7) 하정수(2020: 28-32)는 파리본 권1~2에 사용된 부호 ‘下’의 용례 8개를 검토하여 ‘후독자後讀字 표시’로 파악하였는데, 본고에 제시한 여러 유형과 다른 자료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유형①은 A에 기입된 것과 B에 기입된 것이 하나씩이다. 그리고 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도치된 구문에서 주어, 동사에 모두 ‘下’가 기입된 예(1개)와, ‘X호미 묻히다’로 언해된 ‘不應X’구문에서 ‘不’, ‘X’에 모두 ‘下’가 기입된 예(2개)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각각 유형②, 유형③에 포함시켰다.

(유형②의 예)



(2:51-1-2)



(원각사본: 부호를 사용하지 않음)

(파리본: 동사 '喻'에 '下', 목적어에 표시 없음)

(원각사본: 목적어의 A '托'에 동사 '喻'를 적어 넣음)

[언해] 喻性이 無生滅하며 無捨受커늘 以依幻妄身홀시 故로 逃形於此호야 托生於彼호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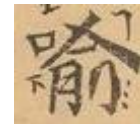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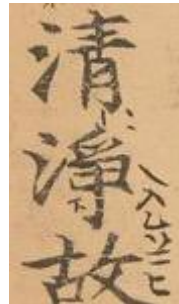
- 性이 생과 滅왜 업스며 브리며 바도미 업거늘 幻妄호 모뎡 브틀씨 이런드로 이에 열구를 逃妄호야 더에 생을 브투물 가줄비시니

->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목적어 마지막 성분에 동사로 쓰인 한자를 기입한 것은, 이 자료의 석독 표기에 혼동하는 한자를 적은 것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어순 표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분됨.

(유형③의 예)

(원각사본은 낙장)

(2:3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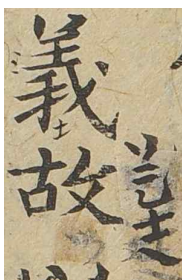


(파리본: 동사 '喻'에 '下', 목적어의 A '淨'에 '下'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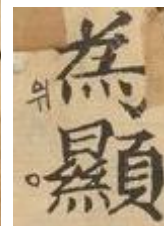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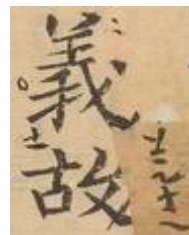
[언해] 喻有漏境界는 唯妄覺이샤 見之는 卽同業妄見也 | 오 彼無漏者는 見이 本清淨인들호시니

- 漏 잇는 境界는 오직 妄호 覺이샤 보몬 곧 험가짓 業의 妄見이오 더 漏 업스닌 보미 本來 清淨호 들 가줄비시니

(유형④의 예)



(2:23-4-5)



(원각사본: 부호를 사용하지 않음)

(파리본: 동사 '(爲)顯'에 'O', 목적어의 B '義'에 'O' 표시)

[언해] 佛意에 爲顯見과 與見緣과 如虛空花호야 於中에 本無是와 非是義호실시 故로 ...

- 부텃 ㅅ데 覿과 覿의 緣과 虛空엿 곳 곤 ㅎ야 그 中에 本來 이와 이 아닌 ㅅ디 업수들  
爲 ㅎ야 나토실씨 이런 드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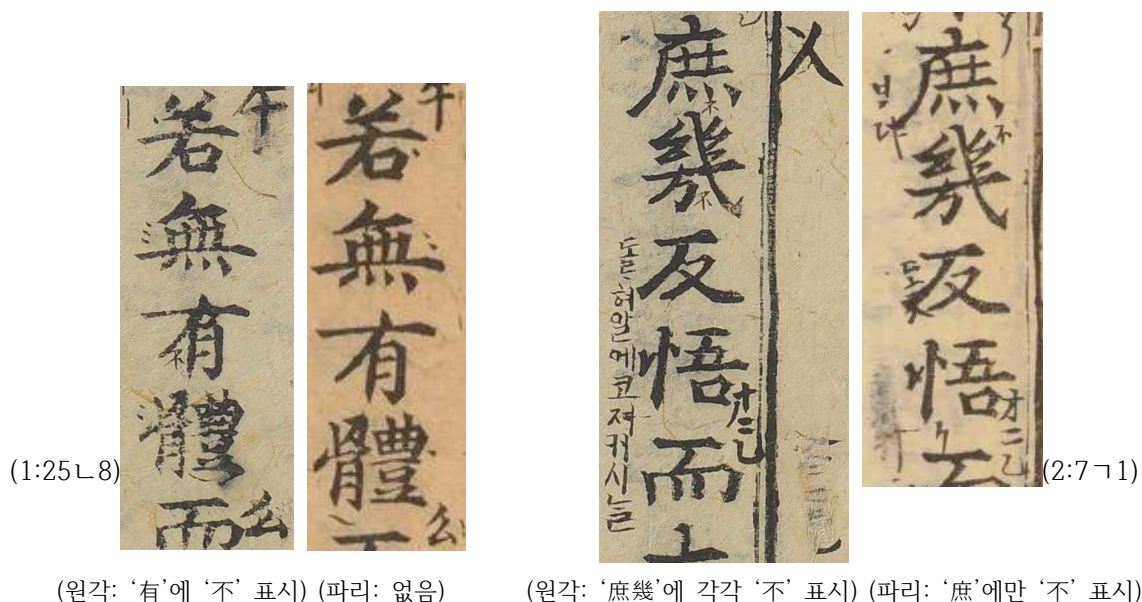
-> 파리본 능엄경의 유형④에서 동사와, 목적어 성분의 마지막에 놓인 글자(B)에 기입된 ‘O’는 고려시대 자료인 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66에 각필로 기입된 ‘시작표시점, 끝표시점’(권인한 외 2018: 118; 장경준 2021ㄴ: 60-62)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법응본 법화경이나 가람문고본 『구결원각경口訣圓覺經』 등은 목적어가 길고 복잡한 문장의 어순 표시에서 파리본 능엄경과는 또 다른 부호 사용 양상을 보이는데(장경준 2021ㄴ), 본고는 원각사본 능엄경 구결에 집중하기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함.

### (3)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때 읽지 않는 한자의 어순 표시

\* 한문과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때 결과적으로 읽지 않는 한자인 부독자不讀字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독자에는 당연히 어순 번호가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독자에 특정한 부호를 달아 부독자임을 표시하기도 하는데,<sup>9)</sup> 원각사본 능엄경과 파리본 능엄경도 부독자에 ‘不’을 기입한 사례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



(원각: ‘有’에 ‘不’ 표시) (파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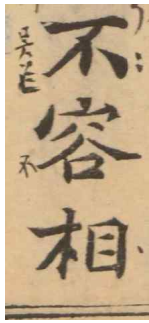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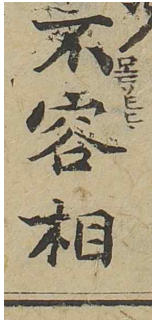
(원각: ‘庶幾’에 각각 ‘不’ 표시) (파리: ‘庶’에만 ‘不’ 표시)

[언해] 若無有體호디 而能合者ㄴ댄 - ㅎ다가 體 | 업수디 能히 어웁딘댄

[언해] 將與原窮顛倒之本 ㅎ샤 庶幾反悟 | 어시닐

- 장츠 드려 顛倒의 根源을 推尋 ㅎ야 窮究 ㅎ샤 도르혀 알에 코져 커시닐

9) 선행 연구로 장경준(2019)에서 법응본 법화경의 부독자 표시(‘不’과 ‘|’)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 있고, 안대현(2021)과 장경준(2021ㄱ)에서 각각 원각사본 능엄경,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법화경』에 기입된 부독자 표시(‘不’)의 일부가 소개되었다.



(1:38ㄱ5)



(2:18ㄱ8)



(2:28ㄴ7)

(원각: 없음, 파리: '容'에 '不' 표시) (원각: '應'에 '不' 표시, 파리: 없음) (원각: '爲'에 '不' 표시, 파리: 없음)

[언해] 迷와 悟에 在已하야 不容相代也 | 나라 - 모름과 아롬과 내게 이셔 서르 ㄱ디 몰ㅎ느니라

[언해] 不應說言 更除虛空엿 方相所在니라 - 다시 虛空엿 方ㅎ 相 잇는 딜 더루려 닐오미 몰ㅎ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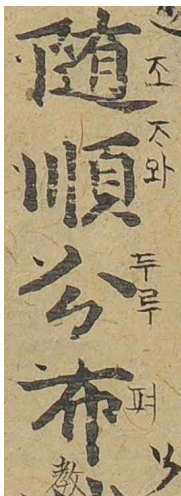
[언해] 假物이 爲因이오 循物이 爲緣이니 - 物을 브투미 因이오 物을 조초미 緣이니

#### (4) 둘 이상의 한자가 하나의 어휘로 번역될 때의 어순 표시

\* 한문을 번역할 때 둘 이상의 한자가 한국어에서 하나의 어휘로 대응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에 원각사본 능엄경은 한글 석독 표기를 여러 한자에 걸쳐도록 기입하였다. 그리고 어순 번호를 달 때에는 유형④는 한자와 한자 사이에 달고, 유형⑥는 모든 한자에 다는 경향을 보인다.

-> 한편 파리본 능엄경과 범응본 법화경은 여러 한자가 한 덩어리임을 표시하는 불임선(또는 합부)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원각사본 능엄경에서는 불임선을 쓰지 않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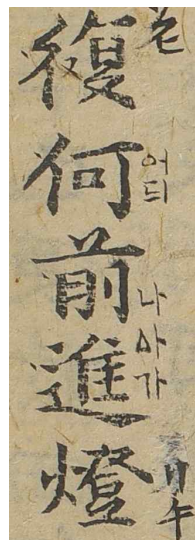


(1ㄴ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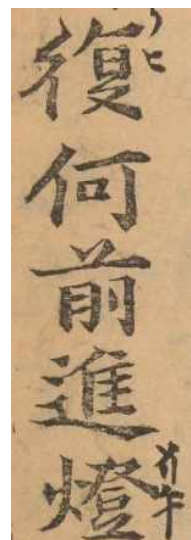


(파리본)

(원각사본: 유형⑥)



(1:6ㄱ8)



(파리본)

(원각사본: 유형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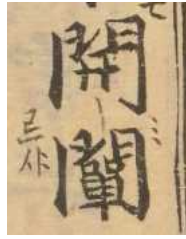
[언해] 隨順分布 하야 - 조쫌와 두루 퍼

[언해] 復何前進 하리오 - 쫌 어딴 나사가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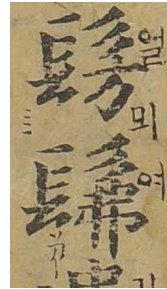


(1:13-11)

(원각사본: 유형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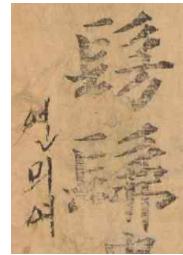


(파리본)



(1:4-8)

(원각사본: 유형④)



(파리본)

[언해] 欽仰如來入 開闡 無遮호샤 - 如來入 마곰 업수물 여르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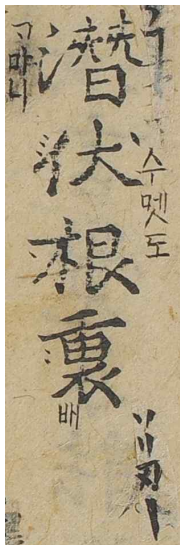
[언해] 亦 歸 遺意矣로다 - 쏘 기틴 뿌디 얼의여호도다

#### 4.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1)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석독 표기와 (수정 이후) 음독구결은 언해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나 간혹 그렇지 않은 예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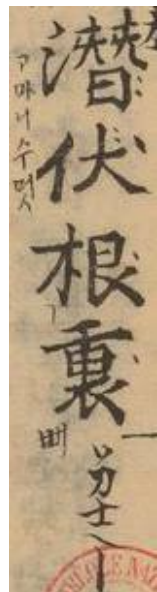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파리본 능엄경, 법응본 법화경 등 다른 자료들에서도 나타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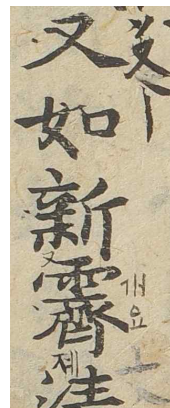


(1:22-3)

(원각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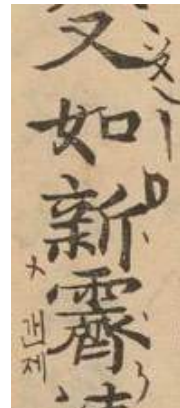


(파리본)



(1:43-7)

(원각사본)



(파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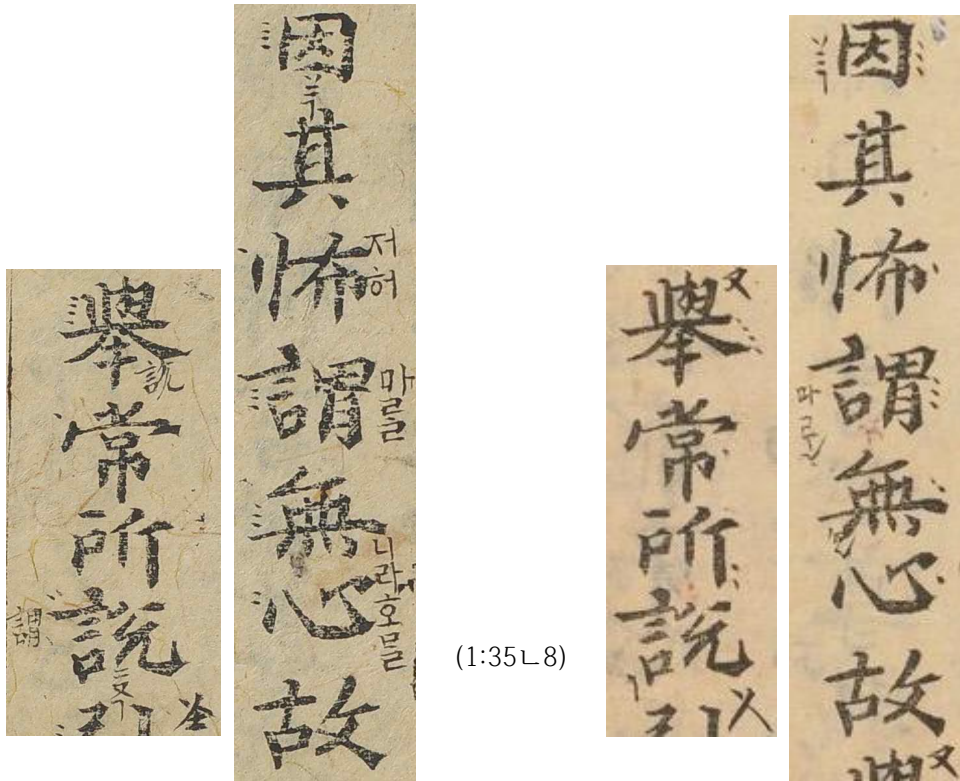
[언해] 潛伏根裏 호도소이다 - 그마니 根 쏘배 수멧도소이다

[언해] 又如新霽 淸陽이 升天호야 - 또 새로 제 淸陽이 하늘해 올라

(2)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어순 번호를 잘못 매겼다고 판단되거나 구결자 자형이 특이한 사례가 간혹 있는데, 파리본 능엄경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원각사본과 파리본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임.

(예)



(원각사본: ‘謂’를 부독자로 보지 않고 ‘마를’로 잘못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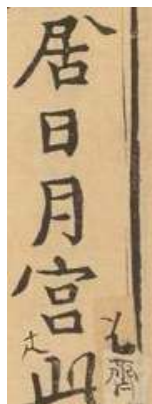
(파리본: 원각사본과 동일)

[언해] 因其怖謂無心故로 舉常所說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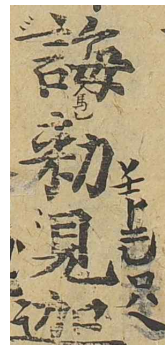
- 저허 무슴 업스니라 호몰 因호신 전츠로 상네 니르시는 마를 드러 니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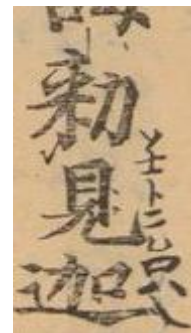
(원각사본)



(파리본)



(원각사본: ‘只’가 특이함)<sup>10)</sup>



(파리본: 원각사본과 동일)

[언해] 勝藏寶殿이 居日月宮<sup>홀제</sup> - 勝藏寶殿이 日月宮에 이쇼물 불저그

[언해] 我 | 昔에 未承諸佛<sup>호스와실제</sup> - 내 네 諸佛入 그르치사물 듣좁디 몬호스와실 제

10) 이 예는 하정수 선생님의 교시(‘只’가 ‘其’의 약체자로 보인다는 견해)로 알게 되었음을 밝힌다.

(3)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일한 석독 표기가 두 번 달린 경우가 있다.  
(예)



(2:26ㄴ1)



(원각사본: ‘ノ未·’가 두 번 기입됨)

(파리본: 문제 없음)

[언해] 常住不滅也 | 라 - 상네 住하야 업디 아니호미라

(4) 원각사본 능엄경에서 기능을 알기 어려운 부호(특히 ‘○’)가 간혹 보인다.

-> 파리본 능엄경이나 법응본 법화경도 마찬가지로인데 용례는 생략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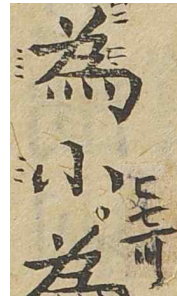


(1:36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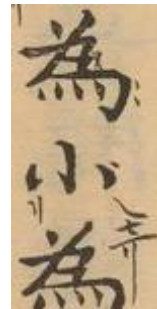


(원각사본: 기능 미상 ‘○’)

(파리본)



(2:17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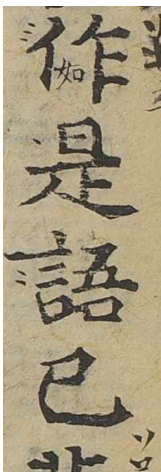


(원각사본: 기능 미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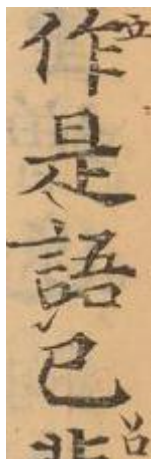
(파리본)

[언해] 猶爲法塵○ 分別影事 | 나라 - 오히려 法塵○ 分別하논 그리멧 이리 도외리라

[언해] 爲復此見이 縮大爲小 | 잇가 - 또 이 보미 큰 거시 움쳐 저기 도외니잇가



(2:32ㄴ1)



(원각사본: 기능 미상 ‘如’)

(파리본)

[언해] 作是語已 하고 悲淚頂禮 하스 와

- 이 말 하고 슬허 눈물 흘려 頂禮 하스 와

## 5. 맺음말

이상 살펴본 원각사본 능엄경 구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음독구결(수정 전) > 석독 표기(언해본의 문장 포함) > 어순 표시 > 음독구결(수정 후)의 순서로 기입된 듯하다.
- (2) 음독구결의 수정은 언해본의 구결을 반영하여 두 번 이상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후는 단지 구결자의 자형을 바꾸거나 기존 구결자를 지우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
- (3) 석독 표기는 언해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한글, 차자, 한자를 모두 이용하였고 한글은 각자병서, ㅎ이 쓰이지 않는 등 언해본의 표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 (4) 어순 표시는 기본적으로 점과 숫자를 이용하여 번호를 매겼는데, 다른 자료들과 달리 두 가지 유형의 방식을 혼용하였다.
- (5) 목적어가 길고 복잡한 문장의 어순 표시에서 다른 자료에 보이는 ‘下’, ‘上’, ‘O’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았고, 목적어에서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글자에다 동사를 적어 표시해 준 사례가 있다.
- (6) 한문 원문에서 읽지 않는 글자인 부독자에는 어순 번호를 달지 않고 수의적으로 부호 ‘不’을 사용하였다.
- (7) 둘 이상의 한자가 하나의 어휘로 번역될 때에는 석독 표기 한글을 여러 한자에 걸쳐 기입하였고, 어순 번호는 번호 매김 유형에 따라 달리 달았으며, 붙임선은 쓰지 않았다.

## 참고문헌

- 프랑스국립도서관 이미지 검색(파리본 능엄경)  
<http://gallica.bnf.fr/ark:/12148/btv1b105093974/f1.image.r=%E6%A5%9E%E5%9A%B4%E7%B6%93>
- 권인한 외(2018),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 안대현(2021),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언해 기반 석독 표기」,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구결학회, 75-88.
- 이강혁(2021), 「圓覺寺 所藏『楞嚴經』卷1 講讀」, 2021년 12월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 자료.
- 장경준(2019),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91-134.
- 장경준(2021ㄱ), 「『법화경』의 언해 기반 토 표기와 부호의 사용-법응스님 소장본 권1과 영천역 사박물관 소장본 권4를 중심으로-」,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구결학회, 89-111.
- 장경준(2021ㄴ),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의 어순 표시」, 『口訣研究』 47, 구결학회, 41-78.
- 정은영(2021),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의 구결에 대하여: 한글구결을 중심으로」, 제 60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고려시대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연구’, 구결학회, 31-47.
- 정재영·안대현·하정수(2016), 「조선 초기 釋讀口訣의 발견과 그 의미」, 제51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大明律』 및 『大明律直解』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 구결학회, 71-86.
- 최준호(2021), 「圓覺寺 所藏『楞嚴經』卷1 講讀」, 2021년 11월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 자료.
- 하정수(2020),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 2에 기입된 구결(口訣) 및 한글 연구」, 『國語文學』 74, 국어문화회, 1-37.
- 하정수(2021),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 강독」, 2021년 9월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 자료.
- 허인영(2021), 「圓覺寺 所藏『楞嚴經』卷1 講讀」, 2021년 10월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 자료.



원각사 소장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의 비교

발표: 이병기(한림대)

## <별 지>